

청소년 위기스크리닝 척도 개정

책임 연구자 : 차 주 환

공동 연구자 : 김 동 민

채 민 정

김 찬 미

이 윤 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청소년상담연구 251
청소년 위기스크리닝 척도 개정

인 쇄 : 2024년 12월
발 행 : 2024년 12월

발 행 인 : 윤효식
발 행 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센텀사이언스파크(7층~10층)
T. (051)662-3133 / F. (051)662-3008
<http://www.kyci.or.kr>

인 쇄 처 : 신일디앤피
비매품

ISBN 978-89-8234-919-5 93330

ISBN 978-89-8234-001-7 (세트)

본 간행물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간행사

정부는 2005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Net: 현, 청소년 안전망)를 구축한 이래, 현재까지 다양한 정책과 수단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청소년안전망 사업의 목적은 지역주민, 지역사회의 기관 및 단체 등 지역 내 활용가능한 자원의 연계를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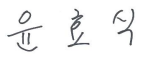
이를 위해 청소년상담복지기관 종사자는 ‘위기스크리닝 척도’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위기 여부를 파악하고 위기상황을 신속히 인지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2005년 ‘위기스크리닝 척도’를 처음 개발·제작하였으며, 2016년에는 1차 개정과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올해는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고립·은둔, 비자살적 자해 등 새로운 유형의 위기청소년을 선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위기청소년 선별을 위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분야 종사자 대상으로 기존 위기스크리닝 척도의 개선사항에 대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기청소년 관련 분야 학계 및 현장전문가 자문을 받아 위기스크리닝 척도 문항을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전국 226개소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개정한 청소년 위기스크리닝 척도의 타당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본 연구를 위해 참여해주신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학교 상담자,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어 자문을 해주신 현장 및 학계 전문가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위기스크리닝 척도 개정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써주신 중앙대학교 김동민 교수님과 본원 연구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윤효식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상담복지기관에서 위기 청소년의 발굴 및 연계 개입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청소년안전망(구, CYS-Net) 위기스크리닝 척도와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위기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선별하고 개입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위기스크리닝 척도의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및 국외의 위기스크리닝 척도 관련 문헌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둘째, 위기스크리닝 척도의 구체적인 개정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여 기존 척도의 활용시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확인하였다. 셋째, 새로운 유형의 위기청소년을 선별하기 위한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2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함께 학계 및 현장 전문가 9명을 선정하여 서면자문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위기스크리닝 척도 Part1(위험요인)과 Part2(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에서 기존 척도의 문항을 수정하고 새로운 문항을 추가하여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청소년 위기스크리닝 척도 Part2는 위기 유형별 세부 준거 결정을 위해 현장 및 학계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합의적 회의체를 운영하였다. 이 회의체에서는 위기 청소년 유형별 전문가 3인이 한 팀을 구성하여, 위기 유형별 문항 초안에 제시된 위험군과 고위험군의 준거에 대해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226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대상으로 개정한 청소년 위기스크리닝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시범운동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예비문항의 구성타당도는 5점 만점에 4.15점, 내용적합도는 4.18점, 활용가이드 효과성은 4.14점을 나타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간 회의를 통해 최종 위기스크리닝 척도를 확정하고, 위기스크리닝 활용가이드에 상담자의 평정지침과 문항별 예시문항을 수정·보완하였고, 주요 의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Q&A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정한 위기스크리닝 척도는 기존의 위기스크리닝 척도에서 나타난 한계를 다음과 같이 보완하였다. 첫째, 기존의 위기스크리닝 척도는 청소년의 연령(초등학교 5학년 이상과 4학년 이하) 구분되는 두 가지의 버전이 있었으나, 상담자가 관찰, 면담 등을 통해 측정 가능하므로 하나의 버전으로 통합하였다. 둘째, 기존의 청소년 위기스크리닝 척도 Part1에서는 사회적 낙인이나 편견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예, 부모 중 형 집행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과 현실과 맞지 않는 표현(예, 가족이 이웃, 친족과 왕래가 없다)은 상담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었다. 이에 개정한 청소년 위기

스크리닝 척도에서는 부적절한 문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이러한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기존의 청소년 위기스크리닝 척도 Part2에서는 하나의 문항이라도 상담자가 ‘예’라고 체크할 경우, 청소년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최종결과에서도 고위험군으로 과잉 선별되는 경향성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한 청소년 위기스크리닝 척도 Part2에서는 위험군과 고위험군의 준거를 행동차원(빈도, 강도, 지속 시간) 등을 고려하여 각각 준거를 설정하여 일반군, 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넷째, 기존의 청소년 위기스크리닝 척도 Part2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고립·은둔, 비자살적 자해, 정신건강, 사이버 폭력 등의 위기 유형을 선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개정한 청소년 위기스크리닝 척도에서는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의 새로운 위기 유형을 추가하였다. 다섯째, 기존의 청소년 위기스크리닝 활용 가이드에서는 위기 행동의 원인을 탐색할 수 있는 질문이 부재하였다. 이에 개정된 청소년 위기스크리닝 활용 가이드에서는 위기 영역별 공통질문과 함께 각 문항별 위기 행동의 원인을 깊이 있는 탐색할 수 있는 예시질문을 수록하였다. 또한 상담자가 위기스크리닝 척도의 평정에 있어서 주관적 개입이 최소화되도록 구조화된 지침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새로운 유형의 위기 청소년이 증가하고, 저 연령화되는 시점에서 청소년 상담자가 위기 청소년의 유형별 특성 및 준거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기 청소년 선별과 개입에 필요한 내용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척도의 개발과정은 과학적인 절차를 충실히 따라 진행하였고, 226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 후 타당화하여, 기존의 위기스크리닝 척도보다 광범위한 위기청소년(고립·은둔, 비자살적 자해, 정신건강 등)의 선별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척도는 청소년상담자가 내담자의 위기도를 평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소년상담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위기스크리닝 척도 활용 가이드를 제작하여 위기 영역별 공통질문과 함께 각 문항별 위기 행동의 원인을 깊이 있는 탐색할 수 있는 예시질문을 수록하여 상담자가 위기스크리닝 척도를 사용하는데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 하는데 기여하였다.

* 주요어: 상담자 평정, 청소년 위기도, 선별, 척도 개정

목차

I. 서론 1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 2. 연구과제 2

II. 이론적 배경 3

- 1. 위기청소년의 개념 및 진단 3
 - 가. 위기청소년의 정의 3
 - 나. 위기청소년의 진단과 평가 4
- 2. 위기청소년의 유형과 특성 5
 - 가. 위기청소년의 유형 5
 - 나. 위기청소년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6
- 3. 위기청소년의 수준 7
 - 가. Burt 외의 위기수준 분류 7
 - 나. Connexions 프로그램의 위기수준 분류 8
 - 다. 지승희 외의 위기수준 분류 8
 - 라. McWhiter 외의 위기수준 분류 9
 - 마. 배주미 외의 위기수준 분류 9
- 4. 청소년의 위기스크리닝 척도 관련 선행연구 10
 - 가. 국내 위기청소년 평가 및 진단 도구 10
 - 나. 해외 위기청소년의 척도 선행연구 16
- 5. 청소년 안전망(CYS-Net)의 위기스크리닝 응답 분석 21
 - 가.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의 응답 현황 분석 21

III. 연구방법 26

- 1. 청소년 위기스크리닝 척도 개정 절차 26
- 2. 문헌연구 28
- 3. 현장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28
 - 가. 연구참여자 28
 - 나. 질문지 구성 29
 - 다. 자료수집 및 분석 29

IV. 연구결과 | 30

1. 현장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 분석결과	30
2. 청소년 위기스크리닝 척도 문항 및 준거개발을 위한 의견조사 및 자문 ...	45
가. 의견조사 개요	45
나. 의견조사 결과	46
다. 서면자문 개요	48
라. 서면자문 결과	50
3. 청소년 위기스크리닝 척도 세부 준거결정을 위한 합의적 자문회의 운영 ...	57
가. 자문회의 운영 개요	57
나. 자문회의에 따는 준거 설정	58
4. 청소년 위기스크리닝 척도 개정 시범운영	61
가. 시범운영 개요	61
나. 시범운영 결과	62
다.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한 위기스크리닝 문항 확정	74

V. 논의 | 77

1. 연구의 요약	77
2. 의의 및 제언	78

참고문헌 | 80

부록 | 84

Abstract | 134

표 목차

표 1. AMPQ-III의 구성	11
표 2. CPSQ-II의 구성	13
표 3. 마음EASY 선별 검사(초등학생용) 하위요인별 해석	14
표 4. 마음EASY 선별 검사(중등학생용) 하위요인별 해석	14
표 5. 위기스크리닝 척도의 구성	15
표 6. 위기청소년 판정 지침	16
표 7. PARS 면접 평정 준거의 예	17
표 8. PARS의 16개 문항(영역)과 요인 부하값	18
표 9. ARI 하위요인,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그리고 문항	19
표 10. ARTQ 하위요인 및 문항, 그리고 위험지각-행동 관여 상관	20
표 11. 최근 5년간 CYS-Net 위기스크리닝 파트별 응답인원(명, %)	21
표 12. 최근 5년간 Part2(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 응답인원(%)	22
표 13. 현장 전문가 FGI 참여자 정보	28
표 14. 인터뷰 질문지 구성	29
표 15. 현장전문가 FGI 범주화 결과	30
표 16. 의견조사 참여자 기술통계(N=278)	46
표 17. 현행 위기스크리닝 척도 Part1(위험요인 영역) 문항별 응답분석(N=278)	46
표 18. 위기스크리닝 척도 Part1(위험요인 영역) 예비문항	48
표 19. 전문가 서면자문 참여자 정보	49
표 20.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 구성	49
표 21.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 준거설정 서면자문 결과	50
표 22.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 준거설정 초안	54
표 23. 합의적 자문회의 참여자 정보	57
표 24.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 최종 구성	58
표 25.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 준거설정 최종안	59
표 26. 현행 위기스크리닝 척도 Part1(위험요인 영역) 문항별 응답분석(N=243)	62
표 27. 개정예비 위기스크리닝 척도 Part1(위험요인 영역) 문항별 응답분석(N=243)	63
표 28. Part1 위험요인 영역별 문항에 대한 점수합계의 기술통계(N=243)	64
표 29. 현행 Part1 평정결과(N=243)	65
표 30. 개정예비 Part1 평정결과 예측(N=243)	65

표 31. 현행 위기스크리닝 척도 Part2(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 문항별 응답분석(N=243)	66
표 32. 개정예비 위기스크리닝 척도 Part2(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 문항별 응답분석(N=243)	67
표 33. Part2 평정결과(N=243)	69
표 34. 개정예비 Part1 평정결과 예측(N=243)	69
표 35. 위기스크리닝 종합평정 결과(N=243)	70
표 36. 상담자의 개정예비 척도에 대한 평가 결과	71
표 37. 청소년 위기스크리닝 척도 개정에 대한 상담자의 의견	71
표 38. 위기스크리닝 척도 Part1 최종 문항	74
표 39. 위기스크리닝 척도 Part2 최종 문항	75

그림 목차 ▮

그림 1. 청소년 위기스크리닝 척도 개정 절차	27
---------------------------------	----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우리 사회의 청소년 문제는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다. 위기는 단일 요인에 의해 발생하거나 하나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발된다. 위기청소년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청소년 자살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2020년 청소년 자살자 수는 957명으로 인구 10만명당 11.1명으로 나타났으며, OECD 회원국의 청소년(10세~24세) 평균 자살률이 6.4명인 것을 대비하면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률은 1.6배 높았다(보건복지부, 2022). 또한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에서는 성인용 영상물을 이용률이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 17,140명 중 47.5%로 2020년 37.4%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 폭력 피해율은 16.3%, 성폭력 피해율은 5.5%로 각각 집계되었다(여성가족부, 2022). 2023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에서는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 또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이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 1,276,789명 중 230,634명(18.06%)으로 집계되어 그 수가 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여성가족부, 2023).

정부는 2005년부터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기관 및 단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체계(Community Youth Safety-Net: 이하 CYS-Net)를 구축·운영해오고 있다. 2023년부터는 위기청소년의 발견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의 자료와 정보를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청소년안전망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안전망시스템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각지대를 발견하여 개입하는 등 과학적으로 상담복지 정책을 실현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처한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청소년안전망(구 CYS-Net)에서는 청소년의 위기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위기스크리닝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2005년 개발된 위기스크리닝 척도는 2016년 아동학대, 스마트폰 사용 문제 등 변화된 청소년문화와 사회적 이슈를 포함하여 개정되

었다. 또한 서비스 대상 연령에 따라 차별적으로 문항을 구성하고 진술문의 난이도를 대상 연령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정하였다. 이 척도는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찾아온 모든 내담자에게 필수적으로 시행하며, 청소년의 위기상태를 상담자나 청소년동반자가 평정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평정점수에 따라 일반군 및 잠재군, 위험군, 고위험군으로 수준이 분류되며 이에 따라 위기개입시기와 방법이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척도는 필수척도와 선택척도로 나뉜다. 필수척도에는 위험요인 영역(Part1)과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Part2)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험요인 영역은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취약성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취약성 요인은 개인, 가정, 또래, 학교, 지역사회영역으로 구분된다.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은 위기 청소년이 보일 수 있는 9개의 부정적 문제행동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9개 범주는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학업중단,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문제, 가출, 약물사용, 자살이다. 선택척도는 구조화된 면접지로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Part 2)의 9개 범주 중 어느 하나에라도 “예”라고 응답한 청소년에게 실시하게 되어 있다(김동민 등, 2015).

한편, 최근에는 사이버 도박, 고립·은둔 청소년 등 새로운 유형의 문제행동 범주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3년 처음 시행한 사이버 도박 조사에서는 88만 명의 중·고생 중 사이버 도박 문제 위험군이 28,838명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23). 또한 사회와 단절하고 집 안에 틀어박혀 지내는 고립·은둔 청소년(13~18세)은 약 14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위기스크리닝 척도는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사이버 도박, 고립·은둔, 자해 등 새로운 유형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을 선별해 내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행동 영역을 반영하도록 기존 위기스크리닝 척도를 개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문제행동 범주를 반영하는 문항을 추가하고, 그 유용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과제

첫째, 청소년 위기스크리닝 척도를 개정한다.

둘째, 청소년 위기스크리닝 척도 활용가이드를 개발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위기청소년의 개념 및 진단

가. 위기청소년의 정의

일반적으로 빈곤, 학대, 폭력, 비행 등 청소년들을 위협에 처하게 만드는 여러 요인을 ‘위기’라는 개념으로 통칭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기청소년’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하지만 ‘위기청소년’의 개념은 사회 전반적인 합의나 동의 없이 때로는 다양하게, 때로는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위기청소년에 포함되는 청소년의 범주가 워낙 다양하고 스펙트럼이 넓다보니 현장의 서비스 제공에서 배제되거나,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위기청소년 관련 논의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윤철경 외, 2006).

‘위기’의 사전적 의미는 위협적이거나 고통스러운 상태로서,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상황에 직면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김춘경 외, 2016). 또한 개념적으로 위기는 안정적인 상황에서 사용해오던 대처전략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는 상황을 지칭하며(황순길 외, 2016), 일반적으로 위기는 부정적인 생활사건으로 간주되기 쉽지만, 익숙하지 않는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처방법을 찾아낸다면 스스로를 성숙시키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황순길 외, 2016). 위기청소년 연구에서 ‘위기(at risk)’의 개념도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나타나지 않지만 적절하게 개입하지 않을 경우 미래에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 광범하게 사용된다(윤철경 외, 2005; McWhirter et al., 2004).

OECD(1995)는 위기청소년을 ‘학교에서 실패하고, 직업이나 독립적인 성인의 삶으로 성공적으로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것 같은 청소년’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러한 정의 방식은 위기청소년을 청소년기에 수행해야 할 과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상태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불안정성과 그로 인해 청소년들이 처한 위험한 현실을 위기의 핵심요인으로 보는 관점이 자리 잡고 있다(황여정, 이정민, 2020). 실제로 OECD(2007)는 위기청소년

을 ‘빈곤, 부모의 양육 및 지도감독 부재, 가출 및 노숙, 소년원 등 구금 시설에 있는 청소년, 학대 및 방임, HIV/AIDS 등 보건 및 건강상의 문제, 장애를 포함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황순길 외(2016)는 위기청소년을 ‘개인적, 가족적, 교육적, 사회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거나, 그러한 위기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으로 지칭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위기청소년이 처한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나. 위기청소년의 진단과 평가

청소년의 위기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기청소년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선별해야 한다(황순길 외, 2016). 위기청소년의 진단 및 평가는 위기청소년 사례개념화를 돕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개입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위기청소년의 문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과 사회적 위기상황이 상호 연관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구본영 외, 2005). 따라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진단 및 판단은 현 시점 우리나라 청소년의 특수성을 아우르는 위기와 문제가 포함되어야 한다(서미 외, 2018).

한편 위기청소년을 평가하는데 있어 청소년 위험 및 문제의 유형뿐만 아니라 위기수준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위기수준은 위기 개입의 시급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준거가 된다. McWhirter 등(2004)은 위기를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고, 위기수준에 따라 최저위기, 저위기, 위기행동 입문, 위기행동단계로 구분하여 가장 심각한 위기수준을 약물남용, 학업중단, 위험한 성행동, 총기사용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영국의 커넥션스 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의 위기수준을 3단계로 구분하여 중간단계 이상을 위기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간 단계는 복합적 위기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고 높은 단계는 이미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드러내는 집단이다(윤철경 외, 2005). 구체적으로 중간단계의 집단은 복합적인 위기상황은 아니지만 복합적인 위기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 집단이다. 또한 높은 단계의 집단은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지닌 그룹으로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또한 낮은 단계의 집단은 일반적으로 별 문제가 없으면 학업성적도 우수하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청소년 집단으로서 학업과 진로상담 중심의 지도가 필요한 집단이다. 이처럼 위기수준을 나누고 이에 따른 개입을 달리하는 것은 위기청소년 상담 및 개입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게 된다.

2. 위기청소년의 유형과 특성

가. 위기청소년의 유형

일반적으로 위기청소년이란 용어로 통칭되는 집단 안에서도 위기의 유형, 경중, 수준에 따라 경험하는 문제가 매우 다양할 것이다. 또한 개인 내에서도 시간 혹은 상황 변화에 따라 위기의 단계나 경중이 끊임없이 변할 수 있다.

하지만 심리적 문제 해결 및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비율이 적지 않다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21년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는 학생 청소년 10명 중 적어도 1명,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적어도 3명은 우울, 불안, 자살 위험 등에서 임상적인 수준의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정원, 문호영, 전진아, 박용천, 2021). 그리고 보건복지부(2022)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18%가 정신 장애로 진단받은 경험이 한 번 이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의 정신건강이 대체로 취약한 상태인 점을 고려했을 때, 위기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위기청소년의 상태를 조기에 점검하고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박진우, 허민숙, 2021).

황여정과 이정민(2020)은 구체적인 위기청소년 집단을 확인하기 위해, 법령과 각종 정책사업에서 지원대상으로 언급된 위기청소년 유형을 검토하였다. 먼저 청소년 분야 법령에 규정된 위기청소년 유형으로는 빈곤, 가출, 비행·일탈, 학교 밖 청소년, 요보호, 가정폭력·학대 피해, 이주배경, 일상생활 부적응, 청소년 한부모, 성매매/성폭력 피해, 인터넷 게임 중독, 약물 중독, 환각물질 중독, 학습·정서·행동 장애 청소년 등이 언급되었다. 다음으로, 복지 분야 법령에서는 빈곤, 요보호아동(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아동), 아동학대 피해자, 약물·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 피해자 등이 도출되었고, 교육 분야 법령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과 장애학생이 특별히 언급되었다. 소년법에서는 범죄·비행 관련 청소년에 대해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으로 표현하고, 소년법의 취급 범위에 범죄·측법·우범 소년,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가출, 음주 소란, 유해환경 접촉 성향을 가진 청소년 등을 명시하였다. 또한 정책대상으로서의 위기청소년 유형으로는 빈곤 청소년, 성폭력·성매매 등 성적 피해자, 한부모가정/조손가정/청소년(한)부모, 가출 청소년, 가정폭력·학대·방임 등 가정의 기능 상실로 보호자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학교부적응 등 학교밖 청소년, 비행·범죄 청소년 등으로 파악되었다. 그 밖에 이주배경

청소년, 인터넷 중독, 약물중독, 학교폭력, 정서·행동 문제 및 자살·자해 청소년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상담복지 현장에서 자살·자해 관련 상담 및 지원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1). 질병관리청(2024)의 2022년 퇴원손상통계에 따르면 자해를 했다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청소년(13세~18세)은 64명이었는데, 이는 2012년 28명이었던 수치와 2.3배이다. 최근에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해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놀이로 간주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 즉 비자살적 자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서미, 김지혜, 이태영, 김은하, 2018). 비자살적 자해를 하는 청소년은 상담을 받고 싶어 하거나 친구의 지지를 원하는 등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으면서도(서미, 김지혜, 이태영, 김은하, 2019) 자해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두려워 자해를 감추려고 한다(이진규, 조성희, 2020). 따라서 자해를 하는 청소년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개입하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일련의 질문을 통해 충분히 자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진단할 필요가 있다(Garisch, Wilson, O' Connell, & Robinson, 2017).

한편, 다양한 위기청소년 유형 중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유형 중 하나는 고립·은둔 청소년이다. 다수의 연구에서 고립·은둔 문제가 청소년기에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고하였다(김효순, 김서연, 박희서, 2016; 이지민, 김영근, 2021;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3). 실제로 보건복지부(2023)의 실태조사에서 고립·은둔 청년의 23.8%가 10대 때부터 고립·은둔을 시작했다고 응답하였다. 고립·은둔 문제는 청소년 스스로 극복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장기화될 우려가 크며, 가정붕괴, 고독사, 자살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3). 또한 고립·은둔이 장기화될수록 사회적 기술이 감소하고 교류할 수 있는 연결망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진다(유민상, 신동훈, 2021). 따라서 청소년 고립·은둔 위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에서 고립·은둔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김혜원, 2022; 여성가족부, 2024;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4).

나. 위기청소년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윤철경 외(2005)는 약물·폭력·가출·범죄 등 문제행동으로 표출되는 개인적 위기상황, 빈곤·가족해체·학대 등 가족적 위기상황, 학습부진·학업중단 등 교육적 위기상황, 그리고 실업·범죄피해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위기상황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협하는 네 가지 위기상황이라고 하였다. 국내외 대부분의 연구자들도 위험요

인을 개인요인, 가족요인, 또래와 학교요인, 지역사회요인 등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강근모, 이준기, 2015; 김보영, 이정숙, 2009; 오승환, 2010; 전영천, 2010; 정묘순, 서수균, 2014; 진혜민, 배성우, 2012).

위기청소년에게는 문제행동으로 이르게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들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행동을 억제하고 위기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보호요인도 있다. 보호요인은 부정적 결과가 예측되는 위기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정상발달을 이끄는 요인으로서,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독립변인인 동시에 위험요인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완충하는 조절변인으로서 부정적 결과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며 보호요인 역시 개인, 가족, 또래 및 학교, 지역사회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황순길 외, 2016).

3. 위기청소년의 수준

청소년의 위기 수준은 위기에 대한 정의, 양상, 영향요인 등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며 학자마다 위기 수준을 설명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정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일반군에서부터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고위험 수준까지 분류하고 있다. 위기 청소년의 수준을 분류한 선행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

가. Burt 외의 위기수준 분류

Burt 외(1992)는 알코올 등 약물사용, 범죄 행동 등 고위험 수준의 위기를 경험하는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방법을 안내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기 수준을 4가지의 개념적 틀로 설명하였다(구본용 외, 2005; 배주미 외, 2010).

첫째, 위기 전조(risk antecedents)이다. 이 위기는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환경의 힘(environmental forces)을 뜻하는 것으로, 미래의 문제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이웃 환경 등이 포함된다.

둘째, 위기 표식(risk markers)이다. 이 위기는 청소년이 처해있는 상황적·맥락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불화가 심한 가정환경, 가정폭력 및 학대, 부모의 이혼, 자연적 재해, 정체성의 위기, 고용주의 착취 및 임금 체불, 친구들과의 불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1) 황순길, 김동민, 김화연(2015). 청소년 위기실태조사(1차년도 문항개발) 연구 내용에서 발췌함

셋째, 문제행동(risk behavior)이다. 이 위기는 위기 전조 및 위기 표식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보이기 쉬운 행동으로, 자신이나 타인의 심리적·신체적 안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들을 말한다. 성매매, 흡연 및 음주, 자살충동 및 시도, 비행청소년들과의 어울림, 빈번한 무단결석, 폭력 및 권위적 인물과의 갈등 등이 해당된다.

넷째, 위기 결과(risk outcomes)이다. 이 위기는 청소년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의 사회 안전망에서 이탈하여 건강한 성장에 명백한 부정적 결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다. 가출, 범죄, 정신적 장애 및 자살 등의 행동이 이에 해당한다.

Burt 외는 청소년의 위기수준은 낮은 수준인 위기 전조 단계에서부터 가장 심각한 위기 결과 수준까지 진행되며, 위기를 극복하면 정상발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나. Connexions 프로그램의 위기수준 분류

Connexions는 2001년 영국에서 운영된 프로그램으로 13세에서 19세의 위기청소년 및 비위기청소년에게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민간, 비영리 기관이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Connexions는 청소년의 위기수준을 낮은 단계, 중간 단계, 높은 단계로 구분하였다(윤철경, 2005).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학업성적도 우수하고 학업 및 진로상담이 필요한 수준의 청소년은 낮은 단계의 위기 수준에 해당한다. 중간 단계의 위기 수준에 속한 청소년은 현재 위기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여러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으며,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해 이 시기를 잘 극복하여 성인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수준이다. 높은 단계의 위기 수준에 속한 청소년은 이미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전문가에 의해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수준이다.

다. 지승희 외의 위기수준 분류

지승희 외(2006)는 청소년의 위기수준을 4단계로 분류하고 이를 위험성, 문제행동 영역, 환경적 영역, 정신건강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전국 16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전문상담자에게 문제행동 영역, 환경적 영역, 정신건강 영역에 해당하는 가상의 사례를 제시하고 위험성 수준과 위기수준을 평정하도록 한 다음 평정 내용 일치도가 70% 미만인 영역에 대해 전문가의 합의를 거쳐 위기수준의 기준을 확정한 것이다.

가장 먼저 1수준인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자신과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

는 파괴적 위기상황에 놓여있다. 자살시도, 집단폭행, 왕따, 성매매, 은둔형 외톨이, 게임 중독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며 부모의 학대, 유기,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정환경에 속해있다. 정신건강 영역에서는 전문의의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문제를 보인다.

2수준인 위험군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파괴적이지는 않지만 현저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으로 자살사고, 왕따, 도박, 가출경험, 무단결석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며 부모와의 갈등, 의사소통 결여 등의 부적응적인 가정환경에 속해있으며 심리적 문제를 스스로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3수준인 잠재적 위험군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위기상황이 나타날 잠재적 조건을 갖춘 경우로, 흡연 및 음주 등의 문제행동과 비행청소년들과의 어울림, 교사와의 갈등, 유해 환경 노출 등의 부정적 환경에 놓여있으며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4수준인 정상군은 문제 및 잠재적 조건을 보이지 않는 경우이다.

라. McWhiter 외의 위기수준 분류

McWhiter 외(1998)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위기는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연속적인 개념으로 이해했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정의와 그에 따른 문제 상황들은 5단계 위기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배주미 등, 2010), 최저위기 (minimal risk) 수준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좋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갖고 있고 학교나 가족 환경, 사회적 관계가 긍정적이며, 심리·환경적으로 스트레스 요인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저위기(remote risk) 수준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최저위기에 비해 다소 부족한 사회경제적 배경, 학교나 가족 환경, 사회적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심리·환경적으로 몇 가지의 스트레스 요인을 갖고 있다. 고위기(high risk)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부정적인 가족, 학교, 사회적 관계에 속해있으며, 심리·환경적으로 많은 스트레스 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부정적 사고, 정서 및 행동 등 개인적 위기징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단계이다. 위기행동 입문(imminent risk) 수준은 어느 한 가지 유형의 문제행동이 시작되는 단계이며, 위기행동(at-risk category activity) 수준은 위기행동 입문수준의 문제행동과는 다른 범주의 위기행동으로 발전해 나가는 단계이다.

마. 배주미 외의 위기수준 분류

배주미 외(2010)는 전국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Modified Angoff 방식을 통해

청소년의 위기수준을 분류하였다. 청소년의 위기요소를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군 3군으로 분류하였고 위기결과 항목의 해당여부에 따라 총 6수준으로 분류하였다. 청소년의 위기수준은 위기요소와 위기결과 2가지를 통합하여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위기결과란 인터넷 게임문제(하루 3시간 이상 사용 또는 일상생활을 주 1~2회 이상 못함), 약물문제(거의 매일 음주 또는 흡연, 주 1~2회 이상 본드나 가스 등 사용), 학교폭력(주 1~2회 이상 폭력 피해 및 가해), 따돌림 피해(거의 매일), 절도 및 갈취(주 1~2회 이상), 자살계획(주 1~2회 이상), 자살시도(2~3번 이상), 성매매(1번 이상), 성폭력(1번 이상 피해 및 가해), 가출(주 1~2회 이상 경험, 현재 가출한 상태), 학업중단(현재 중단 상태) 문제를 일컫는다. 언급된 위기결과 항목 중 1문항 이상 응답한 청소년은 위기결과 항목에 해당하게 된다.

고위험군이면서 위기결과를 보이는 1수준, 잠재적 위험군이면서 위기결과를 보이는 2수준, 일반군이면서 위기결과를 보이는 3수준, 위기결과는 없지만 고위험군에 속하는 4수준, 위기결과를 보이지는 않지만 잠재적 위험군인 5수준, 위기결과도 없고 일반군인 6수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청소년의 위기수준을 이해하였다.

4. 청소년의 위기스크리닝 척도 관련 선행연구

가. 국내 위기청소년 평가 및 진단 도구

1) 청소년 정신건강 및 문제행동 선별질문지(AMPQ)

청소년 정신건강 및 문제행동에 관한 조기개입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일선에서 청소년을 담당하는 교육 및 상담관련기관 종사자들이 가급적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2006년 청소년 정신건강 및 문제행동 선별질문지(AMPQ)를 개발하고 각 학교 및 정신보건센터에서 사용하도록 보급하였다. 이후 2007년에 개발된 AMPQ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를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AMPQ-II가 개발되었다. 2016년부터 교육부는 AMPQ-II를 개정한 AMPQ-III를 개발하여 전국의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위기청소년을 선별하기 위한 검사로 활용하고 있다. AMPQ-III는 자기보고식 6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구성은 <표 1>과 같다.

<표 1> AMPQ-III의 구성

유형	내용
개인 성격특성	내적: 성실성, 자존감, 개방성 외적: 타인이해, 공동체의식, 사회주도성
위험문항	학교폭력피해 자살관련: 자살사고, 자살계획
정서행동 문제요인	심리적부담: 자해, 자살, 학교폭력피해, 피해의식, 관계사고, 반항성향, 폭식 기분문제: 우울증, 기분조절장애, 조울증 등의 기분장애, 신체화 성향, 강박 성향 불안문제: 시험 및 사회적 상황 등에 대한 공포증, 강박성향, 심리적 외상 반응, 환청, 관계사고 자기통제부진: 학습부진,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품행장애,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중독
기타	전반적 삶의 질, 상담경험, 지원 선호도

출처: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 매뉴얼(교육부, 2022)

AMPQ-III 검사결과를 분석하여 청소년들을 정상군과 관심군으로 선별하고 관심군은 다시 일반관리와 우선관리 대상으로 분리한다. 관심군으로 선별된 청소년들은 학교 내 상담관리 및 전문기관의 치유를 지원받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된다. 특히 우선관리 대상일 경우 전문기관에 우선적으로 의뢰되며 조치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AMPQ-III 검사의 성격특성 부분은 청소년들의 성격특성의 장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관심군 선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서행동문제 총점에 따라 관심군과 정상군을 판정하며 성별과 연령에 따라 평균에서 1.55표준편차를 벗어나는 경우에 관심군에 해당된다. 관심군 중에서 정서행동문제 총점이 중1 남학생 37점/여학생 39점, 고1 남학생 39점/여학생 37점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관리 대상이 된다.

자살위기 관련 문항의 점수의 합이 2점 이상이거나 자살시도 관련 문항의 합이 5점 이상인 학생은 자살관련 면담지를 이용하여 개인면담을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연계된다. 학교폭력 피해 관련 문항의 점수 합이 2점 이상인 경우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게 인계하여 폭력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담임교사 또는 해당 청소년을 잘 이해하는 교사가 추가적으로 교사용 정서·행동특성 검사(AMPQ-III-T)를 실시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정서·행동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도구로서 전체 학생들에게 적용할 필요는 없으며 학교에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할 시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2) 학생정서·행동발달 특성 검사

아동기의 문제행동들은 성인기 이후 지속될 위험이 높으므로 아동기의 문제행동에 대한 조기선별 및 예방적 개입이 필요하다. 아동의 경우 자신의 증상이나 어려움에 대해 표현하고 보고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문제행동을 평가할 때 부모와 교사는 중요한 정보제공자 역할을 하며 특히 대규모로 아동의 정신병리를 측정할 시 교사나 부모가 응답하는 설문지가 매우 유용하다(Boyle & Jones, 1985).

아동의 문제행동 판별 시 쓰이는 행동평가 척도는 주로 Children Behavior Check List(CBCL), CBCL Teacher Report Form(TRF) 등이 신뢰도와 타당도가 증명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문항 수가 길고 작성시간이 비교적 긴 검사로 문제행동의 판별보다는 진단의 목적으로 쓰이기 적합하다(황혜정, 강성빈, 윤명희, 2001). 또한 아동의 문제행동을 평가하는데 우리나라 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허윤석(2003)은 부모나 교사가 아동의 문제 행동을 판별하여 아동의 문제행동 및 인지, 발달장애와 관련된 문항을 포함하여 정신병리를 선별할 수 있는 간단한 ‘아동용 문제행동 선별 질문지(Child Problem-Behavior Screening Questionnaire : 이하 CPSQ)’를 개발하였다. 이후, 2012년 교육부에서 ‘초등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CPSQ)’로 명명하였고, 2013년부터는 ‘학생 정서·행동발달 특성검사’로 명명하여 사용하였고, 2016년 기존의 CPSQ를 보완하여 CPSQ-II를 개발하여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CPSQ-II는 아동의 부모 또는 주양육자가 자녀의 성격 및 정서행동의 특성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6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문항구성은 <표 2>와 같다.

CPSQ-II 검사의 정서·행동특성 부분은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의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정서·행동특성 총점에 따라 관심군과 정상군으로 판정된다. 관심군은 정서·행동문제 총점이 초1 남학생 20점/ 여학생 17점, 초4 남학생 21점/여학생 19점 이상이며 이 점수는 평균에서 1.5SD(표준편차)를 벗어나는 경우에 해당되며, 관심군 중에서 CPSQ-II 총점이 초1 남학생 23점/여학생 20점 이상, 초4 남학생 25점/여학생 22점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 관리군에 해당한다. 또한 학교폭력피해 관련 문항에 응답한 학생자료는 생활지도 담당교사에게 인계되어 폭력정도를 확인하게 되어있다. 2016년도 개정판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표준화 연구를 바탕으로 할 때 100명의 학생 중 약 6-7명의 초등학생이 관심군으로 선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CPSQ-II의 구성

유형	내용
개인 성격특성	내적: 성실성, 자존감, 개방성 외적: 타인이해, 공동체의식, 사회 주도성
위험문항	학교폭력피해
외부요인	부모자녀관계
정서행동 문제요인	집중력부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품행장애
	불안/우울: 불안장애, 우울증, 심리적 외상 반응, 신체화 성향, 강박 성향
	학습/사회성 부진: 언어장애 및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지적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강박 성향 등
	과민/반항성: 우울증, 기분조절장애, 반항장애, 품행장애
기타	전반적 삶의 질, 상담경험, 지원 선호도

출처: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 매뉴얼(교육부, 2022)

3) 마음EASY 검사

학생정서·행동발달 특성 검사는 특정학년을 대상으로 일정한 시기에 실시하여 상시적으로 청소년들의 마음건강을 살피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교육부는 2023년 상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마음EASY검사를 개발하여 2024년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표 3>과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음EASY 검사는 진단이 아닌 학생 교육활동의 적정성을 지원하는 선별검사로서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교육부, 2023).

<표 3> 마음EASY 선별 검사(초등학생용) 하위요인별 해석

하위요인	문항	해석
정서 문제	8	전반적인 정서적 문제의 수준을 측정. 의욕저하, 수면문제, 짜증, 신경질, 감정기복 등
불안 문제	8	정서적 문제 중에서도 특히 불안과 관련된 문제의 수준측정 불안, 걱정, 죄책감, 두려움 등
대인관계 및 사회불안 문제	7	대인관계의 어려움, 타인과 함께 있거나 수행하는 상황에서의 사회 불안의 수준을 측정. 타인과 있을 때의 긴장, 자신감 부족, 타인 의식, 대인관계 형성과 유지 등
외현화 문제	8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적 문제들의 수준을 측정하며 정서 문제와 같은 다른 문제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일 수 있음. 상습적 거짓말, 친구와 자주 싸움, 물건 훔치기, 물건 부수기, 지나친 게임 이용 등.
심리외상 문제	6	심리적 외상 경험 여부와 외상 경험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들의 수준을 측정. 폭력 피해 경험, 과거 경험 침습, 악몽, 타인 회피, 학교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

출처: 마음<EASY>선별검사 활용 매뉴얼.(교육부, 2023)

<표 4> 마음EASY 선별 검사(중등학생용) 하위요인별 해석

하위요인	문항	해석
불안 및 우울 문제	8	불안 및 우울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의 수준을 측정한다. 긴장, 감정기복, 죄책감, 신경질, 의욕저하, 걱정 등의 문제를 포함한다.
자살 및 위기 문제	6	자살 및 심각한 정신적 문제와 같은 중대한 위험 증상들의 수준을 측정한다. 이 문항들의 점수가 높을 경우 우선적 관심과 개입이 요구된다. 자해, 자살계획 및 의도, 자살시도, 무망감 등을 포함한다.
외현화 문제	8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적 문제들의 수준을 측정한다. 정서적 문제와 같은 다른 문제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일 수 있다. 반항행동, 비행행동(담배, 술 등), 상습적 거짓말, 친구와 자주 싸움, 타인을 괴롭히기, 물건 훔치기, 물건 부수기, 지나친 게임 이용, 성급함 등의 문제를 포함한다.
심리외상 문제	7	심리적 외상 경험 여부와 외상 경험으로 인한 문제들의 수준을 측정한다. 폭력피해 경험, 과거 경험 침습, 악몽, 타인 회피, 지나친 안전 확인, 타인 불신 등을 포함한다.
학교생활 적응 문제	7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의 어려움과 대처기술의 저하 수준을 측정한다. 자신감 부족, 부적응적 대처, 수업 이해의 어려움, 아침 기상의 어려움 등을 포함한다.

출처: 마음<EASY>선별검사 활용 매뉴얼.(교육부, 2023)

4) 위기스크리닝 척도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제안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 Net: 이하 CYS-Net)는 지역사회의 기관 및 단체 등 활용가능한 자원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통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서미 외, 2018). 청소년이 처한 위기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2005년부터 ‘위기스크리닝 척도’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2005년 개발된 위기스크리닝 척도는 2016년 아동학대, 스마트폰 사용 문제 등 변화된 청소년문화와 사회적 이슈를 포함하여 개정되었다. 또한 서비스 대상 연령에 따라 차별적으로 문항을 구성하고 진술문의 난이도를 대상 연령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정하였다. 위기스크리닝 척도는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찾아온 모든 내담자에게 필수적으로 시행하며, 청소년의 위기상태를 상담자나 청소년동반자가 평정하는 도구이다. 이 척도는 위험요인영역(Part1)과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Part2)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위기스크리닝 척도의 구성

분류		내용	
필수 척도	모든 내담자(청소년) 들에게 반드시 시행	위험요인 (Part 1)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어서 미래의 문제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은 요인을 파악하는 척도
		위기 및 문제행동영역 (Part 2)	청소년들이 보이기 쉬운 타인의 심리적, 신체적 안녕을 위협할 수 있는 부정적 행동이나, 사회적안전망에서 이탈하여 있는 상태를 파악하는 척도
선택 척도	필수 척도에서 문제가 발견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시행	구조화된 심층 면접지	필수 척도 중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Part 2)척도의 한 영역이라도 “예”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

위기스크리닝은 초기면접에서 수집한 내담자 정보를 토대로 상담자가 직접 평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기스크리닝 척도는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내담자용 척도와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내담자용 척도가 차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학교 4학년 이하용은 1차 위험요인은 개인, 가정, 또래 및 학교영역으로 3개 영역에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차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은 인터넷 중독,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출, 자살의 6개의 영역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학교

5학년 이상용은 1차 위험요인은 개인, 가정, 또래 및 학교, 지역사회영역으로 4개 영역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차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은 인터넷 중독, 학업중단, 학교 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문제, 가출, 약물중독, 자살의 9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저연령 청소년 내담자 대상의 위기스크리닝 척도에는 1차 위험요인 영역에서 지역사회 영역이 제외되고, 2차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에서 학업중단, 성문제, 약물중독의 영역이 제외되어 있다(김동민 외, 2016).

위기 청소년 선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자의 평가이다. 위기스크리닝 척도는 현장에서 내담자를 직접 만나고 평가하는 상담자의 전문적 판단을 반영하고자 했으며 위기관정 지침은 <표 6>과 같다. 예를 들어 1차 위험요인 척도에서 10점 이상 또는 2차 위기 및 문제 행동 척도에서 1개 이상이면 고위험군으로 최종 판정된다. 또한 1차 점수와 2차 점수 중 위기수준이 높게 나타난 쪽으로 최종 판정된다.

<표 6> 위기청소년 판정 지침

1차 위험요인 척도 점수합계	2차 위기 및 문제행동 척도	결과해석	비고
0점-4점	없음	잠재군 및 일반군	
5점-9점	없음	위험군 위기상담 진행	긴급한 위기상황 및 문제행 동 유무 탐색 필요
10점 이상	1개 이상	고위험군 심층적 평가 실시	

나. 국외 위기청소년의 척도 선행연구

1) Perkins Adolescent Risk Screen(PARS; Adams 등, 2003)

PARS는 16개의 영역에 걸쳐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평가하는 구성된 반구조화 면접 양식이다. 이 척도는 각 영역을 나타내는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면접자는 각 위기 영역의 문항을 청소년의 반응에 따라 낮음, 보통, 높음으로 평정한다. <표 7>은 PARS 문항에 대한 평정 예를 제시한 것이다.

<표 7> PARS 면접 평정 준거의 예

낮음		보통	높음
알코올 남용	단지 호기심에 한 모금 맛만 보았다.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 일주일에 한 번을 초과하지 않음, 한번 마실 때, 맥주 3잔 또는 위스키 2잔을 초과하지 않음	완취함, 술이 취했을 때의 상황과 행동을 기억하지 못함(blackout), 음주 때문에 가정이나 학교생활에 문제가 발생, 한번에 4잔 이상 마심
	종교의식으로 맛만 보았다.		
학교 문제	중상 정도의 성적을 유지함	성적 하락, 학교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음	성적 하락, 정학, 결석이 잦음

면접은 통상 8분~12분 정도 소요된다. 각 문항에 대한 표준적인 질문이 있어서 면접자가 면접 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반구조화 면접양식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질문을 하도록 허용된다. 16개 문항에 대한 주성분분석 결과 5개요인(위험, 보호, 관계/정동, 동기, 그리고 몸무게)이 추출되었다. 신뢰도(*Cronbach's α*)는 .74였다. 문항과 총점간 상관은 .08~.67이었다. 5개의 문항은 적절한 상관(즉, 30) 이하로 나타났다. 평정자간 일치도는 $r=.80$ 이었다. <표 8>은 PARS 16개 영역과 Adams 등(2003)에 보고된 요인 부하값을 나타낸 것이다.

PARS는 반구조화 면접 양식뿐만 아니라 자기보고식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한 문항 수를 갖지만, 각 문항마다 낮음, 보통, 높음을 나타내는 복수의 행동진술문이 제시된다. 각각의 행동진술문에 대한 청소년의 응답 비율에 따라 낮음, 보통, 높음이 부여된다.

<표 8> PARS의 16개 문항(영역)과 요인 부하값

영역(문항)	위험	보호	관계 /정동	동기	몸무게
음주	.82				
성 관련 문제	.81				
약물	.80				
흡연	.75				
영양		.67			
운동		.62			
좋은 성품(good qualities) 및 미래계획		.60			
친구관계		.57			
정동(mood)			.73		
학대			.53		
가족 간 관계의 질			.51		
폭력				.80	
학교관련 문제				.58	
안전관련 행동				.56	
몸무게에 대한 느낌					.84
몸무게					.76

2) Adolescent Risk Inventory(ARI; Hardley, Brown, Zimskind, 2007)

ARI는 정신과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넓은 영역에 걸친 위험 행동 및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자기보고 척도이다. 이 척도는 19문항의 위험 행동 척도와 10문항의 태도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이 척도의 문항은 성적 위험, 성적 및 신체적 학대, 자살 행동, 공격적 행동, 체중 관리, 그리고 약물 남용에 관한 행동 여부 및 태도를 측정한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예/아니오’로 응답하지만, 성 관련 두 문항에는 3점 척도로 응답한다. 총점이 높을수록 위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성분 분석 결과, 위험행동에 있어서는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태도에 있어서는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표 9>는 ARI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계수 그리고 문항을 제시한 것이다.

<표 9> ARI 하위요인,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그리고 문항

영역	α	문항
성 위험	.72	작년에 성관계를 한 횟수?
		작년 섹스 파트너의 수?
		콘돔 없이 섹스하는가?
		섹스 중 알코올 또는 약물 사용하는가?
		임신을 했거나 아버지가 된 적이 있는가?
		항문 성교를 한 적이 있는가?
		성병에 걸린 적이 있는가?
학대/자해	.80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가?
		의도적으로 상처를 낸 적이 있는가?
		체중조절을 위해 굶은 적이 있는가?
		체중 조절을 위해 구토하거나 완하제를 사용한 적이 있는가?
		자해하는 것을 생각하는가?
		신체적 학대를 했는가?
		성적 학대를 당한 적이 있는가?
폭발행동	.53	섹스와 돈이나 마약을 교환한 적이 있는가?
		이유 없이 규칙 위반을 했는가?
		물건을 절단해서 나누었는가?
		타인과 싸움을 했는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HIV) 불안	.58	바늘이 있는 약물(마약)을 사용했는가?
		HIV에 감염된 것 같아 걱정했는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HIV) 예방 및 자기효능감	.72	미래에 HIV에 걸릴까봐 걱정했는가?
		화가 나면 콘돔을 사용할 수 있는가?
		술에 취하더라도 콘돔을 사용할 수 있는가?
보편적인 고통	.58	파트너와 안전한 섹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가?
		지난 한 달 동안 전반적으로 화가 났는가?
보편적인 위험	.60	지난 한 달 동안 전반적으로 절망감을 느꼈는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지 않고 일을 처리하는가?
		친구들이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는가?
		음주 운전자와 함께 차에 탑승하는가?

3) Adolescent Risk-Taking Questionnaire(ARTQ; Gullone, Moore, Moss. & Boyd, 2000)

ARTQ는 청소년이 생각하는 22개의 위험행동에 대한 관여 정도와 위험 정도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는 질문지이다. 관여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0=전혀 하지 않는다’ 부터 ‘4=매우 자주 한다’까지의 5점 척도로 평정한다. 위험 정도에 대한 지각 문항은 ‘0=전혀 위험하지 않다’ 부터 ‘4=매우 위험하다’까지의 5점 척도로 평정한다. 관여 정도와 위험정도 지각 척도는 모두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는 남녀

별 그리고 어린 청소년과 더 나이든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 모두 40개의 추정치가 생성되었다. 이중 여자 청소년 대상 ‘반사회 행동’ 관여($\alpha = .66$)와 더 나이든 청소년 대상 ‘반사회 행동’ 위험지각($\alpha = .67$)은 .70보다 낮았다. 나머지 38개 신뢰도 추정치는 모두 $\alpha = .70$ 이상이었다. <표 10>은 ARTQ 행동 관여 정도와 위험 수준 지각 정도 척도의 4개의 하위요인과 해당 문항을 제시한 것이다.

<표 10> ARTQ 하위요인 및 문항, 그리고 위험지각-행동 관여 상관

하위요인	문항	상관
스릴을 추구하는 행동	눈에서 스키타기	.59 ~ .74
	태권도 하기	
	인라인 스케이트타기	
	낙하산타기	
	시합에 나가기	
	비행기 날리기	
	학교 그만두기	
반항적인 행동	미성년자 음주	-.51 ~ -.57
	흡연	
	음주	
	약물복용	
무모한 행동	외박	-.2 ~ -.38
	음주운전	
	자동차 절도해서 타기	
	무방비 성관계	
	과속	
반사회적 행동	무면허 운전	-.14 ~ -.19
	과식	
	사람들을 놀리고 괴롭힘	
	부정행위	
	낯선 사람과의 대화	
	가스 또는 본드 흡입	

5. 청소년 안전망(CYS-Net)의 위기스크리닝 응답 분석

가.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의 응답 현황 분석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 내담자들의 위기스크리닝 척도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위기정도를 분류하고 그 비율을 <표 11>에 제시하였다.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Part1(위험요인)에서 고위험군으로 선별되는 비율은 각각 4.3%, 5.6%, 4.3%, 4.5%, 5.1%로 나타났으며, Part2에서는 33.30%, 40.19%, 42.42%, 52.57%, 42.28%로 집계되었다.

<표 11> 최근 5년간 CYS-Net 위기스크리닝 파트별 응답인원(명, %)

구분	위험정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Part1	0점 ~ 4점 (일반군)	99,795 (73.5%)	66,318 (68.5)	78,321 (67.2%)	77,939 (66.9%)	27,757 (62.1%)
	5점 ~ 9점 (위험군)	30,150 (22.2%)	25,029 (25.9%)	33,209 (28.5%)	33,438 (28.6%)	14,608 (32.8%)
	10점 이상 (고위험군)	5,877 (4.3%)	5,425 (5.6%)	5,006 (4.3%)	5,209 (4.5%)	2,250 (5.1%)
Part 2	고위험군	45,226 (33.30%)	38,894 (40.19%)	49,434 (42.42%)	49,636 (52.57%)	18,866 (42.28%)
합계		135,822	96,772	116,536	116,586	44,615

* CYS-Net의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응답

* 2023년은 5월까지의 응답

<표 11>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 안전망(CYS-Net)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초등 5학년 이상 내담자 중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Part1(위험요인 영역)과 Part2(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에 대한 응답값을 분석하였다. Part1에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5,877명(2019년), 5,425명(2020년), 5,006명(2021년), 5,209명(2022년), 2,250명(2023년)으로 나타났다. Part2에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45,226명(2019년), 38,894명(2020년), 49,434명(2021년), 49,636명(2022년), 18,866명(2023년)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나타난 이유는 고위험군 판별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Part1(위험요인 영역)에서는 점수의 합계(10점 이상)로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반면, Part2(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에서는 한 문항

만이라도 ‘예’에 해당되는 경우 모두 고위험군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Part1에서 일반군으로 선별되었다고 하더라도 Part2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 12> 최근 5년간 Part2(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 응답인원(%)

영역	문항내용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터넷중독	게임,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예, 학업, 대인관계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예	22,547 (49.9%)	21,163 (50.4%)	29,801 (60.3%)	30,684 (61.8%)	10,053 (53.3%)
		아니오	21,212 (46.9%)	16,440 (42.3%)	18,334 (37.1%)	17,817 (35.9%)	8,261 (43.8%)
		미확인	1,467 (3.2%)	1,291 (3.3%)	1,299 (2.6%)	1,135 (2.3%)	552 (2.9%)
		합계	45,226 (100%)	38,894 (100%)	49,434 (100%)	49,636 (100%)	18,866 (100%)
학업중단	학교를 그만 두었고 학업을 계속 할 계획이 없는 상태이다.	예	4,611 (10.2%)	4,175 (10.7%)	4,002 (8.1%)	4,468 (9.0%)	2,071 (11.0%)
		아니오	37,140 (82.1%)	31,643 (81.4%)	40,617 (82.2%)	39,112 (78.8%)	15,735 (83.4%)
		미확인	3,475 (7.7%)	3,076 (7.9%)	4,815 (9.7%)	6,056 (12.2%)	1,060 (5.6%)
		합계	45,226 (100%)	38,894 (100%)	49,434 (100%)	49,636 (100%)	18,866 (100%)
학교폭력	친구 또는 선후배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	예	2,119 (4.7%)	1,841 (4.7%)	1,708 (3.5%)	2,040 (4.1%)	903 (4.8%)
		아니오	39,383 (87.1%)	33,579 (86.3%)	42,510 (86.0%)	41,204 (83.0%)	16,705 (88.5%)
		미확인	3,724 (8.2%)	3,474 (8.9%)	5,216 (10.6%)	6,392 (12.9%)	1,258 (6.7%)
		합계	45,226 (100%)	38,894 (100%)	49,434 (100%)	49,636 (100%)	18,866 (100%)
	친구 또는 선후배에게 폭행을 가하고 있다.	예	2,930 (6.5%)	2,378 (6.1%)	2,207 (4.5%)	2,510 (5.1%)	1,164 (6.2%)
		아니오	38,621 (85.4%)	33,088 (85.1%)	42,083 (85.1%)	40,767 (82.1%)	16,460 (87.2%)
		미확인	3,675 (8.1%)	3,428 (8.8%)	5,144 (10.4%)	6,359 (12.8%)	1,242 (6.6%)
		합계	45,226 (100%)	38,894 (100%)	49,434 (100%)	49,636 (100%)	18,866 (100%)
	같은 반 친구들에게 심하게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예	5,094 (11.3%)	3,522 (9.1%)	3,276 (6.6%)	3,978 (8.0%)	1,801 (9.5%)
		아니오	36,362 (80.4%)	31,890 (82.0%)	40,919 (82.8%)	39,313 (79.2%)	15,807 (83.8%)
		미확인	3,770 (8.3%)	3,482 (8.8%)	5,239 (10.6%)	6,345 (12.8%)	1,258 (6.7%)
		합계	45,226 (100%)	38,894 (100%)	49,434 (100%)	49,636 (100%)	18,866 (100%)

	같은 반 친구를 심하게 따돌리거나 괴롭히고 있다.	합계	45,226 (100%)	38,894 (100%)	49,434 (100%)	49,636 (100%)	18,866 (100%)
		예	2,223 (4.9%)	1,670 (4.3%)	1,493 (3.0%)	1,883 (3.8%)	778 (4.1%)
		아니오	39,250 (86.8%)	33,676 (86.6%)	42,702 (86.4%)	41,353 (83.3%)	16,801 (89.1%)
		미확인	3,753 (8.3%)	3,548 (9.1%)	5,239 (10.6%)	6,400 (12.9%)	1,287 (6.8%)
		합계	45,226 (100%)	38,894 (100%)	49,434 (100%)	49,636 (100%)	18,866 (100%)
가정 폭력	같이 사는 가족 구성원 중 내담자에게 자주 심한 욕설이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 있다.	예	6,413 (14.2%)	5,425 (13.9%)	6,047 (12.2%)	5,916 (11.9%)	2,694 (14.3%)
		아니오	35,021 (77.4%)	29,899 (76.9%)	38,162 (77.2%)	37,300 (75.1%)	14,921 (79.1%)
		미확인	3,792 (8.4%)	3,570 (9.2%)	5,225 (10.6%)	6,420 (12.9%)	1,251 (6.6%)
		합계	45,226 (100%)	38,894 (100%)	49,434 (100%)	49,636 (100%)	18,866 (100%)
		예	3,183 (7.0%)	2,913 (7.5%)	3,003 (6.1%)	3,169 (6.4%)	1,376 (7.3%)
	가족 구성원 중에 내담자가 자주 심한 욕설이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 있다.	아니오	38,202 (84.5%)	32,335 (83.1%)	41,110 (83.2%)	40,001 (80.6%)	16,206 (85.9%)
		미확인	3,841 (8.5%)	3,646 (9.4%)	5,321 (10.8%)	6,466 (13.0%)	1,284 (6.8%)
		합계	45,226 (100%)	38,894 (100%)	49,434 (100%)	49,636 (100%)	18,866 (100%)
		예	1,863 (4.1%)	1,497 (3.8%)	1,404 (2.8%)	1,727 (3.5%)	704 (3.7%)
아동 학대	가정에서 보호자로부터 방임(먹을 것을 주지 않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을 당하고 있다.	아니오	39,673 (87.7%)	33,835 (87.0%)	42,807 (86.6%)	41,590 (83.8%)	16,936 (89.8%)
		미확인	3,690 (8.2%)	3,562 (9.2%)	5,223 (10.6%)	6,319 (12.7%)	1,226 (6.5%)
		합계	45,226 (100%)	38,894 (100%)	49,434 (100%)	49,636 (100%)	18,866 (100%)
		예	1,236 (2.7%)	1,179 (3.0%)	1,054 (2.1%)	1,438 (2.9%)	548 (2.9%)
	가정에서 보호자가 내담자의 형제를 심하게 때리거나 방임(먹을 것을 주지 않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한다.	아니오	40,273 (89.0%)	34,148 (87.8%)	43,123 (87.2%)	41,849 (84.3%)	17,073 (90.5%)
		미확인	3,717 (8.2%)	3,567 (9.2%)	5,257 (10.6%)	6,349 (12.8%)	1,245 (6.6%)
		합계	45,226 (100%)	38,894 (100%)	49,434 (100%)	49,636 (100%)	18,866 (100%)
		예	3,060 (6.8%)	2,725 (7.0%)	2,829 (5.7%)	2,952 (5.9%)	1,245 (6.6%)
성문제	성폭력(강간, 성추행)을 당하거나 한 적이 있다.	아니오	38,248 (84.6%)	32,401 (83.3%)	41,202 (83.3%)	40,152 (80.9%)	16,252 (86.1%)
		미확인	3,918 (8.7%)	3,768 (9.7%)	5,403 (10.9%)	6,532 (13.2%)	1,369 (7.3%)

	조건 만남(성매매) 을 한 적이 있다.	합계	45,226 (100%)	38,894 (100%)	49,434 (100%)	49,636 (100%)	18,866 (100%)
		예	1,166 (2.6%)	1,128 (2.9%)	919 (1.9%)	1,313 (2.6%)	466 (2.5%)
		아니오	40,164 (88.8%)	33,987 (87.4%)	43,072 (87.1%)	41,761 (84.1%)	17,032 (90.3%)
		미확인	3,896 (8.6%)	3,779 (9.7%)	5,443 (11.0%)	6,562 (13.2%)	1,368 (7.3%)
		합계	45,226 (100%)	38,894 (100%)	49,434 (100%)	49,636 (100%)	18,866 (100%)
남 : 여자 친구가 임신한 상태이거나 임신을 한 경험이 있다. 여 : 임신을 한 상태 이거나 임신을 한 경험이 있다.	예	남	766	778	585	1014	321
		여	945	924	754	1139	395
	아니오	남	40616	34382	43,508	42136	17,242
		여	40469	34243	43,339	42049	17,170
	미확인	남	3844	3734	5,341	6486	1,303
		여	3812	3727	5,341	6448	1,301
가 출	현재 가출한 상태 이다.	예	2,588 (5.7%)	2,476 (6.4%)	2,243 (4.5%)	2,554 (5.1%)	983 (5.2%)
		아니오	39,358 (87.0%)	32,966 (84.8%)	42,314 (85.6%)	40,973 (82.5%)	16,729 (88.7%)
		미확인	3,280 (7.3%)	3,452 (8.9%)	4,877 (9.9%)	6,109 (12.3%)	1,154 (6.1%)
		합계	45,226 (100%)	38,894 (100%)	49,434 (100%)	49,636 (100%)	18,866 (100%)
		합계	45,226 (100%)	38,894 (100%)	49,434 (100%)	49,636 (100%)	18,866 (100%)
약 물 사 용	최근 3개월 이내에 환각제나 가스, 본 드, 락카와 같은 약 물을 사용한 적이 있다.	예	1,099 (2.4%)	1,030 (2.6%)	770 (1.6%)	1,157 (2.3%)	382 (2.0%)
		아니오	40,373 (89.3%)	34,199 (87.9%)	43,422 (87.8%)	42,078 (84.8%)	17,207 (91.2%)
		미확인	3,754 (8.3%)	3,665 (9.4%)	5,242 (10.6%)	6,401 (12.9%)	1,277 (6.8%)
		합계	45,226 (100%)	38,894 (100%)	49,434 (100%)	49,636 (100%)	18,866 (100%)
		합계	45,226 (100%)	38,894 (100%)	49,434 (100%)	49,636 (100%)	18,866 (100%)
자 살	자살 충동을 느끼 고 있다.	예	9,051 (20.0%)	7,515 (19.3%)	8,227 (16.6%)	8,296 (16.7%)	3,561 (18.95)
		아니오	32,181 (71.2%)	27,711 (71.2%)	35,834 (72.5%)	34,796 (70.1%)	13,992 (74.2%)
		미확인	3,994 (8.8%)	3,668 (9.4%)	5,373 (10.9%)	6,544 (13.2%)	1,313 (7.0%)
		합계	45,226 (100%)	38,894 (100%)	49,434 (100%)	49,636 (100%)	18,866 (100%)
		합계	45,226 (100%)	38,894 (100%)	49,434 (100%)	49,636 (100%)	18,866 (100%)

※ 2023년은 5월 이전까지의 응답임

구체적으로 Part2(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의 연도별 응답 추이를 살펴보면, 인터넷 중독 영역은 전체 고위험군 청소년 중 50%이상을 차지하며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학업중단 영역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위기도를 파악하기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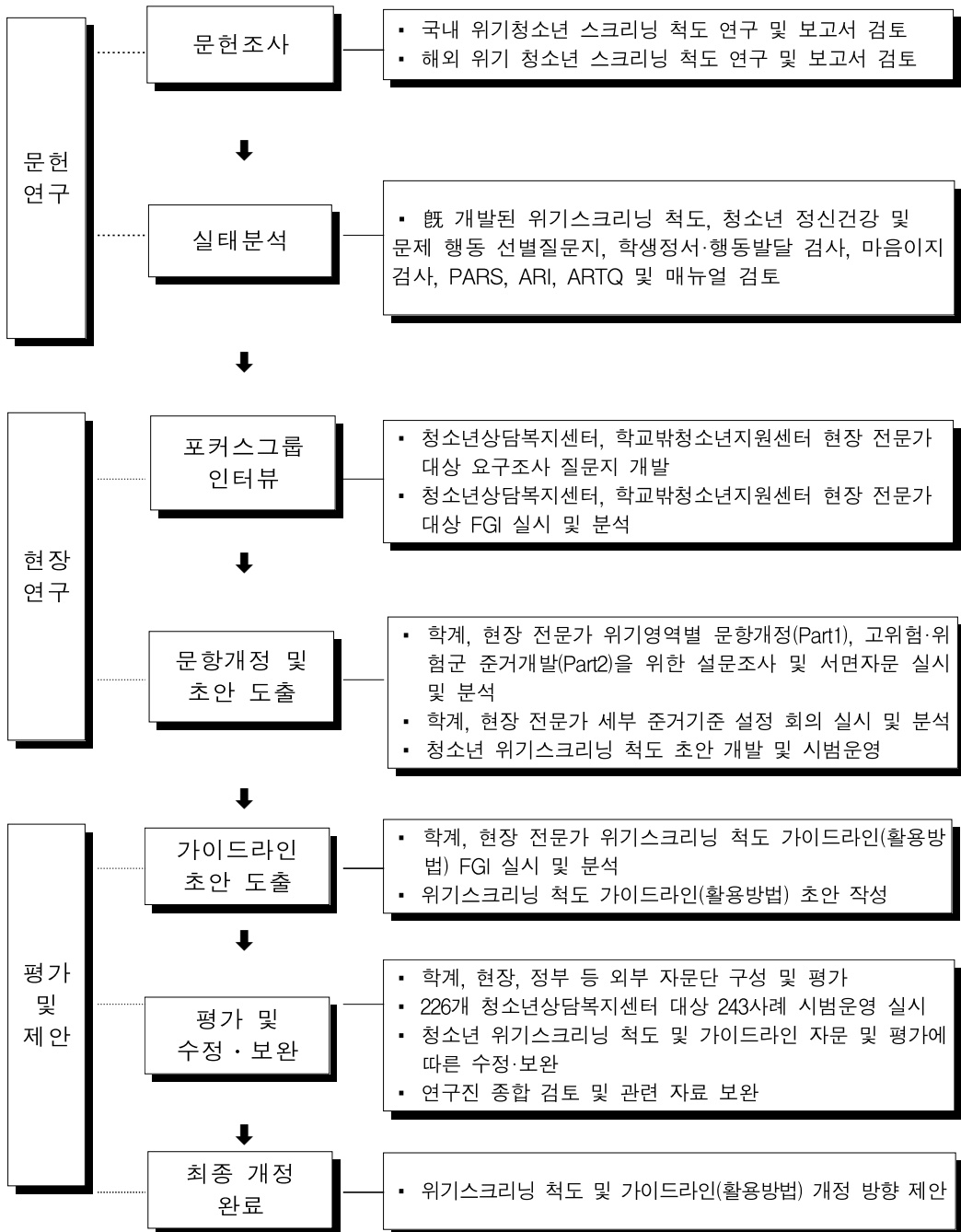
구체적인 문항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문항의 응답을 살펴보면 같은 반 친구들에게 심하게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2021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미확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같은 반 친구를 심하게 따돌리거나 괴롭히고 있다' 는 문항에 대한 미확인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성폭력 영역 중 '성폭력(강간, 성추행)을 당하거나 한 적이 있다' 는 문항또한 미확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약물사용' 의 영역에 대해 '예' 라는 응답은 매년 2%를 차지하여 비교적 낮은 수치이나 미확인의 비율이 높아 구체적인 문항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자살 영역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은 인터넷 중독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역시 2021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자살충동에 대해 미확인의 대한 응답 또한 높게 나타나 구체적인 문항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III. 연구방법

1. 청소년 위기스크리닝 척도 개정 절차

본 연구는 최근의 새롭게 부각되는 위기 청소년의 특성과 문제행동을 반영하여 기존의 청소년안전망(구, CYS-Net) 위기스크리닝 척도를 개정하고, 위기스크리닝 척도에 대한 활용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보완하며 효율적으로 위기청소년을 선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 및 국외의 위기스크리닝 척도 관련 문헌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현장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여 기존 척도의 활용 시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개정의 방향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위기청소년을 선별하기 위한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2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 9명을 선정하여 서면 자문을 받았다. 이를 통해 Part1과 Part2 영역에서 기존문항을 수정하고 추가할 새로운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와 함께 상담자가 위기스크리닝 척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위기스크리닝 척도 활용가이드’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0개소 중 226개소에서 위기스크리닝 척도 개정(안)을 시범운영 하였다. 그리고 시범운영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최종 위기스크리닝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최종 척도를 확정하였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위기스크리닝 척도 활용가이드’ 내용을 보충하였다. 구체적인 위기스크리닝 척도 개정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청소년 위기스크리닝 척도 개정 절차

2. 문헌연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안전망 위기스크리닝 척도 개정을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위기청소년의 정의 및 유형, 위기청소년을 선별하고 평가하는 방법, 기존의 정부 부처에서 개발한 위기스크리닝 관련 도구의 개발 방법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청소년안전망 위기스크리닝 척도, 정신건강 및 문제 행동 선별질문지, 학생정서·행동발달 검사, PARS, ARI, ARTQ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분석하여 활용방법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과는 차별화된 위기스크리닝 척도의 개정방향을 설정하고 개발절차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최근 청소년안전망의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의 응답을 분석하여 청소년 위기 현황을 양적으로 분석하여 척도 개정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3. 현장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가.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위기스크리닝 척도 개정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현장의 청소년 위기실태의 경향과 새로운 위기영역을 탐색하고자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였다. FGI참여자들은 위기청소년 상담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지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유관기관에 근무 중인 현장전문가 6명을 선정하였으며 자세한 정보는 <표 13>으로 제시하였다.

<표 13> 현장 전문가 FGI 참여자 정보

대상자	성별	직급	연령대	상담경력	지역
현장전문가1	여	청소년동반자	40대	5년 11개월	충남
현장전문가2	여	청소년동반자	30대	9년 1개월	서울
현장전문가3	여	청소년동반자	40대	3년 7개월	부산
현장전문가4	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50대	15년 4개월	경기도
현장전문가5	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장	40대	7년 4개월	서울
현장전문가6	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원	30대	10년	경남

나. 질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는 위기 청소년 상담경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반구조화된 형태의 질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질문지 구성은 <표 14>와 같다. 질문지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상담 관련 연구 경력과 실무경험이 있는 교육학 박사 3인, 심리학 석사 1인에 의해 구성되었다.

<표 14> 인터뷰 질문지 구성

구분	내용
도입질문	센터에서 발굴되는 위기청소년의 유형과 위기수준
주요질문	2. 현재 위기스크리닝 척도의 사용현황 3. 척도의 구성 및 문항의 적절성 4. 추가되거나 수정되어야 할 영역과 문항의 내용
마무리질문	5. 척도 개정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 6. 척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제언

다.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는 그룹당 3명씩 나누어 총 2회, 각각 2시간씩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진 1인이 주 진행을 맡아 진행하였다. 인터뷰 진행 전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인터뷰 내용 기록 및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으며, 사전에 인터뷰 질문지를 발송하여 인터뷰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뷰 종료 후에는 축어록을 질적자료 분석 프로그램 MAXQDA 2020을 사용하여 유사한 개념을 유목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진은 축어록을 반복적으로 읽고 내용의 의미 파악하고, 의미 단위를 대범주, 중범주, 하위범주로 분류하였다. 분석의 민감성, 타당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진들이 정기적 모임을 통해 유사성, 구별성, 관련성 등을 기준으로 의미 단위와 범주화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자료 분석의 결과에 대해 전체 연구진이 합의에 이를 때까지 분석을 반복하였다.

IV. 연구결과

1. 현장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 분석결과

본 연구의 연구진들은 포커스그룹인터뷰 내용을 통해 분석한 결과, 총 5개의 대범주, 12개의 중범주, 50개의 하위범주를 추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15>에 제시하였다.

<표 15> 현장전문가 FGI 범주화 결과

상위범주	중범주	하위범주
청소년 위기 실태	최근 경향	고위험군 증가
		저연령화
개정 필요성	현장에서 척도 사용 시 어려운 점	새로운 위기 영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시간의 한계
		현실과 맞지 않는 표현
		상담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
		행정업무 과부하
	사용현황	평정자(상담자, 내담자)
		평정방법 다양
	척도 목적 불분명	내담자 분류 및 입력의 도구 내담자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 자료
위기 청소년 유형	주요 위기 영역	자살(시도, 사고, 충동)
		비자살적 자해
		대인관계 문제
		정신건강(심리·정서·행동적 문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학교 부적응
	새로운 위기 영역	고립·은둔
		비행(절도)
		약물 오남용
		도박중독
		디지털 성범죄 가·피해(그루밍 등)
위기 스크리닝 문항 수정사항	개정방향	최근 경향 반영
		위기 영역 세분화
		정확한 평정기준 제시

상위범주	중범주	하위범주
		평정을 간소화
		PART2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 우선 파악 필요
		자해 관련 문항 추가 필요
		연령 구분 불필요
	Part 1	PTSD(개인영역) 추가
		부모양육태도(가정영역) 추가
		경제적 어려움(가정영역) 추가
		가족력(가정영역) 추가
		비행(또래 및 학교영역) 추가
		등교 거부(또래 및 학교영역) 추가
		과거 폭력피해, 따돌림 경험(또래 및 학교영역) 추가
		지역 내 사건, 특성 등(지역사회영역) 추가
	Part 2	인터넷 중독을 스마트폰 및 게임중독으로 구체화
		고립·은둔 추가
		정신건강(심리·정서적, 임상적 등) 추가
		아동학대를 가정폭력으로 구체화
		그루밍, 디지털 성범죄 등 추가하여 성 문제 구체화
		학업중단을 등교 거부 혹은 학교 부적응으로 수정
		비자살적 자해 추가 필요
면접지, 해설, 가이드라인 수 정사항	구조화 면접지	필요한 내용 중심 선택적 활용
		구조화된 평정 지침 필요
	문항별 해설	문제행동 원인 관련 탐색 질문 필요
		구조화된 평정 지침 필요
	CYS-Net 가이드라인	기본연계기관, 지원방안 등 필요

1) 청소년 위기실태

청소년 위기실태에는 현장의 상담자들이 만나는 위기 청소년들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범주들로 구성되었다. ‘최근 경향’의 중범주 아래에 ‘고위험군 증가’, ‘저연령화’의 2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가) 최근경향

① 고위험군 증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청소년 내담자들은 대부분 고위험군이나 중위험군으로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들은...고위험군이나 중위험군 정도 친구들이 많고 저위험군은 거의 못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고위험군이 많을까 그런 것도 조금 고민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 심리적으로 조금 어렵거나 이런 친구들은 위클래스 가서 몇 번 상담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아예 저희 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까지는 신청을 안 하거나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 (현장전문가1)

“네 저희도 위기스크리닝 했을 때 고위험군으로 체크되는 사례가 과반수 이상인 것 같고요 ” (현장전문가2)

② 저연령화

현재 위기스크리닝 척도는 5학년 이상과 4학년 이하로 연령에 따라 구분되어 있지만 현장전문가들은 연령에 따른 차이를 느끼지 못했으며 위기행동의 연령이 내려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성을 대하는 어떤 태도나 그런 거는 진짜 요즘 너무 빨라진 것 같아서 안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저희 기관이 만 9세부터 이용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3학년 정도부터 오는데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이하 5학년 이상 이렇게 나누는 게 사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 (현장전문가 2)

“저도 저희는 요새 만 9세 아이들부터 오기 때문에 4학년 이하 이렇게 저희가 별다르게 크게 위기스크리닝 척도가 이렇게 좀 다르다 이런 건 많이 못 느꼈고.. (현장전문가 3)

2) 개정 필요성

개정 필요성에는 현장에서 위기스크리닝 척도를 사용하는 상담자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사용현황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범주들로 구성되었다. ‘현장에서 척도 사용 시 어려운 점’의 중범주 아래에 ‘새로운 위기 영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시간의 한계’, ‘현실과 맞지 않는 표현’, ‘상담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 ‘행정업무 과부하’의 5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사용현황’의 중범주 아래에는 ‘평정자(상담자, 내담자)’, ‘평정 방법 다양’의 2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척도 목적 불분명’의 중범주 아래에는 ‘내담자 분류 및 입력의 도구’와 ‘내담자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 자료’의 2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가) 현장에서 척도 사용 시 어려운 점

위기스크리닝은 전체 센터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상담자들은 현장에서 척도를 사용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개발된 지 8년이 된 척도이기에 현재의 청소년 위기를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 현장전문가 모두가 문제점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시간의 한계, 업무의 과중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점을 아쉬워하고 있었다.

① 새로운 위기 영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이게 또 만들어진 지 좀 몇 년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유형들이 빠져 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현장전문가1)

“진짜 다른 무엇보다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정말 고위험군인 친구들이 많은데 여기에 제공되는 항목에 걸리지 못해서 빠져나가야 되는 게 고위험군으로 판단되지 못하는 내담자들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현장전문가2)

② 시간의 한계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하자고 한다면은 아이들하고의 초기 상담 자체가 1시간도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장전문가5)

“저희도 아이들하고 탐색적인 어떠한 관계들을 좀 형성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한다거나 그러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현장전문가4)

③ 현실과 맞지 않는 표현

“이제 저희가 항상 말하는 게 지속적으로 술, 약물 흡입, 본드, 부탄가스, 이거 너무 올드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현장전문가 3)

“학교중단이 이미 된 상태에서 온 애들한테는 이 스크리닝 안의 내용을 굳이 평정할 수 있는 필요 없는 문항들도 존재하고 있어요” (현장전문가6)

④ 상담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 평정하느냐가 그 친구의 위기도를 좀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맡은 사례가 정말 심각하다고 이야기하고 바라보고 싶은 거는 또 상담자들의 개인 욕구인 것 같아서...(중략) 그렇지만 척도 문항에 대한 해설이나 지침이 존재해서 통합된 의견을 가지고 이 친구를 판별한다든지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전문가2)

“사실 이제 상담사마다 해석을 다르게 해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 부분에서도 상담사가 어디를 위험 요인으로 접근하는지에 따라가지고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장전문가3)

⑤ 행정업무 과부하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 정보기 때문에 이거를 모아두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이 조사표와 자립 역량 척도 심리 정서 환경 척도는 잘 모아놓고는 있는데 위기스크리닝을 그렇게 이제 여기다가 에너지를 쏟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장전문가5)

“저희가 모든 아이들한테 이 검사(심리정서환경척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검사만으로도 벅차다는 이야기에 정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는 상황...” (현장전문가4)

나) 사용현황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자들은 필수적으로 위기스크리닝 척도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용현황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은 숙련된 상담자들이 평정하고 있었지만, 내담자에게 척도를 보여주며 함께 체크하는 형태로 활용하는 센터도 있다. 접수면접이나 첫 상담에서 평정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상담관계를 형성한 이후에 평정하는 상담자들도 있었다.

① 평정자(상담자, 내담자)

“저희는 위기스크리닝은 절대 아이들에게 보여주지는 않고 상담사가 스크리닝을 해요...(중략)그 전에 잘 몰라서 그가 내담자들이랑 같이 했던 경우에 컴플레인이 좀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애한테 막 고위험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느냐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런 전화가 걸려온다든지. 그런 그냥 전례가 있어서 상담사가 하게 된 건데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는 사실 별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현장전문가2)

“저희는 위기스크리닝 척도를 아이들한테 먼저 체크하게 해보고 나서... 아이가 위기스크리닝 한 거 하고 우리가 이제 봤을 때, 다를 경우에만 저희가 수정을 하고 아이들과 같이 저희는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전문가3)

② 평정방법 다양

“이제 접수 면접할 때 신청서하고 같이 가지고 들어가기는 하는데 네 이거를 이렇게 아이들 보는 앞에서 꺼내놓고 좀 이렇게 체크하기가 조금 그래서...(중략) 이제 접수 면접 끝나

고 상담자가 이렇게 수기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현장전문가1)

“이제 저는 사실 이거 애들 보면서는 안 썼고 처음 만나서 이제 아이들이랑 제일 구조화된 초기 면접하고 나서 나온 다음에 이제 기억나는 거 바탕으로 체크를 했었거든요.”

(현장전문가6)

“의뢰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첫 의뢰 당시에 위기스크리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면접 이후에 어느 정도 파악되고 나서 하기도 하고.. 진행 중에 새로운 위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수정하기도 합니다.” (현장전문가2)

다) 척도 목적 불분명

위기스크리닝 척도의 목적에 따라 활용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상담자들은 척도의 목적을 빠르게 위기정도를 선별하는 도구의 역할로 보는 경우도 있었지만, 내담자의 정보를 탐색하여 이후 상담계획을 세우는데 유용한 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① 내담자의 분류 및 입력의 도구

“이제 물론 이제 잘 활용하면 이제 고위기를 감별하고 사례 사정을 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지만은 실제 장면에서는 그냥 고위기나 위기나 그거 구분해서 입력하는 기준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하나만 일단 파트 2에서 뭐 하나만 해당되면 그거 체크하고 나머지는 거의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어서...” (현장전문가6)

② 내담자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 자료

“위기스크리닝 척도가 사실 그 아이들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하면 잘 바라보고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상담으로 또는 이제 다양한 활동으로 연계해서 이 아이들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중점이라고 한다면...” (현장전문가4)

“이 사례에 대한 개입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이제 상담자 스스로 잡아가는 과정의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 (현장전문가6)

3) 위기 청소년 유형

위기 청소년 유형은 현장에서 발굴되는 청소년들이 주로 보이는 위기영역과 새롭게 나타나는 위기영역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범주들로 구성되었다. ‘주요 위기영역’의 중범주 아래에 6개의 하위범주, ‘새로운 위기영역’의 중범주 아래에 5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가) 주요 위기영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는 청소년이 주로 보이는 위기영역에 대한 질문에는 자살, 비자살적자해 등을 포함하여 6개의 하위범주가 확인되었다.

① 자살(시도, 사고, 충동)

“저희는 일주일에 12차례 정도 사례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 한 다섯 사례 정도가 자살·자해로 진행하고 있고...(중략) 그중 자살 충동, 자살 행동을 했던 아이들이 저희는 많았어요 ” (현장전문가 3)

② 비자살적자해

“요즘 비자살적자해 이렇게 해서...(중략) 아이들이 자해의 흔적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오거든요 ” (현장전문가 4)

③ 대인관계 문제

“이제 대인관계 친구 관계에 어려움이 큰 친구들이 있고 (후략)” (현장전문가 2)

④ 정신건강(심리·정서·행동적 문제)

“공황장애나 아니면 사회 공포나 대인기피나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저희가 24살까지 이제 척도지를 활용할 수 있다 보니 조현 증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오기도 하거든요 ” (현장전문가 4)

“우울이나 불안 이런 거 아니더라도, 실제 환청을 듣는다거나 사고장애가 있다거나 하는 친구들도 최근에 되게 많은데 (후략)” (현장전문가 2)

“조현병이 있다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진단받고 그걸로 학교를 그만두었을 때는 이거를 이제 외부에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아서 조현병을 숨기고 온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이런 것들 품행장애 같은 것들을 다 숨기고 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후략)” (현장전문가 5)

⑤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은 요즘의 시료를 보자면 사실 스마트폰 중독이 훨씬 더 많고(후략)” (현장전문가 4)

⑥ 학교 부적응

“학교 부적응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아이들, 그리고 학교를 실제로 그만두고 정신 건강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친구들 저희는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현장전문가 3)

나) 새로운 위기영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는 청소년이 보이는 위기영역 중 최근 새롭게 나타나는 위기영역에 대한 질문에는 고립·은둔, 비행(절도) 등을 포함하여 5개의 하위범주가 확인되었다.

① 고립·은둔

“작년부터는 은둔하는 친구들 은둔형 외톨이 친구들도 막 12사례 중에 3사례씩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후략)” (현장전문가 1)

② 비행(절도)

“법원에서 오는 친구들은 이제 디지털 성범죄라든지 절도 이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현장전문가 1)

③ 약물 오남용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께서 병원을 많이 데리고 갔다가 상담 오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처방약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것들을 막 한 번에 먹는다든지. 조금 더 큰 애들은 엄마 안정제와 술을 같이 복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거식증이나 이런 애들은 나비약 같은 거 구하려고 사람을 구하고 그거를 다른 물질과 함께 복용한다든지 그런 것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요 (중략) 전자담배 그런 것들 너무 손쉽게 구할 수 있어서 되게 어린 애들도 갖고 다니고 그래서 확실히 여기에 나오는 그냥 단순하게 술, 그리고 그냥 본드 이런 것보다는 애들이 돈이 들어서 그렇지, 돈으로 구할 수 있는 것들까지 이제 좀 더 넓혀가 더 심각해졌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현장전문가 2)

④ 도박중독

“도박을 계속해서 하는 친구들이 지금 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도박중독 관련한 영역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전문가 1)

“주로 사이버, 온라인으로 되게 접하기가 정말 쉽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들어봤는데 그리

고 상담을 오지 않는 친구 중에서도 어쨌든 반에서 이거를 많이 하고 있고, 본인이 중독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후략)” (현장전문가 1)

“지금 도박을, 사이버 도박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래 및 학교영역에 이렇게 주변에 또래의 이렇게 도박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후략)” (현장전문가 3)

⑤ 디지털 성범죄 가·피해(그루밍 등)

“디지털 그루밍이라든지 본인이 성범죄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형태의 성범죄도 좀 많이 들어오고(후략)” (현장전문가 2)

“성피해,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매체 쪽으로 해서 인터넷 온라인으로 성인 남성들과 성 그런 관계라든가 그런 성적으로 지금 초등 저학년들 저희 쪽에 지금 의뢰된 학생들 많고(후략)” (현장전문가 3)

4) 위기스크리닝 문항 수정사항

위기스크리닝 척도 개정을 위해 추가되거나 수정되어야 할 영역과 문항의 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는 것, 정확한 평정기준을 제시하는 것, 평정을 간소화하는 것의 필요성 등의 의견이 있었다.

가) 개정방향

위기스크리닝 척도의 전반적인 개정 방향은 총 7개의 하위범주로 확인되었다.

① 최근 경향 반영

“사용되는 언어 같은 것들 중에 술, 약물 흡입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물질 오남용이나 그리고 비행 이런 언어로 조금 같음이 되면. 조금 옛날 느낌이라는 그제 좀 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현장전문가 2)

“또래 및 학교 영역에서도 이제 저희가 항상 말하는 게 지속적으로 술, 약물, 흡입, 본드, 부탄가스 이거 너무 올드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후략)” (현장전문가 3)

② 위기 영역 세분화

“저는 이게 예, 아니오 말고도 그냥 이게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간, 높고, 낮고, 중간 이렇게 가는 것들이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차라리 이 문항 영역들이 세분화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략) 그래서 그냥 차라리 오히

려 영역들이 좀 나누어져서 이 영역 안에서의 이제 어떤 평가 기준이 나온다면 이 친구들을 위기로 볼 것인가 아닌가 그게 좀 더 저희한테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후략)” (현장전문가 5)

③ 정확한 평정기준 제시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또 아동학대나 이런 부분들로 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여기에서는 아동학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은 좀 없거든요 그래서 학대에 이런 조정을 보인다는지 아니면 이제 이거 체크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문항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전문가 5)

④ 평정을 간소화

“이제 만약에 이게 더 세분화되고 점수를 매길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나뉘진다면 이 친구들의 위기를 파악하는 게 조금 더 저희한테는 일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현장전문가 5)

⑤ Part2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 우선 파악 필요

“Part1에서 고위험군으로 체크되기가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분명 이제 Part2에서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고위험인데 Part2에서 해당되지 않는 사례들이 있으면 Part1에서라도 고위험으로 잡히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도대체 애는 이렇게 심각한데 여기서 아무것도 안 걸리네라는 게 있어서. Part1에서 항목을 조금 늘려서 스크리닝이 잘 될 수 있게 만든다든지 좀 그러면 좋겠다. Part1에서 좀 문항 항목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현장전문가 2)

⑥ 자해 관련 문항 추가 필요

“자해 관련된 얘기들은 조금 더 깊이 다뤄보는 문항들은 없어서(후략)” (현장전문가 4)

⑦ 연령 구분 불필요

“저희도 사실은 오는 친구들 자체가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인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중략) 어떤 성 문제에 노출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서, 그리고 이 위기스크리닝 자체가 이제 상담자가 이렇게 체크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거를 감안해서 이제 질문이나 이런 척도를 점검하는 거기 때문

에 크게 저희도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전문가 2)

“저희 기관이 만 9세부터 이용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3학년 정도부터 오는데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이하 5학년 이상 이렇게 나누는 게 사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어차피 4학년 이하의 스크리닝을 사용하는 비율은 훨씬 더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아이들 중에서도 성범죄에 노출되고 미디어에 과하게 노출되고, 물론 그 정도나 수준 차이는 있지만 그런 게 분명히 있어서 그 연령 기준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고요” (현장전문가 1)

나) Part 1

위기스크리닝 척도 PART 1에서 추가 및 수정되어야 할 영역은 총 8개의 하위범주로 확인되었다.

① PTSD(개인영역)

“최근에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이런 최근에 어떤 트라우마 사건이라든지 어떤 그런 큰 이슈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그렇게 해서 의뢰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것도 점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현장전문가 1)

② 부모양육태도(가정영역)

“부모가 적절한 양육을 제공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정신질환이나 생활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양육 방침 상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아이들은 괜찮은데 그 부분이 오히려 힘든 경우들도 있어서, 아이 개인이 아니라, 그런 가정을 좀 판단할 수 있는 척도 문항들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후략)” (현장전문가 2)

③ 경제적 어려움(가정영역)

“가족 위기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계층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현장에서 만나다 보면 그런 아이들 외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그 아이들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확인될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 대상이 아니면 경제적으로 좀 위기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보완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긴 했습니다.” (현장전문가 4)

④ 가족력(가정영역)

“이렇게 가정영역에서도 가출을 했거나 비행 문제가 있는 형제가 있다. 여기서도 추가로 여기도 약물을 흡시 복용하고 있는 형제가 있는지”(현장전문가 3)

⑤ 비행(또래 및 학교영역)

“친한 친구나 선배 중에 수강, 저희 쪽으로 수강으로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다거나 일하는 친구가 있다 이런 쪽으로 변경이 됐으면 (후략)”(현장전문가 3)

“아이들이 비행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절도를 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그런 이렇게 비행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 그것도 하나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현장전문가 3)

⑥ 등교 거부(또래 및 학교영역)

“최근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들도 그렇고 등교 거부를 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학교를 그만둘 생각은 없는데. 이제 등교 거부로 약물을 복용하거나 갈등들이 많기 때문에. (중략) 등교 거부 같은 것도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현장전문가 3)

⑦ 과거 폭력피해, 따돌림 경험(또래 및 학교영역)

“이제 Part1에 또래 및 학교 영역에 4번 친구가 없이 따돌림 당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과거에 따돌림 당한 경험이 있다 이 부분도 사실 점점이 꼭 필요한. 지금 현재는 친구가 그래도 소수라도 있는데. 과거에 굉장히 심한 따돌림 경험이 있었다든지 이게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많이 오거든요 시점에서보다 오히려 그 이후에 이제 상담을 온 경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이렇게 점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평소애 들어가지고 이 부분을 친구가 없이 따돌림 당하고 있거나 과거 심하게 따돌림 당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수정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현장전문가 1)

⑧ 지역 내 사건, 특성 등(지역사회영역)

“최근 한 1년 정도 사이에 각 학교에서 자살 소동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범죄가 있었다거나 그리고 칼부림이 있었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마약을 나눠준다거나 이런 사건들 이런 것들이 이 지역사회 경제나 그 분위기에 조금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결로 저희를 상담을 나가거나 할 때, 이런 게 좀 필요했어서 (중략) 사회 어떤 분위기, 어떤 사건이 있었나 없었나 이런 것들도 사실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장전문가 2)

다) Part 2

위기스크리닝 척도 Part 2에서 추가 및 수정되어야 할 영역은 총 7개의 하위범주로 확인되었다.

① 인터넷 중독을 스마트폰 및 게임중독으로 구체화

“인터넷은 인터넷 중독이라는 표현이 적절한가 인터넷 게임, 게임 중독 이렇게 표현하는 게 또 좀 적절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기는 했어요 인터넷도 사실은 아이들이 다 스마트폰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어떤 표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좀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고요” (현장전문가 4)

② 고립·은둔 추가

“은둔·고립에 관련된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좀 이슈화되고 있고 척도 개발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략)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현장전문가 4)

“위기라고 본다면 은둔·고립하고 있는 거에 대한 문항이 좀 들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은둔·고립매뉴얼 상에서도 아이들 이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도 좀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현장전문가 5)

③ 정신건강(심리·정서적, 임상적 등) 추가

“개인 영역에 있어서 우울하고 목표 의식이 없다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다 이런 두루뭉술한 표현으로는 저희가 아이들을 보기에는 (중략)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질문지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장전문가 5)

“신경정신적 증상이 요즘에 진단받고 오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그 관련 지식 되게 해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을 조금 호소하고 있는 걸 좀 체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다른 상황들이 다 괜찮아도 본인이 신경증이나 정신증이 심각한 경우에는 고위험군처럼 보이는데, 위기스크리닝에서 거를 수가 없더라고요” (현장전문가 2)

“정신건강적인 문제들이 조금 있는데 스크리닝에 걸리지 않아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

어요” (현장전문가 2)

④ 아동학대를 가정폭력으로 구체화

“학대에 이런 조점을 보인다는지 아니면 이제 이거 체크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문항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전문가 5)

⑤ 그루밍, 디지털 성범죄 등 추가하여 성 문제 구체화

“여기에 성폭력을 당하거나 한 적이 있다 이게 아니라 성범죄에 노출된 적이 있다. 위험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진짜 성폭력만 최근에는 성범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서 놓쳐지는 그루밍 범죄라든지 몰카 찍는 애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알 수 있지 않을까” (현장전문가 2)

⑥ 학업중단을 등교거부 혹은 학교 부적응으로 수정

“근데 학업 중단이 이제 학교를 그만둔 경우인데 사실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해서 이게 고위험 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그래서 학교 부적응이라든지 등교 거부 이런 상황이면 이거는 정말 고위험군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학교중단을 하고 만약에 홈스쿨링을 자발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대안학교를 간다든지 여러 가지 자발적으로 뭔가 자기 진로를 설계하고 가는 경우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선택의 문제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학교 부적응 또는 등교거부 이런 식으로 좀 바뀌면 좋지 않을까.” (현장전문가 1)

⑦ 비자살적 자해 추가 필요

“자살 자해 친구들이 많이 상담을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살은 있는데 자해 쪽, 비자살적자해 이 부분이 추가됐으면 좋겠고 (후략)” (현장전문가 1)

5) 면접지, 해설, 가이드라인 수정사항

현장 전문가들은 위기스크리닝 척도 내 구조화 면접지, 문항별 해설지, CYS-Net 가이드라인 활용과 관련하여 여러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다양한 개선의견을 제시하였다.

가) 구조화 면접지

구조화 면접지는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현장 전문가들은

구조화된 평정 지침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필요한 내용 중심 선택적 활용

“위기스크리닝에서 나타난 게 있으면 사용을 하고 다 사용하지는 않고, 저희도 구조화 면접지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조금 더 탐색이 필요하다 했을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전문가 3)

“필수적으로 막 이렇게 다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영역에 해당할 때 이 질문을 기본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탐색 질문들을 하기 때문에...(후략)” (현장전문가 1)

② 구조화된 평정 지침 필요

“이 부분들에 좀 문항들을 아주 필수적인 문항들로 조금 수정하거나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매뉴얼처럼 저희가 사용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 체크할 필요는 없고 아이가 해당하는 영역에 대해서만, 좀 더 기본 질문과 플러스 추가 질문 그 아이의 상황에 맞는 이렇게 활용을 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전문가 1)

나) 문항별 해설

현장전문가들은 문항별 해설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제행동 원인 관련 탐색 질문이 필요하고 구조화된 평정 지침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문제행동 원인 관련 탐색 질문 필요

“예를 들어 어떤 의도로 자해가 이루어지는지를 조금 탐색을 하기 위한 질문들이 좀만 들어지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현장전문가 4)

② 구조화된 평정 지침 필요

“문항에 대한 해설이나 지체는 존재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게, 개인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스크리닝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사례가 정말 어떤 지원이 필요해서 회의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곳도 연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만큼은 이제 다 같이 가도 다 자평정 같은 것도, 할 때는 그런 매뉴얼이나 지침을 보고 다시 스크리닝을 한다든지, 또는 통합된 의견을 가지고 이 친구를 판별한다든지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전문가 2)

다) CYS-Net 위기스크리닝 가이드라인

현장 전문가들은 CYS-Net 위기스크리닝 가이드라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본 연계기관 및 지원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① 기본연계기관, 지원방안 등 필요

“기본적으로 이런 매뉴얼이 있는 거는 저도 좋다고 생각하고 또 필수 기관이나 이런 거 예전에 나온 CYS-Net 내 자료에서 또 2024년 사업지침에 필수 기관이 더 많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또 저희 지역에서도 또 지금 현재 많이 연계되고 있는 기관들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어떻게 연계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여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내용을 추가해서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전문가 1)

“이게 필수 이게 가이드라인이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참고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 좋은 것 같고 (중략) 필수 가이드라인을 조금 촘촘히 해주시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전문가 3)

“저희가 상담 베이스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자원 연계나 기관을 알고 이런 건 또 복지 영역이라고 생각해서서 잘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안내가 다 되어 있고 어디 여쭙보면 갑자기 책자 꺼내가지고 잠깐만 이렇게 하고 막 그러시거든요 약간 필수 교육이나 가시성이 좋게 나와 있으면 많은 상담사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장전문가 2)

2 청소년 위기스크리닝 척도 문항 및 준거개발을 위한 의견조사 및 자문

현장전문가 FGI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위기스크리닝 척도(Part1, Part2)의 문항 수정 및 새로운 위기영역을 추가하고자 현장 설문조사(Part1)와 전문가 서면자문(Part2)을 실시하였다.

가. 의견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 위기스크리닝 Part1(위험요인 영역)의 문항별 적합도와 중요도를 측정하고 개정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에는 전국 214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278명의 상담사가 참여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4년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였다. 구체적인 의견조사 참여자 정보는 <표 16>과 같다.

<표 16> 의견조사 참여자 기술통계(N=278)

구분		인원(명)
성별	남	53(19.1%)
	여	225(80.9%)
상담경력	1년 미만	8 (2.9%)
	1년 이상 - 3년 미만	51(18.4%)
	3년 이상 - 5년 미만	38(13.6%)
	5년 이상-7년 미만	47(16.9%)
	7년 이상	134(48.2%)
센터 내 직급	동반자	59(21.2%)
	팀원	99(35.6%)
	팀장	110(39.6%)
	기타	10(3.6%)

나. 의견조사 결과

현장상담자들의 설문조사 내용을 취합하여 문항별 적합도와 중요도의 결과 정리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표 17> 현행 위기스크리닝 척도 Part1(위험요인 영역) 문항별 응답분석(N=278)

영역	문항	적합도 (표준편차)	중요도 (표준편차)
개인 영역	1.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존감이 낮다.	3.81(0.72)	3.89(0.72)
	2.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존감이 낮다.	4.07(0.58)	4.22(0.58)
	3. 우울해하거나 목표의식이 없다.	4.34(0.64)	4.55(0.53)
	4.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많다.	4.43(0.58)	4.56(0.53)
	5. 중독(알코올, 약물, 인터넷, 스마트폰, 도박 등)문제가 있다.	4.23(0.69)	4.82(0.57)
	6. 인지력, 이해력, 어휘력, 대인관계 등에 어려움이 있다 (경계선 지능 수준).	3.89(0.81)	4.24(0.62)
	7. 성적 관심(예, 음란물 등)이 과도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	3.82(0.76)	4.07(0.60)
가정 영역	1. 가족원간의 폭력과 갈등이 심하다.	4.40(0.59)	4.60(0.51)
	2.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별거 혹은 이혼했다.	4.26(0.58)	4.29(0.62)
	3. 가출을 했거나 비행 문제가 있는 형제가 있다.	3.93(0.67)	3.95(0.65)

	4. 부모 중 형 집행을 선고받은 적 있다.	3.66(0.87)	3.90(0.65)
	5. 부모에게 중독(알코올, 약물, 인터넷, 도박 등) 문제가 있다.	4.26(0.60)	4.42(0.59)
	6. 부모에게 정신질환(우울, 불안, 환청 등) 문제가 있다.	4.29(0.61)	4.49(0.57)
	7.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채무, 빈곤, 실직)가 있다.	4.13(0.57)	4.25(0.60)
	8. 가족이 이웃, 친족과 왕래가 없다.	3.35(0.91)	3.42(0.85)
또래 및 학교 영역	1. 지속적으로 술, 약물흡입(본드, 부탄가스, 락카 등), 도박을 하는 친구가 있다.	3.86(0.77)	4.07(0.62)
	2. 친한 친구나 선배 중에 폭력 서클에 소속된 친구가 있다.	3.58(0.96)	3.95(0.69)
	3. 친한 친구 중에 조건 만남(성매매)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	3.97(0.66)	4.13(0.65)
	4. 친구가 없이 따돌림 당하고 있다.	4.44(0.59)	4.61(0.50)
	5. 학교 선생님과 사이가 좋지 않다.	4.03(0.64)	3.98(0.59)
	6. 공부에 흥미가 없고 성적이 매우 낮다.	3.94(0.76)	3.98(0.59)
	7.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적으로 혹은 자주 학교에 결석한다.	4.34(0.63)	4.45(0.57)
지역 사회 영역	1. 주거환경이 비위생적이고 위험하다.	3.87(0.76)	3.94(0.66)
	2. 지역사회가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3.33(0.93)	3.58(0.84)
	3. 이웃이나 지역사회에 욕설이나 폭행 사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3.49(0.93)	3.64(0.82)

연구참여자들은 Part1이 청소년의 위험요인과 위험영역을 간편하게 판정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기를 희망하였으며, 청소년 개인영역에서는 좀 더 위험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과의존, 공격성, 비행, 무동기 등의 문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정영역에서는 부모의 이혼이나 형 집행 등 낙인이나 편견을 일으킬 수 있는 문항을 수정하고, 8번 ‘가족이 이웃, 친족과 왕래가 없다’와 같은 적합도와 중요도가 낮은 문항은 삭제하였다. 또래 및 학교영역과 지역사회 영역에서는 적합도와 중요도가 낮은 문항을 중심으로 문항을 수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영역(10문항), 가정영역(7문항), 또래 및 학교영역(7문항), 지역사회영역(3문항)의 총 27문항으로 예비문항 개발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아래의 <표 18>과 같다.

<표 18> 위기스크리닝 척도 Part1(위험요인 영역) 예비문항

영역	문항
개인 영역	1. 외모에 대한 자존감이 낮다.
	2. 능력에 대한 자존감이 낮다.
	3. 슬프거나 우울할 때가 많다.
	4. 목표가 없고 무기력하다.
	5.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많다.
	6. 중독(알코올, 약물, 마약류, 담배 등) 문제가 있다.
	7. 스마트폰 과의존(SNS, 게임, 사이버도박 등) 문제가 있다.
	8. 경계선 지능 수준으로 인지능력이 부족하다.
	9.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한다.
	10. 비행한 적이 있다.
가정 영역	1. 가족원간 폭력과 갈등이 심하다.
	2. 부모 중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쓰는 사람이 있다.
	3. 부모(보호자)는 자녀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4. 부모 중 사망했거나 떨어져 지내는 사람이 있다.
	5. 가족 중 알코올, 약물, 마약류, 게임, 도박 등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
	6. 가족 중 정신질환(우울, 불안, 환청 등)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
	7.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도래 및 학교 영역	1. 친한 친구 중 지속적으로 음주, 약물 및 마약류 흡입, 도박을 하는 친구가 있다.
	2. 친한 친구나 선배 중에 비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
	3. 친한 친구 중 조건만남(성매매)을 하는 친구가 있다.
	4.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없다.
	5.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선생님(또는 주변 어른)이 없다.
	6. 공부에 흥미가 없다.
	7. 장기적으로 혹은 자주 학교에 지각하거나 결석을 한다.
지역 사회 영역	1.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과 시설이 위험하다.
	2. 살고 있는 지역이 경제적으로 낙후하다.
	3. 살고 있는 지역에 범죄나 자살 등의 사건이 자주 일어난다.

※ 음영은 추가된 문항임

다. 서면자문 개요

현장전문가 FGI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위기스크리닝 척도 Part2에 새로운 위기영역을 추가하고, 고위험에 해당하는 준거를 마련하고자 전문가 서면자문을 실시하였다. 학계 및 현장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고위기 청소년 대상 상담사례가 풍부한 현장전문가 및 임상·학계전문가를 9명을 선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참여자 정보는 <표 19>과 같다.

<표 19> 전문가 서면자문 참여자 정보

대상자	성 별	직위	연령대	상담 및 임상 경력
임상전문가1	남	교수	40대	23년 11개월
임상전문가2	여	교수	40대	20년
임상전문가3	남	교수	50대	22년
학계전문가1	남	교수	40대	12년
학계전문가2	남	교수	50대	25년
현장전문가1	여	센터장	50대	25년
현장전문가2	남	센터장	40대	21년
현장전문가3	여	팀장	40대	17년 3개월
현장전문가4	여	팀장	40대	14년 4개월

서면자문은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에 따른 고위험군의 준거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각 영역의 구성은 <표 20>과 같다. 현장전문가 FGI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중독은 게임, SNS, 쇼핑 등의 세부영역을 추가하였으며, 학업중단은 학교중단으로 영역명을 변경하였다. 기존의 폭력에 해당하는 영역은 가해와 피해로 구분하였으며, 약물사용은 알코올과 약물로 구분하였다.

<표 20>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 구성

영역	비고
인터넷 중독 (게임, SNS, 쇼핑 등)	세부영역 추가
학교 중단	영역 명칭 변경
고립·은둔	신규 추가
폭력 가해 (사이버 포함)	세부영역 추가
폭력 피해 (사이버 포함)	세부영역 추가
가정 폭력	가정폭력 및 방임
학대	가정폭력 및 방임
성문제 가해	세부영역 추가
성문제 피해	세부영역 추가
가출	-

알코올 사용	세부영역 추가
약물 오·남용	세부영역 추가
정신건강	신규 추가
비자살적 자해	신규 추가
자살	-

라. 서면자문 결과

전문가들의 서면자문 내용을 취합하여 해당 영역에 대한 위험군 및 고위험군의 문제행동 차원별 준거를 정리한 결과는 <표 21>과 같다.

<표 21>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 준거설정 서면자문 결과

영역	문제행동차원	준거	
		위험군	고위험군
인터넷 중독, 스마트 폰, 게임 중독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학교에 가지 못한 날이 있다. -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타인과 심한 갈등을 경험했다. -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 인터넷, 스마트 폰 사용을 조절하지 못한다.	-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되지 않는다. -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가족과의 관계가 나빠지거나 학업에 어려움을 경험한다. - 인터넷, 스마트폰을 하지 못하게 하면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 -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보낸다.
학교 중단	학교중단 이후 미래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	- 학교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 과거 학교 중단의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학교를 다닌다. - 학교를 그만두지는 않았으나 학교생활에 의미가 없다. - 학교를 그만두었으나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다.	-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다. - 학교 중단 후 진로나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다. - 학교 중단 후 학교폭력, 학대, 외상 등의 어려움이 있다. - 학교 중단 외 다른 어려움이 있다.
고립· 은둔	현재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집안에서만 생활을 하고 있다.	-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는다. - 학교 이외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 학교 포함 외부에 나가는 일이 거의 없다. - 자신의 방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의 하지 않는다. - 가족, 친구들과의 대화 빈도가 예전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 밤과 낮이 바뀐 생활을 한다.	않는다. - 하루 종일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 방을 정리하지 않아 매우 지저분하다.
폭력 가해 (사이버 포함)	타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폭력을 가하고 있다. 사이버 상에서 타인에 대한 욕설, 사진 및 동영상 전송, 루머 유포 등을 하고 있다.	- 화를 참지 못해 친구와 싸움을 한 적이 있다. - 특정 대상 혹은 집단에 대해 자주 혐오감을 표현한다. - 싸움을 자주 하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싶은 충동이 종종 생긴다.	- 타인에게 피해를 줄 의도를 가지고 신체적, 관계적, 정서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따돌린 적이 있다. - 사이버상에서 친구나 후배 등 타인에게 폭력을 가한 적이 있다. -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괴롭힌 적이 있다. - 폭력으로 인해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폭력 피해 (사이버 포함)	타인으로부터 신체적 정서적 폭력을 당하고 있다. 사이버 상으로 욕설, 사진 및 동영상 전송, 루머 유포 등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	- 심한 건 아니지만 친구나 선·후배들이 하는 행위에 폭력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 친구나 선·후배와의 갈등으로 인해 협박을 받은 적이 있다. - 폭력이 해결이 되었지만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자꾸 생각이나 일상생활(학업, 친구관계 등)에 지장을 받고 있다.	- 현재 신체적, 관계적, 정서적 폭력 및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등의 피해를 입었다. - 사이버상에서 위협과 협박을 포함한 언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 폭력을 당한 뒤, 병원 치료 혹은 상담을 받았다.
가정폭 력 및 방임	가정에서 신체적, 정서적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 가정에서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화가 나면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다. - 가족 중에 폭력을 당할까 봐 두려운 사람이 있다.	- 가족 구성원에게 폭행, 감금, 억압 등의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 - 가족 구성원의 폭력으로 인해 병원 치료 및 입원을 한 적이 있다. - 가족 구성원에게 심한 언어폭력 등 정서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 -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가족구성원에게 갈취당하거나 돈을 벌어오라고 강요나 협박을 받은 경험이 있다.
	가정으로부터 방임을 당하고 있다.	- 가정에서 보호자로부터 돌봄을 제대로 못 받고 있	- 보호자로부터 방임(먹을

		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 가족 구성원에게 경제적 방임으로 학비 등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한 경험 이 있다.	것을 주지 않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을 당하고 있다.
성문제 가해	성폭행, 성추행, 성매매 등 성과 관련하여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싫다고 해도 사 권다면 성관계는 반드시 필 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음란물, 신체사진 등을 보 기 위해 불법사이트 접속하 여 자주 시청한다. - 성추행을 하려다 미수로 끝난 경험이 있다. - 의도치 않은 성희롱을 한 경험이 있다.	-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 폭행을 한 적이 있다. -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한 적이 있다. - 성폭력(추행 등)을 한 적 이 있다. - 성폭력(추행 등)으로 처분 을 받은 적이 있다.
성문제 피해	성폭력을 당했거나 위협받은 적이 있다.	- 성폭행, 성추행, 성매매 등과 관련하여 당할 뻔 한 경험이 있다. - 가족구성원 중 성관련(성 매매, 성폭행, 성추행 등) 문 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 - 타인에게 음란물, 신체사 진 등을 보내도록 요구받은 적이 있다. - 신체접촉에 대한 두려움 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잘 모른다.	- 타인에게 성폭행을 당하 거나 및 성매매를 강요당한 적이 있다. - 타인에게 성추행이나 성희 롱을 당한 적이 있다. - 타인의 성폭력으로 인해 병 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 타인에게 음란물, 신체사 진 등을 보내도록 강요받아 보낸 적이 있다.
가출	가출을 한 상태이거나 경험이 있다.	- 잠자리만 제공된다면 가 출하고 싶다. - 부모님과 의 갈등으로 당 장이라도 집을 떠나고 싶은 충동이 있다. - 주변 또래 중 가출 경험 이 있는 친구들을 자주 만 나는 편이다. - 가출 관련해서 검색을 하고 관련 카페에서 활동한다.	- 과거 가출을 한 적이 있거나 현재 가출한 상태이다. - 과거 가출 경험이 있고 가출이 크게 문제라고 느끼 지 않는다. - 집을 떠나 쉼터에서 생활 한 적이 있다. - 가출 팸 등에 소속되어 있다.
약물 오·남용	약물(마약 포함)을 투약한 경험이 있다.	- 술을 먹은 경험이 있거나 술에 대한 갈망이 크다. - 술을 같이 마시는 친구들 혹은 집단이 있다. -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을 마셔야지만 풀 수 있다고	- 술을 마셔본 적이 많으며 지금도 마실 기회가 많다. - 친구나 선후배를 만나면 거의 대부분 술을 마신다. - 술에 취해 법적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

		생각한다. - 술 마시다 기억을 상실한 경험이 있다.	- 술에 대한 의존현상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정신 건강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	- 약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는 중단한 상태이다. - 특정 약물에 대한 갈망이 크며 통제하려는 시도를 자주한다. - 주변에 약물을 하는 형제 및 친구들이 있다. - 환각제 등 약물에 대해 호기심이 생겨 찾아보거나 구입한 적이 있다.	- 현재 코카인, 암페타민, 헤로인, 모르핀, LSD, 엑스터시, 대마, 수면제 등의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 - 환각을 일으키는 약물을 끊었다가 다시 시작했던 경험이 있다. - 약물을 구입하는 방법이나 경로를 잘 알아서 구입한 적이 있다. - 내가 원하더라도 약물 사용을 중단할 수 없어서 병원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비자살 적 자해	지속적으로 자해를 하고 있다.	-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해하는 자해를 하고 싶은 충동이 든다. - 구체적인 자해시도를 계획하고 있다. - 친구나 SNS에서 자해 흉터를 봐도 별로 놀라지 않는다. - 자해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찾으며 상상을 자주하는 편이다.	- 자살 의도 없이, 칼이나 볼펜, 송곳 등을 사용하여 자신의 몸에 고의로 상처 낸 적이 있다. - 내가 원하더라도 자해를 중단할 수 없다. - 자해를 하면 편안해지고 기분전환이 된다. - 이전에 자해 경험이 있고 병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자살	자살에 대해 사고, 충동, 시도한 적이 있다.	- 가족 중에 자살을 한 사람이 있다. - 지금도 자살에 대한 충동이 크다. - 다른 사람에게 자살하고 싶다고 말을 많이 한다. - 자살 사이트를 방문하여 관련 정보를 찾아 본 적이 있다.	-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 자살 시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 자살을 위한 구체적 도구를 준비한 적이 있다. - 지금의 괴로움을 멈추기 위해 자살을 선택해야 할 것 같다.

<표 21>에서의 정리한 서면자문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은 회의를 통해 Part2(위기 및 문제 행동 영역)의 준거설정 초안을 <표 22>와 같이 작성하였다.

<표 22>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 준거설정 초안

영역	문제행동차원	준거	
		위험군	고위험군
인터넷 중독, 스마트 폰, 게임 중독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1.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을 매일 3시간 이상 한다. 2. 학교나 학원 과제 를 제때 하지 못하 는 경우가 주 2회 이상이다. - 준거 1과 2를 모 두 만족해야 함	1.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을 매일 4시간 이상 한다. 2. 최근 한 달 동안 학교나 학원 숙제를 제때 완료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3. 보호자와 갈등을 경험 하고 있다. - 준거 1을 반드시 충족해 야 하고, 준거 2나 3 중 어 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학교 중단	학교중단 이후 미래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	학교중단 3개월 이 후에도 진로에 대한 계획이 없다.	학교중단 3개월 이후에도 진로에 대한 계획이 없다.
고립·은 둔	현재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집안에서만 생활을 하고 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외출하지 않는 상태 가 1개월 이상 지속 되고 있다.	3개월 이상 외출을 하지 않 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학교나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대인관계가 중단되었다.	타인과의 관계를 피 하고 혼자 있으려고 하는 생활이 1개월 이 지났다.	가족을 제외한 타인과 만 나거나 연락하지 않은지 3개월이 지났다.
폭력 가해 (사이버 포함)	타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폭력을 가하고 있다.	최근 6개월 내 타인 을 폭력적으로 위협 한 적 있다.	최근 6개월간 타인을 물 리적으로 폭행을 가한 적 이 있다.
	사이버상에서 타인에 대한 욕설, 사진 및 동영상 전송, 루머 유포 등을 하고 있다.	최근 6개월 내 사 진, 동영상 전송, 소 문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한 적 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타인 의 명예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 또 는 거짓 소문을 퍼뜨린 적 있다.
폭력	타인으로부터 신체적 정서적	최근 6개월 동안 폭	현재에도 폭력 피해를

피해 (사이버 포함)	폭력을 당하고 있다.	력 피해를 경험한 적 있다.	경험하고 있다.
	사이버 상으로 욕설, 사진 및 동영상 전송, 루머 유포 등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		과거 폭력 피해로 정신적 외상을 겪고 있다. 현재에도 사이버 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가정폭력 및 방임	가정에서 신체적, 정서적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6개월 동안 가족 내 신체적, 정서적 폭력이 일어난 적 있다.	현재 가족 내 신체적, 정서적 폭력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 과거 발생했던 가족 내 신체, 정서적 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외상을 경험하고 있다.
	가정으로부터 방임을 당하고 있다.	보호자가 알코올 혹은 도박 중독 등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보호자가 자녀 돌봄에 관심이 없다.	1. 밥을 제때 먹지 한다. 2.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다. 3. 계절에 적절한 옷을 입지 못한다. 4. 개인위생(두발, 체취, 손발톱 길이 및 때 등)이 좋지 않다. 5. 학교에 자주 결석, 지각을 하고 있다. - 위험군 준거+고위험 준거 중 2개 이상을 만족하면, 고위험 군
성문제 가해	성폭행, 성추행, 성매매 등 성과 관련하여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다.	특정 대상에게 성희롱, 음담패설 등 성적 불쾌감을 주었다.	특정 대상에게 신체적으로 성적인 가해를 시도한 적이 있다.
			성매매, 조건만남을 하거나 알선한 적이 있다. 온라인, 핸드폰 등 통해 특정 대상에 대한 성적 언사를 하거나 노출 사진 등을 배포한 적 있다.

성문제 피해	성폭력을 당했거나 위협받은 적이 있다.	1년 이내에 성폭력을 당하거나 위협받은 적이 있다.	성폭력 피해로 인해 정신적 외상 또는 기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년 이내에 성매매, 조건만남을 한 적이 있다.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성적 연사와 노출 사진 배포 위협 등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입은 적 있다.	
가출	가출을 한 상태이거나 경험이 있다.	현재 가출상태이며, 과거 가출한 경험 없다.	현재 가출한 상태이며, 과거 가출을 한 경험이 2회 이상이다.
약물 오·남용	약물(마약 포함)을 투약한 경험이 있다.	이전에는 마약을 흡입하였으나, 지난 3개월 내에는 그런 적 없다.	현재 마약류를 사용하고 있다.
정신 건강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	과거 정신과 약을 먹거나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현재 정신과에서 진단을 받고, 현재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비자 살적 자해	지속적으로 자해를 하고 있다.	1. 최근 3개월 내에는 자해를 시도한 적 없다. 2. 다양한 자해 방법에 대한 정보를 찾거나 자해하는 상상을 자주 한다. - 준거 1과 2를 모두 만족해야 함	지난 3개월 동안 1회 이상 자해행동을 하였다.
자살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최근 1년 동안 자살 생각을 한 적이 2회 이상 있다.	최근 1년 이내에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도 삶의 의지가 없다.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최근 1년 동안 자살 충동을 느낀 적 있다.	

3. 청소년 위기스크리닝 척도 세부 준거결정을 위한 합의적 자문회의 운영

가. 자문회의 운영 개요

서면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위기스크리닝 척도 초안의 준거를 결정하기 위해 합의적 자문회의를 운영하였다. 현장 전문가 및 대학교수 12명이 대면 자문회의 참여에 지원하였으며, 유사한 특성의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을 묶은 뒤 참여자의 상담 및 연구 분야에 따라 담당 영역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참여자 정보는 <표 23>과 같다.

<표 23> 합의적 자문회의 참여자 정보

담당 영역	참여자	성별	직위	연령대	상담 및 연구 경력	위기청소년 상담 사례 수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게임 중독, 약물오남용	학계전문가1	남	교수	40대	12년 3개월	약 30사례
	학계전문가2	남	교수	40대	15년	약 100사례
	임상전문가1	여	센터장	50대	25년	약 1000사례
학교중단, 고립은둔, 가출	학계전문가3	여	교수	50대	18년	약 100사례
	현장전문가1	남	팀장	40대	18년 4개월	약 160사례
	현장전문가2	남	팀원	40대	13년	약 90사례
폭력가해·피해, 성폭력가해·피해, 가정폭력 및 방임	학계전문가4	여	교수	40대	20년	약 100사례
	현장전문가3	남	팀장	40대	15년 8개월	약 150사례
	현장전문가4	여	상담원	30대	5년 11개월	약 100사례
정신건강, 비자살적 자해, 자살	학계전문가5	남	교수	50대	30년	약 50사례
	현장전문가5	여	센터장	50대	18년 9개월	약 100사례
	현장전문가6	여	부장	40대	14년 4개월	약 100사례

합의적 자문회의 참여자들은 사전에 위기스크리닝 척도 초안을 이메일로 공유 받아 내용을 검토한 후 회의에 참여하였다. 각 영역별 자문회의 소요시간은 약 60분이었으며, 자문회의 실시 전 참여자 전원에게 녹음 동의를 구하여 전체 과정을 녹음하였다. 연구진 중 상담 전공 교육학 박사 2인이 주로 회의를 진행하였고 교육학 박사 1인과 상담심리학 석사 1인이 진행을 보조하였다. 자문 참여자들은 척도 초안의 문제행동차원, 위험군 및 고위험군 준거의 내용에서 용어의 오류는 없는지, 청소년의 위기 상황을 잘 반영하는지, 위기 지속기간

및 판단의 근거는 적절한지, 해당 준거를 바탕으로 상담자가 면담할 때 문제는 없을지 등에 대해 자문하였다. 자문 내용은 축어록으로 전사한 후 위기 영역별로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중 교육학 박사 1인의 최종 감수 및 연구진 전체 회의를 통해 문제행동차원과 위험군·고위험군 준거를 확정하였다.

<표 24>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 최종 구성

영역	비고
스마트폰 과의존(게임, SNS, 쇼핑 등)	영역 명칭 수정
학교 중단	영역 명칭 수정
고립·은둔	신규 추가
폭력 가해 (사이버 포함)	세부영역 추가
폭력 피해 (사이버 포함)	세부영역 추가
가정 폭력	-
방임	영역 명칭 수정
성폭력 가해(사이버 포함)	세부영역 추가
성폭력 피해(사이버 포함)	세부영역 추가
성문제	-
가출	-
약물사용	유해약물 오·남용 통합
유해약물 오·남용	영역 명칭 수정
정신건강	신규 추가
비자살적 자해	신규 추가
자살	-

나. 자문회의에 따른 준거설정

자문회의 내용을 취합하여 각 영역에 대한 고위험 및 위험의 문제행동차원별 준거를 수정하였다.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게임 중독 영역은 스마트폰 사용이 인터넷·게임 이용을 포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명칭을 수정하였다. 고립·은둔 영역은 핵심을 잘 반영하기 위해 기존 2가지 준거를 하나로 합쳐 기술하였다. 성문제 가

해·피해 영역은 온라인 성범죄가 다수 발생하는 최근 실정에 따라 폭력 가해·피해 영역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포함’이라는 표현을 추가하였다. 성문제 영역의 경우 기존의 위기스크리닝 척도 준거대로 유지하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추가하였고,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였다. 약물 오·남용 영역은 ‘유해 약물 오·남용’으로 명칭을 구체화하였고 마약 투약 횟수에 따라 위험 정도를 판단하도록 내용을 수정하였다. 비자살적 자해 영역도 자해 횟수에 따라 판단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고 준거 2(자해 방법에 관한 정보를 찾거나 자해하는 상상을 자주 한다)는 삭제하여 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살 영역에서 자살 충동은 고위험군에 가깝다는 의견에 따라 자살 생각은 위험군, 자살 충동 및 자살 계획이 있는 경우는 고위험군으로 판단하도록 준거를 수정하였다. 그리고 자살 생각, 충동 및 계획의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기간을 수정하였다. 정신건강 영역의 경우 약물치료를 중단하거나 거부한 내담자의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정신과 진단 및 치료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게끔 내용을 수정하였다. 회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작성된 시범운영용 예비문항을 <표 25>에 제시하였다.

<표 25>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 준거설정 최종안

영역	문제행동차원	준거	
		위험군	고위험군
스마트폰 과의존 (인터넷, SNS, 게임, 도박 등)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 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고, 사용하면 안되는 상황에도 종 종 사용한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일상 생활에서 심각한 어려움 을 경험하고 있다.
학교 중단	학교중단 이후 미래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	학교중단 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 지났으며, 자신의 미 래 준비에 관심이 없다.	학교중단 후 6개월 이 상 지났으며, 자신의 미 래 준비에 관심이 없다.
고립·은둔	현재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집안에서만 생활 하고 있다.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타인과 대면접촉을 피하고 방 안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타인과 대면접촉을 피하 고 방 안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
폭력 가해 (사이버 포함)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타인에게 신체적·정서적 폭력을 가하고 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타인을 위협한 적이 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타 인에게 폭력(사이버폭력 포 함)을 가한 적이 있다.

폭력 피해 (사이버 포함)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타인에게 신체적·정서적 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폭력의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폭력(사이버폭력 포함)의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
가정 폭력	가정에서 신체적, 정서적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폭언을 듣는 일이 1회 발생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폭언을 듣는 일이 2번 이상 발생했다.
방임	가정으로부터 방임을 당하고 있다.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방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방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성폭력 가해(사이버 포함)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타인에게 성폭력 가해를 하고 있다.	-	특정 대상에게 성적인 폭력(사이버 성폭력 포함)을 가한 적이 있다. 타인에게 성매매, 조건만남을 강요한 적이 있다.
성폭력 피해(사이버 포함)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타인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다.	-	특정 대상에게 성적인 폭력(사이버 성폭력 포함)을 당한 적이 있다. 성매매, 조건만남을 한 적이 있거나 타인으로부터 강요받은 적이 있다.
성문제	임신 등 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	오픈채팅방 등에서 성적인 대화를 지속하는 대상이 있다. (여)임신을 한 상태이거나 임신을 한 경험이 있다. (남)여자친구가 임신을 한 상태이거나 임신을 한 경험이 있다.
가출	가출을 한 상태이거나 경험이 있다.	현재 가출상태이며, 최근 1년 이내에 현재의 가출 외 다른 가출 경험은 없다.	현재 가출한 상태이며, 최근 1년 이내 현재의 가출을 포함하여 가출한 경험이 2회 이상이다.
유해약물 오·남용	약물(마약 포함)을 투약한 경험이 있다.	최근 1년 이내에 유해약물(마약류, 흡입제 등)을 1~2회 투약한 적이 있다.	최근 1년 이내에 유해약물(마약류, 흡입제 등)을 3회 이상 투약하고 있다.
정신건강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	최근 6개월 이내 정신과 약을 먹거나	최근 6개월 이내 정신과에서 장애로 진단 받은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적이 있다.
비자살적 자해	지속적으로 자해를 하고 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자해행동을 1~2회 한 적이 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자해 행동을 3회 이상 하였다.
자살	자살에 대해서 생각, 충동, 계획 등 시도한 적이 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자살 생각이 2번 이상 들었다.	최근 6개월 이내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최근 6개월 이내 자살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4. 청소년 위기스크리닝 척도 개정 시범운영

가. 시범운영 개요

개정예비 위기스크리닝 문항에 대한 타당도와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계획하였다. 전국 240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안내하였고, 226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시범운영에 참여하였다. 시범운영은 9월 11일부터 10월 4일까지 약 4주간 실시되었다. 해당 센터는 청소년 신규사례 접수면접 시 위기스크리닝 기존문항과 개정예비문항 2부를 상담자가 평정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243개의 사례를 제출하였다.

한편, 시범운영을 실시하기에 앞서 ‘청소년 위기스크리닝 척도 활용가이드’를 작성하여, 해당 센터에 배포하였다. 각 센터의 사례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위기스크리닝 척도 활용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교육내용으로는 위기스크리닝 척도의 활용방법과 평정지침 대한 안내, Part1(위험요인 영역)과 Part2(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 각 문항 해설 등이었다. 위기스크리닝 척도 활용교육에는 163개 센터, 226명의 상담자가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참여하지 못한 담당자에겐 별도의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추후 진행할 시범운영에 대해 안내하였다.

나. 시범운영 결과

1) Part1(위험요인 영역) 응답결과 분석

가) 문항별 응답분석

현행 위기스크리닝 척도 Part1은 개인영역(7문항), 가정영역(8문항), 또래 및 학교영역(7문항), 지역사회영역(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개정예비 위기스크리닝 척도의 Part1은 개인영역(10문항), 가정영역(7문항), 또래 및 학교영역(7문항), 지역사회(3문항)로 구성하였다. 특히 개인영역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문항을 분리하였으며, 공격성, 비행 문항을 추가하였다. 가정영역에서는 부모의 별거(이혼), 형 집행 등을 삭제하였다. 그 이유는 단순히 청소년 부모의 부재만으로 청소년의 위험요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적인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또래 및 학교영역에서는 또래관계 및 대인관계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였으며, 지역사회영역에서는 지역사회의 환경에 따른 위험요인을 제시하였다. Part1의 각 문항과 응답빈도 및 백분율은 <표 26>과 <표 27>에 제시하였다.

<표 26> 현행 위기스크리닝 척도 Part1(위험요인 영역) 문항별 응답분석(N=243)

영역	문항	응답빈도 (명)	백분율 (%)
개 인 영 역	1.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존감이 낮다.	120	49.4
	2.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존감이 낮다.	153	63.0
	3. 우울해하거나 목표의식이 없다.	147	60.5
	4.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많다.	168	69.1
	5. 중독(알코올, 약물, 인터넷, 스마트폰, 도박 등)문제가 있다.	67	27.6
	6. 인지력, 이해력, 어휘력, 대인관계 등에 어려움이 있다 (경계선 지능 수준).	32	13.2
	7. 성적 관심(예, 음란물 등)이 과도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	6	2.5
가 정 영 역	1. 가족원간의 폭력과 갈등이 심하다.	73	30.0
	2.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별거 혹은 이혼했다.	70	28.8
	3. 가출을 했거나 비행 문제가 있는 형제가 있다.	10	4.1
	4. 부모 중 형 집행을 선고받은 적 있다.	2	0.8
	5. 부모에게 중독(알코올, 약물, 인터넷, 도박 등) 문제가 있다.	21	8.6
	6. 부모에게 정신질환(우울, 불안, 환청 등) 문제가 있다.	37	15.2

또래 및 학교 영역	7.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채무, 빈곤, 실직)가 있다.	39	16.0
	8. 가족이 이웃, 친족과 왕래가 없다.	24	9.9
	1. 지속적으로 술, 약물흡입(본드, 부탄가스, 락카 등), 도박을 하는 친구가 있다.	29	11.9
	2. 친한 친구나 선배 중에 폭력 서클에 소속된 친구가 있다.	13	5.3
	3. 친한 친구 중에 조건 만남(성매매)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	5	2.1
	4. 친구가 없이 따돌림 당하고 있다.	36	14.8
	5. 학교 선생님과 사이가 좋지 않다.	47	19.3
	6. 공부에 흥미가 없고 성적이 매우 낮다.	117	48.1
	7.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적으로 혹은 자주 학교에 결석한다.	49	20.2
	1. 주거환경이 비위생적이고 위험하다.	10	4.1
지역 사회 영역	2. 지역사회가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17	7.0
	3. 이웃이나 지역사회에 욕설이나 폭행 사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10	4.1

<표 27> 개정예비 위기스크리닝 척도 Part1(위험요인 영역) 문항별 응답분석(N=243)

영역	문항	응답빈도 (명)	백분율 (%)
개인 영역	1. 외모에 대한 자존감이 낮다.	117	48.2
	2. 능력에 대한 자존감이 낮다.	151	62.1
	3. 슬프거나 우울할 때가 많다.	156	64.2
	4. 목표가 없고 무기력하다.	144	59.3
	5.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많다.	169	69.6
	6. 중독(알코올, 약물, 마약류, 담배 등) 문제가 있다.	29	11.9
	7. 스마트폰 과의존(SNS, 게임, 사이버도박 등) 문제가 있다.	79	32.5
	8. 경계선 지능 수준으로 인지능력이 부족하다.	21	8.6
	9.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한다.	59	24.3
	10. 비행한 적이 있다.	63	25.9

가정 영역	1. 가족원간 폭력과 갈등이 심하다.	64	26.3
	2. 부모 중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쓰는 사람이 있다.	56	23.1
	3. 부모(보호자)는 자녀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26	10.7
	4. 부모 중 사망했거나 떨어져 지내는 사람이 있다.	74	30.5
	5. 가족 중 알코올, 약물, 마약류, 게임, 도박 등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	20	8.2
	6. 가족 중 정신질환(우울, 불안, 환청 등)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	41	16.9
	7.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50	20.6
또래 및 학교 영역	1. 친한 친구 중 지속적으로 음주, 약물 및 마약류 흡입, 도박을 하는 친구가 있다.	34	14.0
	2. 친한 친구나 선배 중에 비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	36	14.8
	3. 친한 친구 중 조건만남(성매매)을 하는 친구가 있다.	5	2.1
	4.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없다.	62	25.5
	5.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선생님(또는 주변 어른)이 없다.	69	28.4
	6. 공부에 흥미가 없다.	133	54.7
	7. 장기적으로 혹은 자주 학교에 지각하거나 결석을 한다.	54	22.2
지역 사회 영역	1.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과 시설이 위험하다.	13	5.4
	2. 살고 있는 지역이 경제적으로 낙후하다.	21	8.6
	3. 살고 있는 지역에 범죄나 자살 등의 사건이 자주 일어난다.	5	2.1

※ 음영은 추가된 문항임

나) Part1 평정결과 분석

Part1은 영역별 문항에 대한 점수 합계를 통해 잠재군 및 일반군, 위험군, 고위험군을 평정한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243개의 사례에 대한 현행척도, 개정예비척도의 점수합계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28>에 제시하였다.

<표 28> Part1 위험요인 영역별 문항에 대한 점수합계의 기술통계(N=243)

구분	평균(표준편차)	100점 변환	최소값	최대값
현행 (25문항)	5.35(3.15)	21.40	0	15
개정예비 (27문항)	7.21(3.97)	26.70	0	19

현행 위기스크리닝 척도 Part1의 경우 위험요인에 대한 문항별 점수합계가 0~4점인 경우 잠재군 및 일반군, 5점~9점인 경우 위험군, 10점 이상인 경우 고위험군으로 평정한다. 시범운영을 실시한 243명의 사례에 대한 현행 위기스크리닝 Part1 평정결과는 <표 29>에 제시하였다.

<표 29> 현행 Part1 평정결과(N=243)

구분	평정결과	인원(명)	비율(%)	평균	표준편차
현행 (25문항)	잠재군 및 일반군 (0~4점)	102	42.0	2.48	1.39
	위험군 (5~9점)	116	47.7	6.59	1.38
	고위험군 (10점~25점)	25	10.3	11.36	1.55

개정예비 위기스크리닝 척도의 잠재군 및 일반군, 위험군, 고위험군으로 평정할 준거를 설정하기 위해 3가지 방법으로 각각 평정하여 결과를 <표 30>으로 제시하였다. 방법1은 ‘평균±1SD(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사용하여 0~4점인 경우 잠재군 및 일반군, 5점~11점인 경우 위험군, 12점 이상인 경우 고위험군으로 평정하는 방법이다. 방법2는 ‘평균, 평균+1SD(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사용하여 0~6점인 경우 잠재군 및 일반군, 7점~11점인 경우 위험군, 12점 이상인 경우 고위험군으로 평정하는 방법이다. 방법3은 방법1과 방법2의 결과를 이용하여 적절한 비율을 보인 값을 기준으로 사용하여 0~5점인 경우 잠재군 및 일반군, 6점~11점인 경우 위험군, 12점 이상인 경우 고위험군으로 평정하는 방법이다.

<표 30> 개정예비 Part1 평정결과 예측(N=243)

구분	평정결과	인원(명)	비율(%)	평균	표준편차
방법1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잠재군 및 일반군 (0~4점)	63	25.9	2.43	1.23
	위험군 (5~11점)	147	60.5	7.73	2.01
	고위험군 (12점~27점)	33	13.6	13.97	3.97
	잠재군 및 일반군 (0~6점)	113	46.5	3.79	1.81
방법2 (평균, 평균+표준편차)	위험군 (7~11점)	97	39.9	8.89	1.44
	고위험군 (12점~27점)	33	13.6	13.97	3.97
	잠재군 및 일반군 (0~5점)	88	36.2	3.16	1.56
방법3 (비율에 따라 조정)	위험군 (6~11점)	122	50.2	8.30	1.74
	고위험군 (12점~27점)	33	13.6	13.97	3.97
	잠재군 및 일반군 (0~5점)	88	36.2	3.16	1.56

2) Part2(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 응답 결과분석

가) 문항별 응답분석

현행 Part2는 9개 영역(인터넷 중독, 학업중단,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문제, 가출, 약물사용, 자살),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가지 질문이라도 ‘예’에 응답할 경우 고위험군으로 평정된다. 연구진 회의를 통해 개정예비 Part2에는 고립·은둔, 정신건강, 비자살적 자해 등 새로운 위기영역을 추가하고, 학교중단으로 영역명을 변경하였다. 또한 일반군과 고위험군만 구분하는 현행 Part2와 달리 일반군과 위험군, 고위험군을 구분할 수 있게 하였다. 최종적으로 개정예비 위기스크리닝 척도 Part2 문항은 총 15개 영역, 3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문항내용과 시범운영의 응답결과는 <표 31>과 <표 32>에 제시하였다.

<표 31> 현행 위기스크리닝 척도 Part2(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 문항별 응답분석(N=243)

영역	문항	응답 빈도 (명)	백분율 (%)
인터넷 중독	게임,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예, 학업, 대인관계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57	23.5
학업 중단	학교를 그만 두었고 학업을 계속 할 계획이 없는 상태이다.	22	9.1
학교 폭력	친구 또는 선후배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	6	2.5
	친구 또는 선후배에게 폭행을 가하고 있다.	14	5.8
	같은 반 친구들에게 심하게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20	8.2
가정 폭력	같은 반 친구를 심하게 따돌리거나 괴롭히고 있다.	10	4.1
	같이 사는 가족 구성원 중 내담자에게 자주 심한 욕설이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 있다.	38	15.6
	가족 구성원 중에 내담자가 자주 심한 욕설이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 있다.	10	4.1
아동 학대	가정에서 보호자로부터 방임(먹을 것을 주지 않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을 당하고 있다.	3	1.2
	가정에서 보호자가 내담자의 형제를 심하게 때리거나 방임(먹을 것을 주지 않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한다.	1	0.4

성문 제	성폭력(강간, 성추행)을 당하거나 한 적이 있다.	18	7.4
	조건 만남(성매매)을 한 적이 있다.	1	0.4
가출	남 : 여자 친구가 임신한 상태이거나 임신을 한 경험이 있다.	1	0.4
	여 : 임신을 한 상태이거나 임신을 한 경험이 있다.		
약물 사용	현재 가출한 상태이다.	2	0.8
자살	최근 3개월 이내에 환각제나 가스, 본드, 락카와 같은 약물을 사 용한 적이 있다.	0	0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	51	21.0

<표 32> 개정예비 위기스크리닝 척도 Part2(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 문항별 응답분석(N=243)

영역			문항	응답 빈도 (명)	백분 율 (%)
스마 트폰 과의존 (SNS, 게임, 사이버 도박 등)	위험군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고, 사용하면 안되는 상 황에도 종종 사용한다.		79	32.5
	고위험군	스마트폰 사용으로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14	5.8
학교 중단	위험군	학교중단 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지났으며, 자신의 미래 준비에 관심이 없다.		7	2.9
	고위험군	학교중단 후 6개월 이상이 지났으며, 자신의 미래 준비에 관심이 없다.		7	2.9
고립· 은둔	위험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타인과 대면접촉을 피하고 방 안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		8	3.3
	고위험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타인과 대면접촉을 피하고 방안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		3	1.2
폭력 가해 (사이버 포함)	위험군	최근 6개월 이내에 타인을 위협한 적이 있다.		29	11.9
	고위험군	최근 6개월 이내에 타인에게 폭력(사이버폭력 포함)을 가한 적이 있다.		27	11.1
폭력 피해 (사이버 포함)	위험군	최근 6개월 이내에 폭력의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		19	7.8
	고위험군	최근 6개월 이내에 폭력(사이버폭력 포함)의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		16	6.6
가정 폭력	위험군	최근 6개월 이내에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폭언을 듣는 일이 1회 발생했다.		45	18.5
	고위험군	최근 6개월 이내에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폭언을 듣는 일이 2번 이상 발생했다.		29	11.9

방임	위험군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방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1	0.4
	고위험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방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2	0.8
성폭력 가해 (사이버 포함)	고위험군	특정 대상에게 성적인 폭력(사이버 성폭력 포함)을 가한 적이 있다.	8	3.3
	고위험군	타인에게 성매매, 조건만남을 강요한 적이 있다.	0	0
성폭력 피해 (사이버 포함)	고위험군	특정 대상에게 성적인 폭력(사이버 성폭력 포함)을 당한 적이 있다.	14	5.8
	고위험군	성매매, 조건만남을 한 적이 있거나 타인으로부터 강요받은 적이 있다.	2	0.8
성문제	고위험군	오픈채팅방 등에서 성적인 대화를 지속하는 대상이 있다.	3	1.2
	고위험군	(여)임신을 한 상태이거나 임신을 한 경험이 있다. (남)여자친구가 임신을 한 상태이거나 임신을 한 경험이 있다.	1	0.4
가출	위험군	현재 가출상태이며, 최근 1년 이내에 현재의 가출 외 다른 가출 경험은 없다.	1	0.4
	고위험군	현재 가출한 상태이며, 최근 1년 이내 현재의 가출을 포함하여 가출한 경험이 2회 이상이다.	2	0.8
유해 약물 오·남용	위험군	최근 1년 이내에 유해약물(마약류, 흡입제 등)을 1~2회 투약한 적이 있다.	1	0.4
	고위험군	최근 1년 이내에 유해약물(마약류, 흡입제 등)을 3회 이상 투약하고 있다.	0	0
정신 건강	위험군	최근 6개월 이내 정신과 약을 먹거나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60	24.7
	고위험군	최근 6개월 이내 정신과에서 장애로 진단 받은 적이 있다.	27	11.1
비자살 적 자해	위험군	최근 3개월 이내에 자해행동을 1~2회 한 적이 있다.	40	16.5
	고위험군	최근 3개월 이내에 자해행동을 3회 이상 하였다.	25	10.3
자살	위험군	최근 6개월 이내에 자살 생각이 2번 이상 들었다.	63	25.9
	고위험군	최근 6개월 이내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최근 6개월 이내 자살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41 17	16.9 7.0

나) Part2 평정결과 분석(N=243)

시범운영에 참여한 243개의 사례에 대한 평정결과는 <표 33>에 제시하였다. 현행 위기스 크리닝 척도 Part2를 통한 평정결과 잠재군 및 일반군(37.9%)과 고위험군(62.1%)으로 구분되었다. 이에 반해 개정예비 위기스 크리닝 척도 Part2를 통한 평정결과 잠재군 및 일반군(21.8%), 위험군(26.7%), 고위험군(51.4%)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개정예비 척도를 통해 새로운 위기영역의 위험군과 고위험군으로 드러나고, 기존에 고위험군으로 평정된 청소년이 위험군과 고위험군으로 세부적으로 나뉜 결과라 볼 수 있다.

<표 33> Part2 평정결과(N=243)

구분	평정결과	인원(명)	비율(%)
현행	잠재군 및 일반군	92	37.9
	고위험군	151	62.1
개정예비	잠재군 및 일반군	53	21.8
	위험군	65	26.7
	고위험군	125	51.4

3) 개정예비 Part1(위험요인 영역) 평정준거 설정

개정예비 Part1의 잠재군 및 일반군, 위험군, 고위험군의 평정준거를 설정하기 위해 Part2의 평정결과와 비교하여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치율을 구하여 비교하였다. 세부적인 결과는 <표 34>에 제시하였으며 분석결과 방법1(평균-1SD, 평균+1SD)로 평정할 경우 Part1의 평정결과와 Part2의 평정결과의 일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방법1(평균-1SD, 평균+1SD)을 최종 준거로 선택하였다.

<표 34> 개정예비 Part1 평정결과 예측(N=243)

구분	Part1 평정결과	인원 (명)	Part2 평정결과			일치율% (명)
			구분	인원(명)	비율(%)	
방법1 (평균-1표준편차, 평균+1표준편차)	잠재군 및 일반군 (0~4점)	63	잠재군 및 일반군	25	39.7	37.0% (90명)
	위험군 (5~11점)	147	위험군	22	34.9	
	고위험군 (12점~27점)	33	고위험군	16	25.4	
			잠재군 및 일반군	27	18.4	
			위험군	38	25.9	
			고위험군	82	55.8	
			잠재군 및 일반군	1	3.3	
			위험군	5	15.1	
			고위험군	27	81.8	
방법2 (평균, 평균+1표준편차)	잠재군 및 일반군 (0~6점)	113	잠재군 및 일반군	37	32.7	35.8% (87명)
	위험군 (7~11점)	97	위험군	37	32.7	
	고위험군 (12점~27점)	33	고위험군	39	34.6	
			잠재군 및 일반군	15	15.5	
			위험군	23	23.7	
			고위험군	59	60.8	
			잠재군 및 일반군	1	3.3	
			위험군	5	15.1	
			고위험군	27	81.8	

방법3 (비율에 따라 조정)	잠재군 및 일반군 (0~5점)	88	잠재군 및 일반군	30	34.1	35.4% (86명)
			위험군	31	35.2	
			고위험군	27	30.7	
	위험군 (6~11점)	122	잠재군 및 일반군	22	18.0	
			위험군	29	18.9	
			고위험군	71	58.2	
	고위험군 (12점~27점)	33	잠재군 및 일반군	1	3.3	
			위험군	5	15.1	
			고위험군	27	81.8	

4) 시범운영 위기스크리닝 종합평정 결과

현행 위기스크리닝의 종합평정 결과와 개정예비 위기스크리닝의 종합평정 결과는 <표 35>에 제시하였다. 위기스크리닝의 종합평정은 Part1(위험요인 영역)과 Part2(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로 각각을 구분하여 산출한 뒤, 두 가지 영역의 결과 중 청소년의 위기수준이 높은 결과를 채택하게 된다. 개정예비 위기스크리닝 척도로 평정한 결과 위험군은 약 23% 증가하였으며, 잠재군 및 일반군은 약 14% 감소하였으며, 고위험군은 약 9%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표 35> 위기스크리닝 종합평정 결과(N=243)

구분	평정결과	인원(명)	비율(%)
현행	잠재군 및 일반군	59	24.3
	위험군	32	13.2
	고위험군	152	62.6
개정예비	잠재군 및 일반군	25	10.3
	위험군	87	35.8
	고위험군	131	53.9

5) 상담자의 개정예비 척도에 대한 평가

시범운영에 참여하여 위기스크리닝을 실시한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개정예비 척도에 대한 평가를 물어 응답을 분석하였다. “예비문항의 구성이 위기청소년을 선별하는데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측정하였으며, “예비문항의 내용이 위기청소년을 선별하는데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을 통해 내용적 합도를 측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위기스크리닝 척도 활용가이드가 위기스크리닝 척도 활용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을 통해 가이드효과성을 측정하였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세부적인 응답결과는 <표 36>에 제시하였다. 전반적

으로 4.14점 이상(100점 환산 82.8점)으로 우수한 평가가 도출되었다.

<표 36> 상담자의 개정예비 척도에 대한 평가 결과

구성타당도 평균 (표준편차)	내용적합도 평균 (표준편차)	가이드효과성 평균 (표준편차)
4.15(0.65)	4.18(0.66)	4.14(0.68)

6) 위기스크리닝 척도 개정에 대한 상담자의 의견

마지막으로 시범운영에 참여한 위기스크리닝을 실시한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개정예비 문항에 대한 의견과 활용가이드에 추가할 내용을 주관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표 37>에 제시하였다.

<표 37> 청소년 위기스크리닝 척도 개정에 대한 상담자의 의견

구분	의견
개정 예비 문항 에 대한 의견	- 기존 위기스크리닝 척도에 비하여 조금 더 세분화된 질문으로 면밀하게 위기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내담자의 정보를 훨씬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음 - 위기 영역에 대한 구성이 훨씬 범위가 넓고 구체적이라서 내담자에 대한 평가에 유리함 - 자신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 답을 하는데 아리송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음 - 성관련부분 내용이 조금 더 세분화되었으면 좋겠음 - 개정된 위기스크린이 이해도와 집중력이 높아 사용하기가 용이하다 - 흡연, 자해문항을 넣은 것은 적절하다 판단됨 - 중학생 이상 청소년들에게는 문항이 매우 자세히 적용되고 적절하게 세분화되었지만 초등 아동의 경우 이전과 다른 점이 거의 없고 좀 더 세분화되는 것이 필요해 보임(우울·불안, 학교에서의 폭력적 행위, ADHD산만함으로 인한 반복적 지적·성인지감수성 부족 등) - 일정기간 내에 횟수의 정도(1회 차이)에 따라 위험군과 고위험군으로 나누는 것이 위기청소년을 변별하는 것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의문. 또한 1회만 하더라도 위험군이 되기 때문에 일반청소년도 고위기로 쉽게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음. - 개인영역에서 우울과 목표를 분리한 것은 효과적임 -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좀 더 쉬운 표현들이 필요함 - 가정폭력, 성폭력 등 나머지 폭력 영역은 나뉘어져 있는데, 학교 폭력 영역은 구분하지 않고 폭력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합쳐진 이유가 궁금함 - 자살 문항에서 2번 이상 들었다와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사이에 큰 차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음 - 내담자의 보고 내용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주관적 경험이 바탕일 때 내담자의

-
- 보고에 따르면 되는지요? (ex.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하루 10시간 이상일 때, 내담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상담사가 보기에는 일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시간소모가 되어 하루에 끝내는 것은 힘들고 이틀정도 소요가 될 것 같음.
 - 비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음.
 - 작성자의 기준에 따라 심각하다고 볼 수도 있고 다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음. 전체적으로 객관적(산술적)인 기준이 명확하다면 좋을 것 같음.
 - 성폭력 가해: 언어를 사용한 성희롱이 불특정다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체크하는 부분이 부족함. 특정인이 아닌 다수가 있는 곳에서도 음란성 언어를 사용하여 수치심을 느끼는 대상이 있을 수 있으니 문항 추가하거나 고려해 주시기 바람
 - 현행 위기스크리닝 척도보다 문항 내용이 더 답하고 자세해서 라포가 형성되기 전 문항과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됨.
 - 스마트폰 과의존 및 폭력(사이버 포함)과 관련하여 오픈채팅이나 만남어플 등과 관련한 세목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함.
 - 가정영역 중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세목이 나뉘었으면 좋겠음.
 - 문항에 구체적인 기간 횟수 등 숫자 제시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정답을 고르기가 무서웠음.
 - 비행과 중독의 경계가 애매해 중복된 항목이 여럿 보임.
 - Part 2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도박관련 영역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필요해 보임.
 - 고립은둔, 정신건강, 비자살적 자해라는 새로운 문제 유형이 제시되어 문제유형이 구체화되어 좋은 것 같음.
 - 가정영역에서 4번 부모중 사망, 떨어져 지낸다는 것의 의미가 사별, 이혼 외에도 기러기 가족도 있는데 장기간 가족이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위기가 아닐까 생각됨.
 - 비자살적 자해 문항과 관련하여 내담자의 자해가 확인되었으나 처음 만난 시점에서 점검하다보니 구체적인 자해 시점 및 자해 횟수 등에 대해서 보고를 거부함. 이 경우 구체적인 횟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문항에 체크하기 어려웠음. 횟수와 함께 위험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추가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됨.
 - <Part 1> 가정영역에서 1번 '가족원간 폭력과 갈등이 심하다.' 문항에서 가족원간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가족 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대화 없음, 무시, 방임)을 함께 점검하다보니 위험의 가중정도를 면밀히 변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음. 또한 '가족원간 폭력과 갈등이 심하다'라고 2가지의 영역이 한 문항에 포함되어 있어 명확한 영역을 점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됨.
 - 개정 문항 Part 2에 위험군, 고위험군 구분은 개정확정시 삭제가 되는건지, 추후에도 문항자체에 위험군, 고위험군 구분이 되어 있는지 궁금함
 - 개인영역 '4번'목표가 없고 무기력하다'는 이중 질문에 해당되어 목표가 없지만 무기력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미응답으로 답하는 경향을 보였음.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면담 내용이 필요해 보임.
 - 평정을 위해 초기면담에서 문항과 관련된 부분을 질문했을 때 청소년이 방어적인 태도로 답변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음. 본인이 평정한 청소년의 경우, 1-2회기에 걸쳐 실시하였고, 의뢰 시 전달 된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하여 확인 된 내용을 기록함.
 - 정신건강 고위험군 질문에서 '최근 6개월 이내 정신과에서 장애로 진단 받은 적이 있다' 는 문항 보다는 '정신과에서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내담자가 인지하고 있는 외모 능력 등 자존감에 대해 자평을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평가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 또한 초기, 중기, 후기 스크리닝 결과에 차이가 있을 것 같음.
 - 지각 결석뿐 만 아니라, Wee클래스에만 있다가 조퇴하는 친구들이 많으니 조퇴
-

-
- 의 영역도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니, 부모라는 말 보다는 주 양육자라는 호칭이 적절해 보임.
 - 가정영역1. 가족원간 폭력과 갈등이 심하다 ->과거 폭력과 폭언은 있었으나 현재는 폭력은 없고 갈등만 있음. => 가족원간 폭력 또는 갈등이 심하다
 - '정신건강-고위험군'에서 6개월 전에 장애진단 받고 지금까지 약을 먹고 있다면 어떻게 체크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 '자신의 미래 준비에 관심이 없다'보다는 '자신의 미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 표현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part2 성폭력피해 문항에서 성추행 단어도 추가하면 좋겠다는 의견임.
 - "경계선 지능 수준으로 인지능력이 부족한지"에 대한 것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판정하는 쪽으로 보이며 초기면접을 통하여 판정하는 위기스크리닝 척도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임.
 - 자존감이 낮다, 슬프거나 우울하다와 관련한 문항에서 반대의 경우도 위기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함께 고려되면 좋을 것 같음. 자아상이 너무 비대하거나, 과하게 즐거운 척 하는 내담자 중에서도 위기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음.
 - 문항이 매우 많아서 모두 확인한다고 하면 내담자 입장에서는 취조 받는 기분이 들까봐 우려됨. 의뢰 경로 및 호소 문제에 따라서 다른 세트를 사용하거나, 반복되거나 위기 상황과 상관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문항을 줄여도 좋을 것 같음.
 - 내담자 중에서 커뮤니티나 익명 채팅방에서 자살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거나 자해를 인증하는 경우가 있음. 굉장히 위험한 경우인 것 같았는데, 이처럼 최근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위험 사례도 포함되면 더 좋을 것 같음.
 - 가정영역 4번의 경우 누구랑 함께 생활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개정 전이 유용함
 - part1. 위험요인 영역 중 가정영역 3번 (부모는 자녀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이 모호하게 느껴졌음. 심리적으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데, 실질적(식사, 의복 등)으로, 또는 경제적으로는 신경 쓰는(?) 경우가 있음.
 - 지역사회영역에 해당되는 문항들은 여전히 판단하기에 모호함. 내담자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 지자체 전체인지, 거주지 인근 지역인지 또는 위험이나 낙후 수준에 대해서도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해서도 활용가이드 등을 통해 평정 기준을 알 수 있으면 좋겠음.
 - 문항에서 핵심어는 따옴표 처리 등 명확히 구분하여 가독성 높이는 게 적절해 보임 (가령 자살생각 자살충동 자살계획)
 - 파트2에서 위험군과 고위험군을 둘 다 작성하는 부분이 헛갈림.
 - 저학년(연령) 청소년에게 본드 흡입, 성매매 등의 언급이 부정적, 자극적 영향을 주게 될 것을 우려하여 연령을 나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다시 통합하는 것이 우려됨.
 - [part1] 위험요인 영역에서 개인영역 7번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질문과 [part2]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을 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문항이 중복되는 부분임.
 - 학업중단 영역에서 학업을 중단할 계획이 있는 상태, 즉 아직 자퇴를 하지는 않았으나 숙려제 기간을 거치고 있는 청소년을 체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음.
 - 학교를 다니는 여부와 상관없이 '또래 및 학교영역'을 '또래 및 사회영역' 등으로, '장기적으로 혹은 자주 학교에 지각하거나 결석을 한다'를 '장기적으로 혹은 자주 학원(기관 등)에 지각하거나 결석을 한다' 등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음.
-
- 문항별 예시 질문이나 질문 요령들을 풍부하게 제시하여 처음 사용하는 사람도 부담감이 적으면 좋겠음.
-

활용
가이드
에
대한
의견

- 초등생과 가정·부모태도·환경적 문제(이혼·양육자·과도한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불안 등의 문제가 최근에는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드러나고 있음)에 대한 상세한 스크리닝이 있으면 좋겠음.
- 활용가이드를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해서 수시로 볼 수 있게 하면 좋을 듯함.
- 성폭력부분이 조금 세분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듦.
-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기 보다는 핵심 요지에 대해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음.
- 추후 상담이 진행됨에 따라 새로이 알게 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좋겠음.
- 정신증 관련 내담자가 내소하였을 때의 활용가이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음.
- 경계선지능 문항은 내담자 만남초기에 알기 어려울 수도 있음.
- 위기스크리닝 part 2에 평정 요소 및 목적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
- 중독(행위가 초점인지 매체가 초점인지) 명확한 제시 필요함.
- 비자살적 자해·자살 등 관련 문항은 상담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에 안전망 시스템 변경 가능성 여부에 따라 개정의 여부 판단이 필요함
- '오픈채팅방 등에서 성적인 대화를 지속하는 대상이 있다' 등 성적인 내용 중에서도 내담자가 위법이라고 명확하게 인지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확인이 어렵다고 느껴졌음. 질문 예시가 더 보완이 되면 사용하기가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 중독 문제(알코올, 약물, 도박 등)의 경우 상담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초기의 빠른 스크리닝과 약물치료 등 연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활용가이드에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어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다.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한 위기스크리닝 문항 확정

시범운영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간 회의를 통해 최종 위기스크리닝 척도 개정문항을 확정하여 <표 38>과 <표 39>에 제시하였다. 또한 위기스크리닝 평정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문항별 예시문항을 추가하여 활용가이드를 수정·보완하였다.

<표 38> 위기스크리닝 척도 Part1 최종 문항

영역	문항	예	아니오	미확인
개인 영역	1. 외모에 대한 자존감이 낮다.			
	2. 능력에 대한 자존감이 낮다.			
	3. 슬프거나 우울할 때가 많다.			
	4. 목표가 없고 무기력하다.			
	5.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많다.			
	6. 중독(알코올, 약물, 마약류, 담배 등) 문제가 있다.			
	7. 스마트폰 과의존(SNS, 게임, 사이버도박 등) 문제가 있다.			
	8. 경계선 지능 수준으로 인지능력이 부족하다.			
	9.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한다.			
	10. 비행한 적이 있다.			

가정 영역	1. 가족원간 폭력 또는 갈등이 심하다.			
	2. 부모(보호자) 중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쓰는 사람이 있다.			
	3. 부모(보호자)는 자녀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4. 부모 중 사망했거나 떨어져 지내는 사람이 있다.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 ()			
	5. 가족 중 알코올, 약물, 마약류, 게임, 도박 등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			
	6. 가족 중 정신질환(우울, 불안, 환청 등)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			
	7.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또래 및 학업 영역	1. 친한 친구 중 지속적으로 음주, 약물 및 마약류 흡입, 도박을 하는 친구가 있다.			
	2. 친한 친구나 선배 중에 비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			
	3. 친한 친구 중 조건만남(성매매)을 하는 친구가 있다.			
	4.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없다.			
	5.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선생님(또는 주변 어른)이 없다.			
	6. 공부에 흥미가 없다.			
	7. 장기적으로 혹은 자주 학교에 지각·조퇴를 하거나 결석을 한다.			
지역 사회 영역	1.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과 시설이 위험하다.			
	2. 살고 있는 지역이 경제적으로 낙후하다.			
	3. 살고 있는 지역에 범죄나 자살 등의 사건이 자주 일어난다.			

<표 39> 위기스크리닝 척도 Part2 최종 문항

영역	문항	예	아니오	미확인
스마트폰 과의존 (SNS, 게임, 사이버도박 등)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고, 사용하면 안되는 상황에도 종종 사용한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학교 중단	학교중단 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지났으며, 자신의 미래 준비에 관심이 없다.			
	학교중단 후 6개월 이상이 지났으며, 자신의 미래 준비에 관심이 없다.			
고립·은둔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타인과 대면접촉을 피하고 방 안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타인과 대면접촉을 피하고 방 안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			
폭력 가해 (사이버 포함)	최근 6개월 이내에 타인을 위협한 적이 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타인에게 폭력(사이버폭력 포함)을 가한 적이 있다.			
폭력 피해 (사이버 포함)	최근 6개월 이내에 폭력의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폭력(사이버폭력 포함)의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			

가정폭력	최근 6개월 이내에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폭언을 듣는 일이 1회 발생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폭언을 듣는 일이 2번 이상 발생했다.			
방임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방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방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성폭력 가해 (사이버 포함)	특정 대상에게 성적인 폭력(사이버 성폭력 포함)을 가한 적이 있다.			
	타인에게 성매매, 조건만남을 강요한 적이 있다.			
성폭력 피해 (사이버 포함)	특정 대상에게 성적인 폭력(사이버 성폭력 포함)을 당한 적이 있다.			
	성매매, 조건만남을 한 적이 있거나 타인으로부터 강요받은 적이 있다.			
성문제	오픈채팅방 등에서 성적인 대화를 지속하는 대상이 있다.			
	(여)임신을 한 상태이거나 임신을 한 경험이 있다. (남)여자친구가 임신을 한 상태이거나 임신을 한 경험이 있다.			
가출	현재 가출상태이며, 최근 1년 이내에 현재의 가출 외 다른 가출 경험은 없다.			
	현재 가출한 상태이며, 최근 1년 이내 현재의 가출을 포함하여 가출한 경험이 2회 이상이다.			
유해 약물 오·남용	최근 1년 이내에 유해약물(마약류, 흡입제 등)을 1~2회 투약한 적이 있다.			
	최근 1년 이내에 유해약물(마약류, 흡입제 등)을 3회 이상 투약하고 있다.			
정신건강	최근 6개월 이내 정신과 약을 먹거나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최근 6개월 이내 정신과에서 진단 받았으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			
비자살적 자해	최근 3개월 이내에 자해행동을 1~2회 한 적이 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자해행동을 3회 이상 하였다.			
자살	최근 6개월 이내에 자살 생각이 2번 이상 들었다.			
	최근 6개월 이내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최근 6개월 이내 자살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V. 논의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상담복지기관에서 위기 청소년의 발굴 및 연계 개입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청소년안전망(구, CYS-Net) 위기스크리닝 척도와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위기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선별하고 개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 및 국외의 위기 스크리닝 척도 관련 문헌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현장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여 기존 척도의 활용 시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위기스크리닝 척도의 구체적인 개정의 방향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위기청소년을 선별하기 위한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2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함께 학계 및 현장 전문가 9명을 선정하여 서면자문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위기스크리닝 척도 Part1(위험요인)과 Part2(위기 및 문제 행동) 영역에서 기존 척도의 문항을 수정하고 새로운 문항을 추가하여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 위기스크리닝 Part1은 278명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존 척도 문항의 적합도와 중요도를 측정하여, 위험요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수정 및 추가하여 청소년 위기스크리닝 척도 예비문항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청소년 위기스크리닝 척도 Part2는 위기 유형별 세부 준거 결정을 위해 현장 및 학계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합의적 자문회의를 운영하였다. 세부 준거 결정을 위한 합의적 자문회의에서는 위기 청소년 유형별 전문가 3인이 한 팀을 구성하여, 위기 유형별 문항 초안에 제시된 위험군과 고위험군의 준거에 대해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한편, 226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대상으로 개정예비 위기스크리닝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예비문항의 구성타당도는 5점 만점에 4.15점, 내용적합도는 4.18점, 활용가이드 효과성은 4.14점을 나타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간 회의를 통해 최종 위기스크리닝 척도를 확정하고, 위기스크리닝 활용가이드에 상담자의 평정지침과 문항별 예시문항을 수정·보완하였고, 주요 의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Q&A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정한 위기스크리닝 척도는 기존의 위기스크리닝 척도에서 나타난 한계를

다음과 같이 보완하였다. 첫째, 기존의 위기스크리닝 척도는 청소년의 연령(초등학교 5학년 이상과 4학년 이하) 구분되는 두 가지의 버전이 있었으나, 상담자가 관찰, 면담 등을 통해 측정 가능하므로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에 개정한 위기스크리닝 척도는 하나의 버전으로 통합하였다. 둘째, 기존의 청소년 위기스크리닝 척도 Part1에서는 사회적 낙인이나 편견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예, 부모 중 형 집행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과 현실과 맞지 않는 표현(예, 가족이 이웃, 친족과 왕래가 없다)은 상담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었다. 이에 개정한 청소년 위기스크리닝 척도에서는 부적절한 문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이러한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기존의 청소년 위기스크리닝 척도 Part2는 하나의 문항이라도 상담자가 ‘예’라고 체크할 경우, 청소년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최종결과에서도 고위험군으로 과잉 선별되는 경향성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한 청소년 위기스크리닝 척도 Part2는 청소년 위기의 준거를 행동차원(빈도, 강도, 지속시간) 등을 고려하여 각각 준거를 설정하여 일반군, 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넷째, 기존의 청소년 위기스크리닝 척도 Part2만으로는 최근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고립·은둔, 비자살적 자해, 정신건강, 사이버 폭력 등의 위기 유형을 선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개정한 청소년 위기스크리닝 척도에서는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의 새로운 위기 유형을 추가하였다. 다섯째, 기존의 청소년 위기스크리닝 활용 가이드에서는 위기 행동의 원인을 탐색할 수 있는 질문이 부재하였다. 이에 개정된 청소년 위기스크리닝 활용 가이드에서는 위기 영역별 공통질문과 함께 각 문항별 위기 행동의 원인을 깊이 있는 탐색할 수 있는 예시질문을 수록하였다. 또한 상담자가 위기스크리닝 척도의 평정에 있어서 주관적 개입이 최소화되도록 구조화된 지침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2. 의의 및 제언

청소년 위기스크리닝 척도 및 활용 가이드 개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최근 새로운 유형의 위기 청소년이 증가하고, 저연령화되는 시점에서 청소년 상담자가 위기 청소년의 유형별 특성, 준거, 필요서비스, 연계기관 정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기 청소년 선별과 개입에 필요한 내용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척도의 개발과정은 과학적인 절차를 충실히 따라 진행하였다. 우선 현장 전문가

의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통해 기존 척도의 개정 필요성과 구체적인 영역을 설정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해 위기스크리닝 척도 Part1 문항의 적합성과 중요성을 측정한 후 수정하였다. 또한 위기스크리닝 척도 Part2 문항은 학계 및 현장전문가가 합의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준거 설정 과정을 거쳐 위험군과 고위험군으로 나누어 각각 문항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226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 후 타당성을 검증하고 청소년상담자가 활용하기 편리한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존의 위기스크리닝 척도보다 광범위한 위기청소년(고립·은둔, 비자살적 자해, 정신건강 등)의 선별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최근 새롭게 부각 되는 다양한 위기 청소년의 유형을 상담자가 선별하는데 정확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척도는 청소년상담자가 평정하는 방식으로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있다. 이에 위기스크리닝 척도 활용 가이드에서는 위기 영역별 공통질문과 함께 각 문항별 위기 행동의 원인을 깊이 있는 탐색할 수 있는 예시질문을 수록하여 상담자가 위기스크리닝 척도를 사용하는데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 하는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고립·은둔, 비자살적 자해, 정신건강, 사이버 폭력 등의 위기 유형이 선별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 그러나 모든 위기청소년을 선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위기 청소년 유형을 선별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한다면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의 자문과 평가를 거치고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위기 청소년의 선별에 목적을 둔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표준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위기 청소년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척도가 유용하다. 추후 연구에서 상담자가 위기 청소년을 평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척도를 개발한다면,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구본용, 금명자, 김동일, 김동민, 남상인, 안현의, 주영아, 한동우 (2005). **위기(가능)청소년 지원모델 개발연구**. 청소년위원회.
- 교육부 (2022).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 매뉴얼**. 서울: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교육부 (2023). **마음<EASY>선별검사 활용 매뉴얼**. 서울: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김동민, 김동일, 안지영, 금창민, 김민지 (2016).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가이드라인 연구**. 여성가족부.
- 김보영, 이정숙 (2009). 청소년 자살생각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9(5), 651-661.
- 김춘경, 이수연, 이윤주, 정종진, 최웅용 (2016). **상담학사전**. 서울: 학지사.
- 보건복지부 (2022). **2022 자살예방백서**.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3). **2023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배주미, 김동민, 정슬기, 강태훈, 박현진 (2010). **2010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부산: 한국청소년상담원.
- 서미, 이동혁, 김경희, 유준호, 김지혜 (2018). **표준화된 위기청소년 평가·진단 도구 개발**.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여성가족부 (2022).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3). **2023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여성가족부.
- 오승환 (2010). 청소년 가출에 대한 생태체계적 영향 요인-가출충동과 가출경험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2(4), 301-324.
- 윤철경 (2005). 한국의 위기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정책과제. **2005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69-97. 청소년위원회 · OECD.
- 윤철경, 이해연, 서정아, 윤경원, 김영한, 백혜정, 이봉주, 양미진 (2005). **위기청소년 지원 시설과 지원정책 현황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서울: 청소년위

원회, 한국청소년개발원.

윤철경, 조흥식, 김향초, 이규미, 우정자 (2006).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실태와 발전 방안**.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이준기, 강근모 (2015).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내현화 변인과 외현화 변인에 대한 메타 분석. **청소년상담연구**, 23(1), 247-271.

전영천 (2010). 청소년의 음주행동 및 흡연행동의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미래사회복지연구**, 1(1), 89-109.

정묘순, 서수균 (2014). 청소년 자살시도 예측변인: 자살위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5(2), 145-171.

지승희, 양미진, 이자영, 김태성 (2006).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진혜민, 배성우 (2012). 청소년비행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4(2), 193-221.

한국교육평가학회 (2004). **교육평가 용어사전**. 서울: 학지사.

허윤석, 안동현, 최준호, 강지윤, 김윤영, 오경자 (2003). 아동용 문제 행동 선별검사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42(6), 724-735.

황순길, 김동민, 강태훈, 손재환, 김화연, 김지혜 (2016). **2016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황여정, 이정민 (2020).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여정, 이정민, 김수혜 (2020).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예비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혜정, 강성빈, 윤명희 (2001). 초등학생용 문제행동 진단검사의 개발 연구. **초등교육연구**, 14(3), 369-389.

Adams, C. D., Perkins, K. C., Lumley, V., Hughes, C., Burns, J. J., & Omar, H. A. (2003). Validation of the Perkins Adolescent Risk Screen (PAR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3(6), 462-470.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National

- Council on Measurement in Education (1999). *Standards for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testing*.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Angoff, W. H. (1971). Scales, norms, and equivalent scores. In Thorndike, R. L. (Ed), *Educational measurement* (2nd ed., pp. 508-600). Washington, DC: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 Asarnow, J. R., Berk, M., Hughes, J. L., & Anderson, N. L. (2015). The SAFETY program: A treatment-development trial of a cognitive-behavioral family treatment for adolescent suicide attempters.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44*(1), 194-203.
- Berk, R. A. (1986). A consumer's guide to setting performance standards on criterion-referenced test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6*(1), 137-172.
- Boyle, M. H., & Jones, S. C. (1985). Selecting measures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of childhood for use in general population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6*(1), 137-159.
- Burt, M. R., Resnick, G., & Mathesone, N. (1992). *Comprehensive Service Integration Programs for at-Risk Youth. Final Report*.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 Cizek, G. J. (1996). Standard setting guidelines. *Educational Measurement: Issues and Practice*, *15*(1), 13-21
- Gullone, E., Moore, S., Moss, S., & Boyd, C. (2000). The adolescent risk-taking questionnair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5*(2), 231-250.
- Hambleton, R. K. (2001). Setting performance standards on educational assessments and criteria for evaluating the process. In G. J. Cizek (Ed.), *Setting performance standards: Concepts, methods, and perspectives* (p. 89-16).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Hambleton, R. K., Jaeger, R. M., Plake, B. S., & Mils, C. (2000). Setting performance standards on complex educational assessments.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24*(2), 35-36.
- Hambleton, R. K., & Pitoniak, M. J. (2006). Setting performance standards. In R. L.

- Brennan(Ed), *Educational Measurement* (4th ed., pp. 433-470). Westport, CT: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and Praeger.
- Jaeger, R. M. (1989). Certification of student competence. In R. L. Lin (Ed.), *Educational Measurement (3rd ed., 485-514)*. NY: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and Macmillan.
- Kane, M. T. (1994). Validating the performance standards associated with passing score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4(3), 425-261.
- Lescano, C. M., Hadley, W. S., Beausoleil, N. I., Brown, L. K., D' eramo, D., & Zimskind, A. (2007). A brief screening measure of adolescent risk behavior.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37, 325-336.
- Lissitz, R. W., & Huynh, H. (2003). Vertical equating for state assessments: Issues and solutions in determination of adequate yearly progress and school accountability. *Practical Assessment, Research & Evaluation*, 8(1). 1-6.
- McWhiter, J. J., McWhiter, B. T., McWhiter, E. H., & McWhiter, R. J. (2007). *At-Risk Youth : A comprehensive Response*, Brooks/cole.
- Mils., C. N., & Melican, G. J. (1988). Estimating and adjusting cutof scores: Features of selected methods. *Applied Measurement in Education*, 1(3), 261-275.
- OECD (2007). Education policies for students at risk and those with disabilities in South Eastern Europe. EDU/EDPC(2007)21.
- <http://www.oecd.org/education/school/38613229.pdf> 에서 2020.04.11.인출.
- Rudd, M. D., Joiner, T. E., & Rajab, M. H. (2001). *Treating suicidal behavior: An effective, time-limited approach*. Guilford Press.

[부록 1 : AMPQ-III 검사지]

2 학생용 검사지(중등학교용)

청소년 정서·행동특성검사지(AMPQ-III)					
학생	이름				
	학교	()학교	학년	()학년	
	반	()반	번호	()번	
	연령	만()세	성별	☐ 남 ☐ 여	
다음은 청소년 여러분의 성격 및 정서·행동을 묻는 설문입니다. 이 검사에는 옳거나 그른 답이 없으므로 자신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다음 각 문항을 읽고, 최근 자신의 모습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곳에 O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아니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난 3개월간 나는...	1.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이다.	0	1	2	3
	2. 기발한 생각이 자주 떠오른다.	0	1	2	3
	3. 한 번 하겠다고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한다.	0	1	2	3
	4.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선다.	0	1	2	3
	5. 어떤 일을 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행동한다.	0	1	2	3
	6.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말을 듣는다.	0	1	2	3
	7. 해야 할 일에 끝까지 집중한다.	0	1	2	3
	8. 우리 반이 좋다.	0	1	2	3
	9.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0	1	2	3
	10. 신중히 생각한 후에 말하고 행동한다.	0	1	2	3
	11. 소중한 존재다.	0	1	2	3
	12.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을 좋아한다.	0	1	2	3
	13.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는다.	0	1	2	3
	14. 지금의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0	1	2	3
	15.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0	1	2	3
	16. 친구들과의 모임을 잘 만든다.	0	1	2	3
	17. 어떤 일을 할 때 미리 계획을 세운다.	0	1	2	3
	18. 친구들과 어떤 일을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한다.	0	1	2	3
	19. 우리 반에는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있다.	0	1	2	3
	20. 친구들 사이에서 리더 역할을 한다.	0	1	2	3

문항		전혀 아니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난 3개월간 나는...	21. 친구들의 감정과 기분에 공감을 잘한다.	0	1	2	3
	22.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알아차린다.	0	1	2	3
	23. 학교행사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0	1	2	3
	24. 호기심이 많고, 탐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0	1	2	3
	25. 이유 없이 기분이 며칠간 들쭉날쭉한 적이 있다.	0	1	2	3
	26. 특별한 이유 없이 여기저기 자주 아프다. (예: 두통, 복통, 구토, 메스꺼움, 어지러움 등).	0	1	2	3
지난 한 달간 나는...	27. 다른 아이로부터 따돌림이나 무시를 당한 적이 있어 힘들다.	0	1	2	3
지난 3개월간 나는...	28.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예: 부모와의 갈등, 학교생활에 지장 등)	0	1	2	3
	29. 이유 없이 감정기복이 심하다.	0	1	2	3
	30.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거나 손발을 계속 움직인다.	0	1	2	3
	31. 단시간에 폭식을 하고 토한 적이 있다.	0	1	2	3
	32. 모든 것이 귀찮고 재미가 없다.	0	1	2	3
	33. 수업시간, 공부, 오랜 책임기 등에 잘 집중하지 못한다.	0	1	2	3
	34. 심각한 규칙 위반을 하게 된다. (예: 무단결석, 약물사용, 가출, 유흥업소 출입 등)	0	1	2	3
	35. 괜한 걱정을 미리 한다.	0	1	2	3
	36. 긴장을 많이 해서 일을 망친다.	0	1	2	3
	37. 참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서 힘들다.	0	1	2	3
	38. 원치 않는 생각이나 장면이 자주 떠올라 괴롭다.	0	1	2	3
	39. 남들이 듣지 못하는 말이나 소리가 들린 적이 있다.	0	1	2	3
	40.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0	1	2	3
지금 나는...	41. 이전에 겪었던 힘든 일들(사건-사고, 가까운 사람과의 이별 또는 사망 등)을 잊지 못하여 힘들다.	0	1	2	3
	42. 이 검사에 나는 솔직하게 답변하고 있지 않다	0	1	2	3
지난 3개월간 나는...	43. 사람들과 있을 때 긴장을 많이 한다.	0	1	2	3
	44. 기다리지 못하고 생각보다 행동이 앞선다.	0	1	2	3
	45. 남들이 내 생각을 다 알고 있는 것 같다.	0	1	2	3

문항		전혀 아니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난 3개월간 나는...	46. 특정 행동을 반복하게 되어 힘들다. (예: 손 씻기, 확인하기, 숫자 세기 등)	0	1	2	3
	47. 지해를 한 적이 있다.	0	1	2	3
	48. 어른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짜증이 난다.	0	1	2	3
지금 나는...	49. 이 검사에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0	1	2	3
지난 3개월간 나는...	50. 화를 참지 못해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	0	1	2	3
지난 한 달간 나는...	51. 다른 아이로부터 놀림이나 괴롭힘(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신체적 폭력)을 당하여 힘들다.	0	1	2	3
지난 3개월간 나는...	52. 남들이 나에게 대해 수군거리는 것 같다.	0	1	2	3
	53.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0	1	2	3
	54. 이유 없이 우울하거나 짜증이 난다.	0	1	2	3
	55.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지시에 반항적이거나 대든다.	0	1	2	3
	56. 남들이 나를 감시하거나 해칠 것 같다.	0	1	2	3
	57. 구체적으로 자살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0	1	2	3
	58. 전반적으로 신체적 건강은 좋은 편이다.	☐ 예		☐ 아니오	
	59. 전반적으로 정서적 건강은 좋은 편이다.	☐ 예		☐ 아니오	
지금까지 나는...	60. 한 번이라도 심각하게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 예		☐ 아니오	
	61.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본 경험이 있다.	☐ 예		☐ 아니오	
지금 나는...	62. 이 검사에 있는 그대로 성실해 응답하고 있다.	0	1	2	3
	63. 본 설문 결과에 따라 전문 상담 등의 지원을 받아볼 의향이 있다.	☐ 예		☐ 아니오	

3 교사용 검사도구(중등학교용)

학생	이름				
	학교	()학교	학년	()학년	
	반	()반	번호	()번	
	연령	만()세	성별	☐ 남 ☐ 여	
작성자 (직급)					

이 설문은 선생님께서 답변하는 문항입니다. 다음 각 문항을 읽고, 최근 1개월 간 해당 학생 모습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곳에 O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아니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화를 참지 못하고 쉽게 흥분한다.	0	1	2	3
2. 다른 아이를 괴롭히고 피해를 준다.	0	1	2	3
3. 친구 없이 혼자 다니는 것 같다.	0	1	2	3
4. 심각한 규칙 위반(무단결석, 무단조퇴, 상습흡연 등)을 한다.	0	1	2	3
5. 말이나 행동을 신뢰하기 어렵다.	0	1	2	3
6. 다른 아이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다.	0	1	2	3
7. 자살이나 자해의 위험성이 있다.	0	1	2	3
8. 고집이 세서 지시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0	1	2	3
9. 우울해 보인다.	0	1	2	3

[부록 2: CPSQ-Ⅱ 검사지]

2 학생용 검사지(초등학교용)

아동 정서·행동특성검사지(CPSQ-Ⅱ)					
학생	이름				
	학교	()학교	학년	()학년	
	반	()반	번호	()번	
	연령	만()세	성별	☐ 남 ☐ 여	
작성자	*설문에 응답한 학생과의 관계를 표시해 주세요. ☐ 부 ☐ 모 ☐ 조부 ☐ 조모 ☐ 기타				
I	다음은 초등학교생 학부모 또는 주양육자 여러분께 자녀의 성격 및 정서 행동 특성을 묻는 설문입니다. 이 검사에는 옳거나 그른 답이 없으므로 자신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다음 각 문항을 읽고, 최근 자녀의 모습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곳에 O표 해 주십시오.				
지난 3개월간 우리 아이는...					
문항		전혀 아니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스스로를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0	1	2	3
2. 친구들과 세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노력한다.		0	1	2	3
3. 기발한 생각을 자주 떠올린다.		0	1	2	3
4.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는다.		0	1	2	3
5. 한 번 하겠다고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한다.		0	1	2	3
6.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선다.		0	1	2	3
7. 어떤 일을 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행동한다.		0	1	2	3
8.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말을 듣는다.		0	1	2	3
9. 해야 할 일에 끝까지 집중한다.		0	1	2	3
10. 자신이 속한 학급을 좋아한다.		0	1	2	3
11.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0	1	2	3
12. 신중히 생각한 뒤에 말하고 행동한다.		0	1	2	3
13. 스스로를 소중한 존재라고 느낀다.		0	1	2	3
14.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을 좋아한다.		0	1	2	3
15. 지금의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0	1	2	3
16.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0	1	2	3
17. 어떤 일을 할 때 미리 계획을 세운다.		0	1	2	3
18. 친구들과 어떤 일을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한다.		0	1	2	3
19. 자기 밖에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있다.		0	1	2	3
20. 친구들 사이에서 리더 역할을 한다.		0	1	2	3

지난 3개월간 우리 아이는...				
문항	전혀 아니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친구들의 감정과 기분에 공감을 잘한다.	0	1	2	3
22.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알아차린다.	0	1	2	3
23. 학교행사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0	1	2	3
24. 호기심이 많고, 탐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0	1	2	3
25. 울거나 짜증내는 경우가 많다.	0	1	2	3
26. 어른(부모, 교사 등)에게 반항적이거나 대돈다.	0	1	2	3
27. 토레보다 농담, 비유, 속담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글자 그대로 받아들인다.	0	1	2	3
28. 집을 나서거나 부모(주 양육자)와 떨어지는 것을 매우 불안해한다.	0	1	2	3
29. 이전에 겪었던 힘든 일들(사건·사고, 가까운 사람과의 이별 또는 사망 등)을 일지 못하고 힘들어 한다.	0	1	2	3
30. 매사에 의욕이 없고 피곤해 보인다.	0	1	2	3
31. 예민하고 신경질적이다.	0	1	2	3
32. 뚜렷한 이유 없이 여기저기 자주 아파한다. (예: 두통, 복통, 구토, 메스꺼움, 어지러움 등)	0	1	2	3
33. 토레에 비해 읽기, 쓰기, 셈하기를 잘하지 못한다.	0	1	2	3
34. 자신만의 관심 분야에 지나치게 몰두한다.	0	1	2	3
35. 수업시간, 공부, 오랜 책읽기 등에 잘 집중하지 못한다.	0	1	2	3
36. 거짓말을 자주 한다.	0	1	2	3
37.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거나 손발을 계속 움직인다.	0	1	2	3
38.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예: 부모와의 갈등, 학교생활에 지장 등)	0	1	2	3
지난 한 달간 우리 아이는...				
39. 다른 아이로부터 따돌림이나 무시를 당하여 힘들어 한다.	0	1	2	3
지난 3개월간 우리 아이는...				
40. 특정 행동을 반복하며 힘들어한다. (예: 손 씻기, 확인하기, 숫자세기 등)	0	1	2	3
41. 눈 맞춤이나 얼굴 표정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0	1	2	3
42. 적응력이나 대처 능력이 토레에 비해 부족하다.	0	1	2	3
43. 국어능력과 계산능력이 토레에 비해 우수하다.	0	1	2	3
44. 기다리지 못하고 생각보다 행동이 앞선다.	0	1	2	3
45. 원치 않는 생각이나 장면이 자주 떠오르며 괴로워한다.	0	1	2	3

지난 3개월간 우리 아이는...					
문	항	전혀 아니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46.	아유 없이 갑작스럽게 눈 깜빡임, 쿵쿵거림, 어깨 으쓱거림 등을 반복한다.	0	1	2	3
47.	다른 아이들과 자주 다둔다. (예: 말싸움 혹은 주먹 다툼)	0	1	2	3
48.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쉽게 상처받는다.	0	1	2	3
49.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0	1	2	3
50.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배려하길 어려워한다.	0	1	2	3
51.	자신감이 부족하다.	0	1	2	3
52.	친구를 사귀거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0	1	2	3
53.	상황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말이나 질문을 한다.	0	1	2	3
54.	사소한 일에도 불안해하거나 겁을 낸다.	0	1	2	3
55.	흥분해서 부모에게 말대꾸를 하거나 과격하게 반항한다.	0	1	2	3
지난 한 달간 우리 아이는...					
56.	다른 아이로부터 놀림이나 괴롭힘(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신체적 폭력)을 당하여 힘들어 한다.	0	1	2	3
지난 3개월간 우리 아이는...					
57.	전반적으로 신체적 건강은 좋은 편이다.	☐ 예		☐ 아니오	
58.	전반적으로 정서적 건강은 좋은 편이다.	☐ 예		☐ 아니오	
II	다음은 아이와 관련된 것이 아닌 학부모 또는 주 양육자이신 자신과 관련된 설문 조사입니다. 다음 각 문항을 읽고, 최근 부모님(주 양육자)의 모습에 가장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곳에 O표 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아니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난 3개월간 학부모인 나는...					
59.	아이한테 욕하거나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된다.	0	1	2	3
60.	아이를 양육할 때 스트레스가 많다.	0	1	2	3
61.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자주 매를 듣게 된다.	0	1	2	3
62.	내 아이의 행동으로 인해 화가 난다.	0	1	2	3
지금까지 학부모인 나는...					
63.	자녀 문제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본 경험이 있다.	☐ 예		☐ 아니오	
지금 학부모인 나는...					
64.	이 검사에 있는 그대로 성실히 응답하고 있다.	0	1	2	3
65.	본 설문 결과에 따라 전문 상담 등의 지원을 받아볼 의향이 있다.	☐ 예		☐ 아니오	

[부록 3: 마음EASY 검사지]

2 초등학교용 검사지

<마음EASY> 선별 검사(초 등학교용) - 보호자(학부모) 응답

학생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작성자	* 설문에 응답한 학생과의 관계를 표시해 주세요		
	☐ 부 ☐ 모 ☐ 조부 ☐ 조모 ☐ 기타 _____		
연락처: _____			

다음은 초등학교생 보호자 또는 학부모 여러분께 자녀의 최근 상태를 묻는 설문입니다. 이 검사에는 옳거나 그른 답이 없으므로 자신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다음 각 문항을 읽고, 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주로 최근 3개월간 자녀의 모습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곳에 O표해 주십시오.

지난 3개월 간 우리 아이는...				
문 항	전혀 아니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모든 것이 귀찮고 재미가 없다.	0	1	2	3
2. 어른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짜증이 나서 견딜 수 없다.	0	1	2	3
3. 사람과 있을 때 긴장을 많이 한다.	0	1	2	3
4. 긴장을 많이 해서 일을 망친다.	0	1	2	3
5. 이유 없이 감정기복이 심하다.	0	1	2	3
6. 심각하게 죄책감을 느낀다.	0	1	2	3
7. 자신감이 부족하다.	0	1	2	3
8. 매사에 의욕이 없고 피곤하다.	0	1	2	3
9. 원치 않는 생각이나 장면이 자주 떠올라서 괴롭다.	0	1	2	3
10. 괜한 걱정을 미리 한다.	0	1	2	3
11. 기다리지 못하고 생각보다 행동이 앞선다.	0	1	2	3
12.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쉽게 상처 받는다.	0	1	2	3
13. 사소한 일에도 불안해지거나 겁이 난다.	0	1	2	3
14. 갑자기 사고가 나서 부모님과 다시 못 만날 것 같아 걱정한다.	0	1	2	3
15. 늦게 자서 아침에 일어나기 어렵다.	0	1	2	3
16. 외모, 체형, 체중 등에 불만이 많아 견딜 수가 없다.	0	1	2	3
17.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있다(벌레, 개, 높은 곳, 엘리베이터, 컴컴한 곳, 지하실, 주사 등).	0	1	2	3
18. 쉽게 놀란다.	0	1	2	3
19. 흥분해서 부모에게 말대꾸를 하거나 과격하게 반항한다.	0	1	2	3

지난 3개월 간 우리 아이는...				
문항	전혀 아니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 거짓말을 자주 한다.	0	1	2	3
21. 유난히 시끄럽게 논다.	0	1	2	3
22. 다른 아이들과 자주 다툰다(예: 말싸움 혹은 주먹 다툼).	0	1	2	3
23. 어른(부모, 교사 등)에게 반항적이거나 대돈다.	0	1	2	3
24. 이전에 겪었던 힘든 일들(사건·사고, 가까운 사람과의 이별 또는 사망 등)이 지금도 계속 생각나서 힘들다.	0	1	2	3
25. 힘든 일들(사건·사고, 가까운 사람과의 이별 또는 사망 등)을 겪은 후 악몽을 자주 꾀다.	0	1	2	3
26. 힘든 일들(사건·사고, 가까운 사람과의 이별 또는 사망 등)을 겪은 후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한다.	0	1	2	3
27. 적응력이나 대처 능력이 또래에 비해 떨어진다.	0	1	2	3
28. 수업 내용을 대부분 이해하기 어렵다.	0	1	2	3
29.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거나 손발을 계속 움직이게 된다.	0	1	2	3
30.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수거나 훔친 적이 있다.	0	1	2	3
31. 몸이 아플까 봐 건강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한다.	0	1	2	3
32. 게임에 너무 빠진 것 같다.	0	1	2	3
33.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성급하게 대답한다.	0	1	2	3
34. 친구를 사귀거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0	1	2	3
35.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렵다.	0	1	2	3
36. 다른 아이로부터 놀림이나 괴롭힘(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신체적 폭력)을 당하여 힘들다.	0	1	2	3
37. 다른 아이로부터 따돌림이나 무시를 당하여 힘들다.	0	1	2	3

<마음EASY> 선별 검사(중등학교용) - 학생 응답

학생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연락처:		

다음은 청소년 여러분의 최근 상태를 묻는 설문입니다. 이 검사에는 옳거나 그른 답이 없으므로 자신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다음 각 문항을 읽고, 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주로 최근 3개월간 자신의 모습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곳에 **O표** 해 주십시오.

지난 3개월 간 나는...				
문 항	전혀 아니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람과 있을 때 긴장을 많이 한다.	0	1	2	3
2. 이유 없이 감정기복이 심하다.	0	1	2	3
3. 심각하게 죄책감을 느낀다.	0	1	2	3
4. 예민하고 신경질이 난다.	0	1	2	3
5. 자신감이 부족하다.	0	1	2	3
6. 매사에 의욕이 없고 피곤하다.	0	1	2	3
7. 괜한 걱정을 미리 한다.	0	1	2	3
8. 사소한 일에도 불안해지거나 겁이 난다.	0	1	2	3
9. 자주 슬프거나,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해진다.	0	1	2	3
10. 늦게 자서 아침에 일어나기 어렵다.	0	1	2	3
11.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0	1	2	3
12. 자해를 한 적이 있다.	0	1	2	3
13. 자살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적이 있다.	0	1	2	3
14.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0	1	2	3
15. 내 삶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다.	0	1	2	3
16.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0	1	2	3
17. 거짓말을 자주 한다.	0	1	2	3
18. 다른 아이들과 자주 다툰다(예: 말싸움 혹은 주먹 다툼).	0	1	2	3
19. 어른(부모, 교사 등)에게 반항적이거나 대든디.	0	1	2	3

지난 3개월 간 나는...

문항	전혀 아니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 다른 아이를 놀리거나 괴롭힌 적(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신체적 폭력 등)이 있다.	0	1	2	3
21. 이전에 겪었던 힘든 일들(사건·사고, 가까운 사람과의 이별 또는 사망 등)이 지금도 계속 생각나서 힘들다.	0	1	2	3
22. 힘든 일들(사건·사고, 가까운 사람과의 이별 또는 사망 등)을 겪은 후 악몽을 자주 꾀다.	0	1	2	3
23. 힘든 일들(사건·사고, 가까운 사람과의 이별 또는 사망 등)을 겪은 후 다른 사람을 믿기 어려워 혼자 지낸다.	0	1	2	3
24. 힘든 일들(사건·사고, 가까운 사람과의 이별 또는 사망 등)을 겪은 후 지나치게 안전을 확인한다.	0	1	2	3
25. 힘든 일들(사건·사고, 가까운 사람과의 이별 또는 사망 등)이 생각나는 상황을 피한다.	0	1	2	3
26. 담배를 자주 피우고 있다.	0	1	2	3
27. 술을 자주 마시고 있다.	0	1	2	3
28. 적응력이나 대처 능력이 또래에 비해 떨어진다.	0	1	2	3
29.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자는 것이 두렵다(수학여행, 캠프 등).	0	1	2	3
30. 수업 내용을 대부분 이해하기 어렵다.	0	1	2	3
31.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수거나 훔친 적이 있다.	0	1	2	3
32. 게임에 너무 빠진 것 같다.	0	1	2	3
33. 친구를 사귀거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0	1	2	3
34.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렵다.	0	1	2	3
35. 다른 아이로부터 놀림이나 괴롭힘(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신체적 폭력)을 당하여 힘들다.	0	1	2	3
36. 다른 아이로부터 따돌림이나 무시를 당하여 힘들다.	0	1	2	3

[부록 4: 위기스크리닝 척도(초등학교 5학년 이상용)]

위기스크리닝 척도 (초등학교 5학년 이상용)

〈위기스크리닝 척도 활용〉

- (초기 면접에서 수집한)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상담자가 직접** 평정합니다.
- 위기스크리닝 척도의 구성
 - 1차 위험요인 영역: 개인, 가정, 또래 및 학교, 지역사회 영역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차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 인터넷 중독, 학업중단,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문제, 가출, 약물중독, 자살의 9가지 영역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Part 1 〉 : 위험요인 영역 (초등학교 5학년 이상용)

영역	“현재 내담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	아니오	미확인
개 인 영 역	1.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존감이 낮다.			
	2.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존감이 낮다.			
	3. 우울해하거나 목표의식이 없다.			
	4.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많다.			
	5. 중독(알코올, 약물, 인터넷, 스마트폰, 도박 등) 문제가 있다.			
	6. 인지력·이해력·어휘력·대인관계 등에 어려움이 있다(경계선급 지능 수준)			
	7. 성적 관심(예, 음란물 등)이 과도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			
가 정 영 역	1. 가족원간의 폭력과 갈등이 심하다. “예”로 응답한 경우 : 부모 간() 부모와 내담자() 형제와 내담자() 기타()			
	2.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별거 혹은 이혼했다. “예”로 응답한 경우: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 ()			

	3. 가출을 했거나 비행 문제가 있는 형제가 있다.			
	4. 부모 중 형 집행을 선고받은 적 있다.			
	5. 부모에게 중독(알코올, 약물, 인터넷, 도박 등) 문제가 있다.			
	6. 부모에게 정신질환(우울, 불안, 환청 등) 문제가 있다.			
	7.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채무, 빈곤, 실직)가 있다.			
	8. 가족이 이웃, 친족과 왕래가 없다.			
또래 및 학교 영역	1. 지속적으로 술, 약물흡입(본드, 부탄가스, 락카 등), 도박을 하는 친구가 있다.			
	2. 친한 친구나 선배 중에 폭력 서클에 소속된 친구가 있다.			
	3. 친한 친구 중에 조건 만남(성매매)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			
	4. 친구가 없이 따돌림 당하고 있다.			
	5. 학교 선생님과 사이가 좋지 않다.			
	6. 공부에 흥미가 없고 성적이 매우 낮다.			
	7.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적으로 혹은 자주 학교에 결석한다.			
지역 사회 영역	1. 주거환경이 비위생적이고 위험하다.			
	2. 지역사회가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3. 이웃이나 지역사회에 욕설이나 폭행 사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 위험정도는 점수 합계가 0~4 : 잠재군 및 일반군, 5~9 : 위험군, 10점 이상 : 고위험군

< Part 2 > :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

-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은 위기영역 점수 합계와 상관없이 질문에 대한 응답이 하나라도 “예” 일 경우 고위험으로 표시합니다.
 - 파악이 되지 못한 부분은 “미확인”에 체크하고, 추후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파악하도록 합니다.
- ※ 본 영역에서 “예”라고 답할 경우에는 첨부된 “구조화 면접지”를 **활용하여 위기상황을 파악**한 후 그 내용을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합니다.

< Part 2> :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 (초등학교 5학년 이상용)

영역	“현재 내담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	아니오	미확인
인터넷 중독	게임,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예, 학업, 대인관계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학업 중단	학교를 그만 두었고 학업을 계속 할 계획이 없는 상태이다.			
학교 폭력	친구 또는 선후배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			
	친구 또는 선후배에게 폭행을 가하고 있다.			
	같은 반 친구들에게 심하게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같은 반 친구를 심하게 따돌리거나 괴롭히고 있다.			
가정 폭력	같이 사는 가족 구성원 중 내담자에게 자주 심한 욕설이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 있다.			
	가족 구성원 중에 내담자가 자주 심한 욕설이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 있다.			
아동 학대	가정에서 보호자로부터 방임(먹을 것을 주지 않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을 당하고 있다.			
	가정에서 보호자가 내담자의 형제를 심하게 때리거나 방임(먹을 것을 주지 않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한다.			
성문제	성폭력(강간, 성추행)을 당하거나 한 적이 있다.			
	조건 만남(성매매)을 한 적이 있다.			

	남 : 여자 친구가 임신한 상태이거나 임신을 한 경험이 있다. 여 : 임신을 한 상태이거나 임신을 한 경험이 있다.			
가출	현재 가출한 상태이다.			
약물 사용	최근 3개월 이내에 환각제나 가스, 본드, 락카와 같은 약물을 사용한 적이 있다.			
자살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			

예시 질문(초등학교 5학년 이상 청소년의 이해수준에 맞는 대안 질문):

<아동학대>

- 가정에서 보호자가 먹을 것을 주지 않거나,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계절에 맞는 옷을 주지 않거나, 말없이 며칠씩 집을 비우기도 한다.
- 가정에서 보호자가 형제나 자매를 심하게 때리거나 제대로 돌보아주지 않는다.

[부록 5: 현장전문가 FGI 사전질문지]

「위기스크리닝 척도 개정」 현장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FGI)질문지

성별	① 남 ② 여
소속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위	① 동반자 ② 팀원 ③ 팀장 ④기타()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상담경력	· 상담경력: 총 ()년 ()개월 · 위기청소년 상담 사례 수: 총 ()사례

* 질문내용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추가되거나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위기스크리닝 척도(이하, 척도)로 표기합니다.

구분	질문내용
참여자 소개	1. 본인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위기 청소년 유형 및 수준	2. 센터에 의뢰(발굴)되는 위기청소년의 유형은 어떠한가요? - 위기청소년들의 유형과 위기수준(고, 중, 저)은 어떠한가요? - 새롭게 등장하거나 추가하고 싶은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이 있나요?
위기스크리 닝 척도	3. 현재 센터에서 척도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 평정자, 소요시간, 평정시점, 구조화 면접지 사용여부 4.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척도의 구성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 (Part1/Part2, 초등4학년이하/초등5학년이상)

	5.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척도의 문항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 (문항 수, 내용, 용어 등) - 위기청소년 평정에 도움이 되는 문항과 불필요한 문항은 무엇인가요? - 추가되거나 변경되어야 하는 문항이나 내용은 무엇인가요? 6. 척도의 평정기준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Part1/ Part2)
구조화 면접지 문항해설 CYS-Net 가이드라인	7. 척도의 구조화 면접지의 구성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 (유형, 문항, 실제 활용도 등) - 현장의 평정자들은 구조화된 면접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 구조화 면접지에 대한 개선의견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8. 척도의 문항별 해설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 9. 현재 사용하고 있는 CYS-Net 가이드라인(필수연계기관별 주요역할, 위기유형별 지원방안)의 구성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 - 척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으면 무엇인가요?
마무리 제언	10. 척도 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과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척도의 구성 및 문항, 해설, 가이드라인, 구조화 면접지 등) 11. 인터뷰를 마무리 하면서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부록 6: 전문가 서면 자문지]

「위기스크리닝 척도 개정」 전문가 서면자문

성별	① 남 ② 여
소속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위	① 동반자 ② 팀원 ③ 팀장 ④기타()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상담경력	· 상담경력: 총 ()년 ()개월 · 위기청소년 상담 사례 수: 총 ()사례

-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사용하는 ‘위기스크리닝 척도’에서 고위기 청소년 선별의 준거를 설정하기 위해서 청소년상담복지 현장전문가와 학계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면자문을 실시합니다.
- 위기스크리닝 척도는 청소년을 ‘잠재군 및 일반군’, ‘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분류하는 도구로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 내담자의 위기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상담개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잠재군 및 일반군: 위기상황이 나타날 잠재적 조건을 갖춘 경우
- 위험군: 파괴적이지는 않지만 현저한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청소년
- 고위험군: 자신과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

- <PART2: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은 위기영역 합계와 상관없이 한 가지만 해당하더라도 고위험으로 표시됩니다.
-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을 고위험군으로 판단하기 위한 준거(기준)를 설정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PART2: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의 각 영역에 대한 준거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준거는 하나이상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필요시 칸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 아래는 자살 영역에서 고위험군으로 선별하기 위한 준거 예시입니다. 각 영역 준거도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역	준거	
	차원	세부 준거
자살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고위험: 아래 준거 3개 중 1개 해당자 - 최근 3개월 내 있었던 일이다. - 주 1회 이상 자주 자살을 생각한다. - 성공률이 더 높은 자살 방법을 생각해 보고 있다.
		위험: 아래 준거 3개 중 2개 해당자 - 1년 내(3개월 이전) 있었던 일이다. - 첫 시도 이후에도 가끔(월 1회 이상) 자살을 생각했지만, 현재는 그런 생각하지 않는다. - 그 기간 내 성공률이 더 높은 자살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지만, 실제로 시도해 볼 생각은 없다.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

영역	준거(고위험과 위험군 구분 작성)	
	차원	세부 준거
인터넷 중독 (게임, SNS, 쇼핑 등)	고위험군	
	-	
	-	
	위험군	
학교 중단	-	
	-	
	-	
	위험군	
	-	

고립·은둔	고위험군	
	-	
	-	
	위험군	
폭력 가해 (사이버 포함)	고위험군	
	-	
	-	
	위험군	
폭력 피해 (사이버 포함)	고위험군	
	-	
	-	
	위험군	
가정 폭력	고위험군	
	-	
	-	
	위험군	
학대	고위험군	
	-	
	-	
	위험군	
성문제 가해	고위험군	
	-	
	-	
	위험군	

성문제 피해	고위험군	
	-	
	-	
	위험군	
가출	고위험군	
	-	
	-	
	위험군	
알코올 오·남용	고위험군	
	-	
	-	
	위험군	
약물 오·남용	고위험군	
	-	
	-	
	위험군	
정신건강	고위험군	
	-	
	-	
	위험군	
비자살적 자해	고위험군	
	-	
	-	
	위험군	

자살	고위험군	
	-	
	-	
	위험군	
	-	
	-	

- 고위험군 청소년을 선별하기 위해 추가되어야 할 영역이 있으면 작성해 주세요.

영역	준거

- 고위험군 청소년을 선별하는데 중요하지 않아 삭제되어야 할 영역이 있으면 작성해 주세요.

영역

청소년
위기스크리닝 척도
활용가이드

| 목 차 |

I 청소년 위기스크리닝 척도 개요

1. 위기스크리닝 척도 실시 및 활용 방법
2. 위기스크리닝 척도 평정지침
3. 위기스크리닝 척도의 구성

II 위기스크리닝 척도

1. Part1 위험요인 영역
2. Part2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

III 위기스크리닝 척도 문항해설

1. Part1 위험요인 영역 문항해설
2. Part2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 문항해설



I

청소년 위기스크리닝 척도 개요

1. 위기스크리닝 척도의 실시 및 활용 방법

□ 위기스크리닝 척도의 실시 방법

- 아동 및 청소년을 처음 만났을 때(의뢰되었을 때) 바로 실시함.
 - 위기스크리닝 척도는 내담자의 위기상태를 즉각적으로 평정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내담자를 처음 만났을 때 상담자 또는 동반자가 바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즉 내담자에 대한 최초 평가의 목적으로 위기스크리닝을 실시함.
 - 기관의 사정에 따라 내담자에 대한 최초 평가 이후, 상담자가 배정된 이후 실시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경우에도 상담자 또는 동반자가 내담자를 처음 만난 상담에서 위기스크리닝을 실시하도록 함.
- 상담자 또는 동반자가 임상적 판단에 따라 직접 평정함.
 - 이 척도의 목적은 상담자 또는 동반자가 임상적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조력하는 것임. 그러나 의뢰된 아동 또는 청소년에게 스스로에 대해 평정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는 이 척도의 목적에 위배될 뿐 아니라 평정 결과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떨어뜨려 개입의 적절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함.

□ 위기스크리닝 척도의 활용 방법

• 청소년의 위기수준별 선별결과에 따른 차별화된 개입을 계획함.

- 이 척도는 상담자의 평정 결과에 따라 청소년의 위기수준을 일반군 및 잠재군, 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만 최종 진단결과는 아님. 따라서 청소년이 위험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을 때 상담자는 위기영역별로 추가적인 심층진단(표준화된 심리검사)을 실시하고, 전문기관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차별화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위기스크리닝 척도 평정 지침

- 본 척도의 ‘Part1 위험요인 영역’과 ‘Part 2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을 순서대로 평정함. 이후 개입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정자(상담자)’의 평가임. 현장에서 내담자를 직접 만나고 평가하는 상담자의 전문적 판단이 위기선별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 그러므로 평정자(상담자)는 내담자, 가족, 학교, 지역사회 환경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해하여 실제적 적합성을 높여야 함.
- 제시된 척도에 나타나지 않는 위험요인과 특이사항은 별도로 상담자가 기록함. 위기여부를 최종 판단할 때, 이러한 요인 또는 사항을 고려할 수 있음.
- 본 척도의 평정결과는 ‘Part1 위험요인 영역’과 ‘Part 2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으로 각각을 구분하여 산출됨. 이 경우 상담자는 두 가지 영역의 결과 중 청소년의 위기수준이 높은 결과를 채택함.
- 위기스크리닝 척도 평정을 통해 상담자는 내담자의 위험요인과 위기영역을 파악할 수 있으며 내담자의 주관적 경험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음.

3. 위기스크리닝 척도의 구성

• Part1 위험요인영역

- 개인, 가정, 또래 및 학교, 지역사회 4영역, 총 27문항으로 구성됨.

영역	문항수	세부요인
개인영역	10문항	낮은 자존감, 우울·불안, 무기력(동기저하), 중독, 지적능력, 공격성(비행)
가정영역	7문항	부모-자녀관계, 부모양육태도, 중독, 정신질환, 가정의 경제적 상황
또래 및 학교 영역	7문항	또래관계, 중독, 또래비행, 학업, 학교부적응, 교사관계
지역사회	3문항	지역사회 안전성, 지역의 경제적 상황, 지역사회 위험성

• Part2 위기 및 문제 행동 영역

- 스마트폰 과의존, 학교중단, 고립·은둔 등 총 15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위험군과 고위험군을 판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됨.

영역	위기 및 문제 행동	비고
스마트폰 과의존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학교중단	학교중단 이후 장기간 미래에 대해 계획하지 않음	
고립·은둔	타인과의 접촉을 피함	
폭력 가해	타인에게 신체적·정서적 폭력을 가함	사이버 포함
폭력 피해	타인으로부터 신체적·정서적 폭력을 당함	사이버 포함
가정폭력	가족 내에서 신체적·정서적 폭력이 발생함	
방임	가정 및 보호자로부터 물리적, 교육적, 의료적 방임을 당함	
성문제 가해	성 관련하여 누군가에게 피해를 줌	사이버 포함
성문제 피해	성 관련하여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음	사이버 포함
성문제	온라인 그루밍의 가능성 임신 중이거나 과거의 임신 경험	
가출	가출을 한 상태이거나 최근 1년 이내의 가출 경험	
유해 약물	의료용 목적 이외의 유해약물 투약	
정신건강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음	
비자살적 자해	자해를 하는 것	
자살	자살에 대해 생각을 하거나 시도하는 것	

II

위기스크리닝 척도

<Part1>:위험요인영역

- 위기스크리닝 척도는 상담자가 임상적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담자가 직접 평정합니다.** 사전에 <위기스크리닝 척도 활용가이드>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문항에 대한 평정은 예시 질문을 통해 직접 확인하거나, 청소년의 표정, 목소리, 대화내용 등으로 상담자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파악이 되지 못한 문항의 경우 ‘미확인’에 체크하고, 추후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파악하도록 합니다.

영역	“현재 내담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	아니오	미확인
개인 영역	1. 외모에 대한 자존감이 낮다.			
	2. 능력에 대한 자존감이 낮다.			
	3. 슬프거나 우울할 때가 많다.			
	4. 목표가 없고 무기력하다.			
	5.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많다.			
	6. 중독(알코올, 약물, 마약류, 담배 등) 문제가 있다.			
	7. 스마트폰 과의존(SNS, 게임, 사이버도박 등) 문제가 있다.			
	8. 경계선 지능 수준으로 인지능력이 부족하다.			
	9.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한다.			
	10. 비행을 한 적이 있다.			
가정 영역	1. 가족원간 폭력 또는 갈등이 심하다.			
	2. 부모(보호자) 중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쓰는 사람이 있다.			
	3. 부모(보호자)는 자녀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4. 부모 중 사망했거나 떨어져 지내는 사람이 있다.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 ()			
	5. 가족 중 알코올, 약물, 마약류, 게임, 도박 등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			
	6. 가족 중 정신질환(우울, 불안, 환청 등)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			
	7.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영역	“현재 내담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	아니오	미확인
또래 및 학업 영역	1. 친한 친구 중 지속적으로 음주, 약물 및 마약류 흡입, 도박을 하는 친구가 있다.			
	2. 친한 친구나 선배 중에 비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			
	3. 친한 친구 중 조건만남(성매매)을 하는 친구가 있다.			
	4.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없다.			
	5.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선생님(또는 주변 어른)이 없다.			
	6. 공부에 흥미가 없다.			
	7. 장기적으로 혹은 자주 학교에 지각·조퇴를 하거나 결석을 한다.			
지역 사회 영역	1.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과 시설이 위험하다.			
	2. 살고 있는 지역이 경제적으로 낙후하다.			
	3. 살고 있는 지역에 범죄나 자살 등의 사건이 자주 일어난다.			

<Part2>: 위기 및 문제 행동 영역

- 위기스크리닝 척도는 상담자가 임상적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담자가 직접 평정합니다**. 사전에 <위기스크리닝 척도 활용가이드>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은 위기영역 점수 합계와 상관없이 질문에 대한 응답이 하나라도 ‘예’ 일 경우 위험군, 고위험군으로 표시합니다.
- 파악이 되지 못한 문항의 경우 ‘미확인’에 체크하고, 추후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파악하도록 합니다.

영역	문항	예	아니오	미확인
스마트폰 과의존 (SNS, 게임, 사이버 도박 등)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고, 사용하면 안되는 상황에도 종종 사용한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학교 중단	학교중단 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지났으며, 자신의 미래 준비에 관심이 없다.			
	학교중단 후 6개월 이상이 지났으며, 자신의 미래 준비에 관심이 없다.			
고립· 은둔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타인과 대면접촉을 피하고 방 안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타인과 대면접촉을 피하고 방안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			
폭력 가해 (사이버 포함)	최근 6개월 이내에 타인을 위협한 적이 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타인에게 폭력(사이버폭력 포함)을 가한 적이 있다.			
폭력 피해 (사이버 포함)	최근 6개월 이내에 폭력의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폭력(사이버폭력 포함)의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			
가정 폭력	최근 6개월 이내에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폭언을 듣는 일이 1회 발생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폭언을 듣는 일이 2번 이상 발생했다.			

방임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방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방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성폭력 가해 (사이버 포함)	특정 대상에게 성적인 폭력(사이버 성폭력 포함)을 가한 적이 있다.			
	타인에게 성매매, 조건만남을 강요한 적이 있다.			
성폭력 피해 (사이버 포함)	특정 대상에게 성적인 폭력(사이버 성폭력 포함)을 당한 적이 있다.			
	성매매, 조건만남을 한 적이 있거나 타인으로부터 강요받은 적이 있다.			
성문제	오픈채팅방 등에서 성적인 대화를 지속하는 대상이 있다.			
	(여)임신을 한 상태이거나 임신을 한 경험이 있다. (남)여자친구가 임신을 한 상태이거나 임신을 한 경험이 있다.			
가출	현재 가출상태이며, 최근 1년 이내에 현재의 가출 외 다른 가출 경험은 없다.			
	현재 가출한 상태이며, 최근 1년 이내 현재의 가출을 포함하여 가출한 경험이 2회 이상이다.			
유해 약물	최근 1년 이내에 유해약물(마약류, 흡입제 등)을 1~2회 투약한 적이 있다.			
	최근 1년 이내에 유해약물(마약류, 흡입제 등)을 3회 이상 투약하고 있다.			
정신건강	최근 6개월 이내 정신과 약을 먹거나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최근 6개월 이내 정신과에서 진단받았으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			
비자살 적 자해	최근 3개월 이내에 자해행동을 1~2회 한 적이 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자해행동을 3회 이상 하였다.			
자살	최근 6개월 이내에 자살 생각이 2번 이상 들었다.			
	최근 6개월 이내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최근 6개월 이내 자살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Part2>: 위기 및 문제 행동 영역(위험군, 고위험군 표기)

- 위기스크리닝 척도는 상담자가 임상적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담자가 직접 평정합니다**. 사전에 <위기스크리닝 척도 활용 가이드>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위기 및 문제 행동 영역은 위기영역 점수 합계와 상관없이 질문에 대한 응답이 하나라도 ‘예’ 일 경우 위험군, 고위험군으로 표시합니다.
- 파악이 되지 못한 문항의 경우 ‘미확인’에 체크하고, 추후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파악하도록 합니다.

영역		문항	예	아니오	미확인
스마트폰 과의존 (SNS, 게임, 사이버 도박 등)	위험군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고, 사용하면 안되는 상황에도 종종 사용한다.			
	고위험군	스마트폰 사용으로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학교 중단	위험군	학교중단 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지났으며, 자신의 미래 준비에 관심이 없다.			
	고위험군	학교중단 후 6개월 이상이 지났으며, 자신의 미래 준비에 관심이 없다.			
고립· 은둔	위험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타인과 대면접촉을 피하고 방 안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			
	고위험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타인과 대면접촉을 피하고 방안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			
폭력 가해 (사이버 포함)	위험군	최근 6개월 이내에 타인을 위협한 적이 있다.			
	고위험군	최근 6개월 이내에 타인에게 폭력(사이버폭력 포함)을 가한 적이 있다.			
폭력 피해 (사이버 포함)	위험군	최근 6개월 이내에 폭력의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			
	고위험군	최근 6개월 이내에 폭력(사이버폭력 포함)의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			
가정 폭력	위험군	최근 6개월 이내에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폭언을 듣는 일이 1회 발생했다.			
	고위험군	최근 6개월 이내에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폭언을 듣는 일이 2번 이상 발생했다.			

방임	위험군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방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고위 험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방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성폭력 가해 (사이버 포함)	고위 험군	특정 대상에게 성적인 폭력(사이버 성폭력 포함)을 가한 적이 있다.			
	고위 험군	타인에게 성매매, 조건만남을 강요한 적이 있다.			
성폭력 피해 (사이버 포함)	고위 험군	특정 대상에게 성적인 폭력(사이버 성폭력 포함)을 당한 적이 있다.			
	고위 험군	성매매, 조건만남을 한 적이 있거나 타인으로 부터 강요받은 적이 있다.			
성문제	고위 험군	오픈채팅방 등에서 성적인 대화를 지속하는 대상이 있다.			
	고위 험군	(여)임신을 한 상태이거나 임신을 한 경험이 있다. (남)여자친구가 임신을 한 상태이거나 임신을 한 경험이 있다.			
가출	위험군	현재 가출상태이며, 최근 1년 이내에 현재의 가출 외 다른 가출 경험은 없다.			
	고위 험군	현재 가출한 상태이며, 최근 1년 이내에 현재의 가출을 포함하여 가출한 경험이 2회 이상이다.			
유해 약물	위험군	최근 1년 이내에 유해약물(마약류, 흡입제 등)을 1~2회 투약한 적이 있다.			
	고위 험군	최근 1년 이내에 유해약물(마약류, 흡입제 등)을 3회 이상 투약하고 있다.			
정신건강	위험군	최근 6개월 이내 정신과 약을 먹거나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고위 험군	최근 6개월 이내 정신과에서 진단받았으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			
비자살 적 자해	위험군	최근 3개월 이내에 자해행동을 1~2회 한 적이 있다.			
	고위 험군	최근 3개월 이내에 자해행동을 3회 이상 하였다.			
자살	위험군	최근 6개월 이내에 자살 생각이 2번 이상 들었다.			
	고위 험군	최근 6개월 이내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최근 6개월 이내 자살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II

위기스크리닝 척도 문항별 해석

<Part1> 위험요인영역

✓ 문항별 평정 지침입니다. 전문가의 임상적 경험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선정하였습니다.

I. 개인영역

영역	“현재 내담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	아니오	미확인
개인 영역	1. 외모에 대한 자존감이 낮다.			
	2. 능력에 대한 자존감이 낮다.			
	3. 슬프거나 우울할 때가 많다.			
	4. 목표가 없고 무기력하다.			
	5.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많다.			
	6. 중독(알코올, 약물, 마약류, 담배 등) 문제가 있다.			
	7. 스마트폰 과의존(SNS, 게임, 사이버도박 등) 문제가 있다.			
	8. 경계선 지능 수준으로 인지능력이 부족하다.			
	9.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한다.			
	10. 비행을 한 적이 있다.			

상담자는 미리 작성된 상담신청서, 면담 과정에서 보이는 청소년의 말투·표정·어휘, 부모(보호자)와 면담, 상담자의 질문에 대한 청소년의 응답 등을 통해 문항별 평정을 실시한다. 개인영역을 확인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공통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나누며 세부 문항에 대한 평정을 할 수 있다.

<개인영역 공통 질문 예시>

요즘 생활은 어떤가요?

지금 기분은 어떤가요?

[1번 문항] 외모에 대한 자존감이 낮다.

이 문항은 청소년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부정적 태도를 나타낸다. 이때 태도의 심각성 여부를 자신의 얼굴이 ‘못생겼다,’ 몸이 ‘뚱뚱하다’ 등의 표현만으로 결정하지는 말아야 한다. 오히려 이러한 진술 속에서 표현되거나 유추될 수 있는 결과의 심각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해서 아무도 나와 친해지려 하지 않는다,” “~해서 남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와 같은 진술의 경우,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부정적 영향이라는 것이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므로 “예”에 해당한다고 평정할 수 있다.

상담자의 질문 예시)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의 외모 때문에 힘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2번 문항] 능력에 대한 자존감이 낮다.

이 문항은 청소년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부정적 태도를 나타낸다. 이때 능력은 학업, 직업, 그리고 대인관계 영역에 있어서 성취 가능성을 의미한다. 낮은 성취 가능성은 “해봐야 소용없어,” “해도 안 돼”와 같은 형태로 표현된다. 이 경우 “예”에 해당한다고 평정할 수 있다.

상담자의 질문예시)

자신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본인의 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3번 문항] 슬프거나 우울할 때가 많다.

이 문항은 청소년의 전반적 정서가 우울에 기반해 있음을 나타낸다. 해당 여부는 우울한 얼굴 표정 또는 무표정함, 낮은 목소리 톤과 스피드, 말의 내용에서 이러한 상태는 면접 전 나타났을 뿐 아니라 면접 동안에도 계속 관찰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과거에 우울한 적이 있었다는 보고만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는 말아야 한다.

상담자의 질문예시)

지금 슬픈 기분이 드나요?

본인이 우울하다는 생각이 드나요?

[4번 문항] 목표가 없고 무기력하다.

이 문항은 청소년의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으로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음을 나타낸다. 해당 여부는 힘이 없는 말투와 목소리, 말의 내용에서 나타나는 무력감 또는 동기의 결여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상담자의 질문예시)

하고 싶거나 되고 싶은 것이 있나요?

요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5번 문항]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많다.

이 문항은 청소년이 불안이나 두려움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문항의 평정을 위해 먼저 청소년의 자기보고 및 행동관찰을 통해 불안 또는 두려움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 다음 불안 또는 두려움이 학업, 직업, 그리고 대인관계 영역을 포함한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상담자의 질문예시)

요즘 걱정 되는 일이 있나요?

불안한 기분을 자주 느끼나요?

불안이나 두려움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일로는 무엇이 있나요?

[6번 문항] 중독(알코올, 약물, 마약류, 담배 등) 문제가 있다.

이 문항은 청소년이 음주, 약물, 마약류, 흡연 등 을 반복적으로 하며, 이로 인해 학업, 직업, 그리고 대인관계 영역을 포함한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금단 및 내성을 나타내는 단계까지는 아니라도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으면 ‘예’에 해당하지만 마약류를 투약하고 있다면 일상생활 영향과 관계없이 ‘예’에 해당한다.

상담자의 질문예시)

혹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나요?

혹시 먹거나 마시는 약이 있나요?

[7번 문항] 스마트폰 과의존(SNS, 게임, 사이버 도박 등) 문제가 있다.

이 문항은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SNS, 게임, 사이버도박 등에 많은 시간을 쓰고 스스로 조절하기가 힘든 상황임을 나타낸다. 사용시간이 길지 않더라도 이로 인해 학업, 직업, 그리고 대인관계 영역을 포함한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으면 ‘예’에 해당한다.

상담자의 질문예시)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하나요?

스마트폰으로 주로 무엇을 하나요?

스마트폰 사용으로 생활에 어려운 점은 없나요?

[8번 문항] 경계선 지능 수준으로 인지능력이 부족하다.

이 문항은 청소년이 제한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업, 직업, 대인관계를 포함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경계선 지능(웍슬러 지능 검사에서 산출된 지능지수 70~79) 또는 그 이하의 지능 지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거 지능검사 결과나 부모나 교사 등 청소년을 근거리에서 관찰해 왔던 사람으로부터의 정보 등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상담자는 면담과정에서 청소년과 대화내용, 청소년이 사용하는 어휘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지만 개인용 지능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위험여부를 판정할 필요가 있다.

상담자의 질문예시)

학교공부를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나요?

[9번 문항]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한다.

이 문항은 청소년이 공격적이고 정서조절에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내며 자주 욕하고 화를 내거나 자주 짜증을 내는 경우에 해당한다.

상담자의 질문예시)

최근에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난 적이 있나요?

화가 나면 주로 어떻게 행동하나요?

[10번 문항] 비행을 한 적이 있다.

이 문항은 청소년이 과거에 비행경험이 있었거나 현재 비행의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청소년 비행은 경미한 일탈행동(음주, 흡연 등)에서부터 직접적인 범법 행위(절도, 폭행, 사기 등)가 있다. 상담자는 면담 과정에서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또래관계를 확인하고 비행이 의심될 경우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상담자의 질문예시)

친구들과 어울릴 때 주로 무엇을 하나요?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기도 하나요?

물건을 훔쳐본 적이 있나요?

II. 가정영역

영역	“현재 내담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	아니오	미확인
가정 영역	1. 가족원간 폭력 또는 갈등이 심하다.			
	2. 부모(보호자) 중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쓰는 사람이 있다.			
	3. 부모(보호자)는 자녀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4. 부모 중 사망했거나 떨어져 지내는 사람이 있다.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나요? ()			
	5. 가족 중 알코올, 약물, 마약류, 게임, 도박 등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			

6. 가족 중 정신질환(우울, 불안, 환청 등)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			
7.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상담자는 미리 작성된 상담신청서, 면담 과정에서 보이는 청소년의 말투·표정·어휘, 부모(보호자)와 면담, 상담자의 질문에 대한 청소년의 응답 등을 통해 문항별 평정을 실시한다. 가정영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통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나누며 세부 문항에 대한 평정을 할 수 있다.

<가정영역 공통 질문 예시>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은 어떤 분이세요?

현재 사는 곳은 어떤가요?

[1번 문항] 가족원간 폭력 또는 갈등이 심하다.

이 문항은 청소년이 가정폭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거나 폭력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나타낸다.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신체적 폭력(손이나 도구로 때림, 조르는 행위, 할퀴는 행위, 결박,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화상 입힘, 뺨죽한 것으로 찌름 등)이나 언어적 폭력(욕설, 협박, 위협적인 내용의 언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이 문항에 해당한다. 가족간의 지속적인 불화(대화 없음, 무시, 방임)가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반드시 내담자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부모 간, 부모-형제 간, 그리고 형제간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위기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 폭력과 갈등이 일어나는 대상이 있으면 추가질문을 통해 확인한다.

상담자의 질문예시)

가족들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자주 싸우는 가족원이 있나요?

[2번 문항] 부모(보호자) 중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쓰는 사람이 있다.

이 문항은 부모 혹은 보호자의 양육태도가 강압적인지를 나타낸다. 현재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자녀에게 폭언과 폭력을 가하고 있다면 ‘예’에 해당한다. 상담자는 면담과정에서 내담자가 부모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여 평정할 수 있다.

예시질문)

부모님은 어떤 분인가요?

부모님과 관계는 어떠한가요?

[3번 문항] 부모(보호자)는 자녀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 문항은 부모의 자녀양육태도가 방임적인지를 나타낸다. 현재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자녀의 생활에 무관심하고 정서적·경제적 지원에 소홀할 경우 ‘예’에 해당한다. 상담자는 면담 과정에서 청소년이 부모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여 평정할 수 있다. 예시질문) 부모님은 어떤 분인가요? 부모님과 관계는 어떠한가요?
[4번 문항] 부모 중 사망했거나 떨어져 지내는 사람이 있다.
부모 중 한 명 혹은 그 이상이 사망한 경우나 부모님이 별거나 이혼으로 인해 따로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이 문항에 해당한다. 과거에 부모가 이혼하여 현재 새어머니, 새아버지와 살고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예’로 응답한 경우,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누구인지 추가 질문을 통해 확인한다. 예시질문)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나요?
[5번 문항] 가족 중 알코올, 약물, 마약류, 게임, 도박 등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
부모나 가족 중에서 알코올, 약물, 인터넷, 도박에 있어 남용이나 의존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이 문항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알코올, 약물, 인터넷, 도박 문제로 가정, 직장, 대인관계 영역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을 때 “예”로 평정한다.
[6번 문항] 가족 중 정신질환(우울, 불안, 환청 등)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
부모나 가족 중 정신건강 의학과에서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약물 치료나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이 문항에 해당한다. 진단을 공식적으로 받지 않고 있더라도 정신질환으로 의심되는 행동으로 인해 가정, 직장, 대인관계 영역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7번 문항]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①저소득층 지원 대상(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이거나 ②부모님이 채무 혹은 실직 등으로 인해 실제 소득이 매우 적거나 일정하지 않을 때, 그리고 ③이로 인해 가족간 불화가 있거나 금전적인 돌봄(수업료, 급식비, 학용품비, 용돈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문항에 해당한다. 청소년이 본인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상담자는 면담과정에서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가정의 환경을 탐색하면서 평정할 수 있으며, 미리 작성된 상담신청서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예시질문) 용돈은 받고 있나요?

III. 또래 및 학업영역

영역	“현재 내담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	아니 오	미확인
또래 및 학업 영역	1. 친한 친구 중 지속적으로 음주, 약물 및 마약류 흡입, 도박을 하는 친구가 있다.			
	2. 친한 친구나 선배 중에 비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			
	3. 친한 친구 중 조건만남(성매매)을 하는 친구가 있다.			
	4.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없다.			
	5.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선생님(또는 주변 어른)이 없다.			
	6. 공부에 흥미가 없다.			
	7. 장기적으로 혹은 자주 학교에 지각·조퇴를 하거나 결석을 한다.			

상담자는 미리 작성된 상담신청서, 면담 과정에서 보이는 청소년의 말투·표정·어휘, 부모(보호자)와 면담, 상담자의 질문에 대한 청소년의 응답 등을 통해 문항별 평정을 실시한다. 또래 및 학교영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통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나누며 세부 문항에 대한 평정을 할 수 있다.

<또래 및 학교영역 공통 질문 예시>

(학교를 다니는 경우)학교생활은 어떤가요?

친구들과 사이는 어때요?

자주 어울리는 친구(선·후배)는 어떤 사람이에요?

친구들과 만나면 주로 무엇을 하나요?

[1번 문항] 친한 친구 중 지속적으로 음주, 약물 및 마약류 흡입, 도박을 하는 친구가 있다.

주로 어울려 다니는 친구 중 1명 이상이 구체적으로 알코올, 약물, 인터넷, 도박 문제로 일상 생활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을 때 “예”로 평정한다.

상담자의 질문예시)

친하게 지내는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요?

혹시 친한 친구 중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친구가 있나요?

[2번 문항] 친한 친구나 선배 중에 비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

주로 어울려 다니는 친구 중 1명 이상이 비행을 하는 경우 이 문항에 해당한다. 청소년 비행은 경미한 일탈행동(음주, 흡연 등)에서부터 직접적인 범법 행동(절도, 폭행, 사기 등)이 있다. 상담자는 면담 과정에서 청소년의 또래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평정한다.

상담자의 질문예시)

현재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혹시 친한 친구 중 재판이나 보호조치를 받은 친구가 있나요?

[3번 문항] 친한 친구 중에 조건 만남(성매매)을 하는 친구가 있다.

주로 어울려 다니는 친구 중 1명 이상이 조건만남(성매매)을 하고 있는 경우 이 문항에 해당한다.

상담자의 질문예시)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혹시 친한 친구 중 조건만남을 하는 친구가 있나요?

[4번 문항]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없다.

이 문항은 또래관계의 어려움을 파악하는 문항이다. 일상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하며 지내는 또래가 없을 경우 이 문항에 해당한다.

상담자의 질문예시)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나요?

힘들 때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

[5번 문항]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선생님(또는 주변 어른)이 없다.

부모를 제외하고 도움을 주거나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선생님이나 주변 어른이 없는 경우 이 문항에 해당한다. 학교선생님, 센터 선생님 등 주변어른과 관계를 확인하고 평정한다.

상담자의 질문예시)

학교 선생님과 관계는 어떤가요?

주위에 믿을 수 있는 어른이 있나요?

[6번 문항] 공부에 흥미가 없다.

이 문항은 청소년이 학업에 관심과 흥미가 없고, 학습에 대한 동기가 없을 경우 해당한다. 공부 외 활동이나 직업 체험 등에 관심을 갖고 있을 경우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학업에 의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예시 질문)

요즘 공부는 잘 되나요?

공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7번 문항] 장기적으로 혹은 자주 학교에 지각·조퇴를 하거나 결석을 한다.

이 문항은 청소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적으로 혹은 자주 학교에 지각을 하거나 결석하고 있을 때 해당한다.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결석하는 경우와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이 문항을 제외한다.

예시질문)

요즘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는 않나요?

지각은 얼마나 자주 하고 있나요?

IV. 지역사회영역

영역	“현재 내담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	아 니 오	미 확 인
지역 사회 영역	1.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과 시설이 위험하다.			
	2. 살고 있는 지역이 경제적으로 낙후하다.			
	3. 살고 있는 지역에 범죄나 자살 등의 사건이 자주 일어난다.			

지역사회영역의 세부문항에 대한 응답은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환경, 경제적 여건, 위험성 등을 파악하여 상담자가 평정한다. 청소년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니 부모(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1번 문항]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과 시설이 위험하다.

이 문항은 내담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나타낸다. 위험한 환경이란 청소년 유해업소가 많거나, 시설이 낙후하여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상담자는 청소년이 살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확인하여 평정할 수 있다.

[2번 문항] 살고 있는 지역이 경제적으로 낙후하다.

청소년이 낙후된 지역에 거주함으로 인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 문항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낙후한 지역이란 타 지역보다 실업률이 높고,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지역을 의미한다. 상담자는 청소년이 살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확인하여 평정할 수 있다.

[3번 문항] 살고 있는 지역에 범죄나 자살 등의 사건이 자주 일어난다.

청소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폭력 등 범죄가 자주 발생하거나 자살률이 높은 경우 이 문항에 해당한다. 또한 지역에서 대량실업이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상담자는 청소년이 살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확인하여 평정할 수 있다.

<Part2> 위기 및 문제 행동 영역

- ✓ 문항별 평정 지침입니다. 영역별 전문가의 임상적 경험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선정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특정 영역에서 위험군 혹은 고위험군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 영역에 대한 개입계획을 수립합니다.

스마트폰 과의존(SNS, 게임, 사이버 도박 등)

- 위험군: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고, 사용하면 안되는 상황에도 종종 사용한다.
- 고위험군: 스마트폰 사용으로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 문항은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적인 삶에 지장이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스마트폰 이용에는 게임, 도박, 쇼핑, SNS, 동영상 시청 등이 포함된다. 부적절한 시간이나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행위가 거의 매일 하루에 1회 이상 발생하고, 이에 따른 일상기능의 문제가 일회적이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 위험군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만약 스마트폰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심각한 결과 즉, 건강 문제, 대인관계 갈등, 수면 문제, 잦은 지각과 결석, 무단이탈, 만성적 과제 지연 등을 보인다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상담자의 질문예시)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나요?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있나요?

학교 중단

- 위험군: 학교 중단 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지났으며, 자신의 미래 준비에 관심이 없다.
- 고위험군: 학교 중단 후 6개월 이상이 지났으며, 자신의 미래 준비에 관심이 없다.

이 문항의 초점은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 자신의 미래를 위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했거나 수립해 가는 과정에 있는지 여부이다. 단순히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만 하는 경우와는 달리 일의 세계나 자기에 대해 탐색하고 있다면, 계획수립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위험군과 고위험군의 구분은 학교중단 후 위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기간이다.

상담자의 질문예시)

학교를 나온 지 얼마나 되었나요?

학교를 나온 후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고립·은둔

-위험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타인과 대면접촉을 피하고 방 안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

-고위험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타인과 대면접촉을 피하고 방안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

이 영역의 위기 및 문제행동은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다. 대면접촉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만 타인과 접촉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한다. 위험군과 고위험군의 구분은 지속되고 있는 기간이다.

상담자의 질문예시)

외출은 얼마나 자주 하나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피하며 지낸지 얼마나 되었나요?

폭력가해(사이버폭력 포함)

-위험군: 최근 6개월 이내에 타인을 위협한 적이 있다.

-고위험군: 최근 6개월 이내에 타인에게 폭력(사이버폭력 포함)을 가한 적이 있다.

이 영역의 위기 및 문제행동은 타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폭력을 가하는 것이며, 사이버폭력도 포함된다. 위험군은 욕설이나 폭언, 따돌림, 폭행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위험군은 직접적인 폭력을 가한 경우로 신체적 폭행 및 금품갈취, 절도, 괴롭힘 등이 해당한다.

※사이버폭력 유형: 사이버 언어공격,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신상정보 유출,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사이버 강요(사이버 성폭력은 성폭력 영역으로 판정함)

상담자의 질문예시)

누군가를 욕하거나 따돌린 적이 있나요?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때린 적이 있나요?

폭력피해(사이버폭력 포함)

-위험군: 최근 6개월 이내에 폭력의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

-고위험군: 최근 6개월 이내에 타인에게 폭력(사이버폭력 포함)의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

이 영역의 위기 및 문제행동은 타인으로부터 신체적, 정서적 폭력을 당하는 것이며, 사이버 폭력도 포함된다. 위험군은 가벼운 욕설이나 따돌림, 위협, 폭언 등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위험군은 직접적인 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로 폭언, 신체적 폭행 및 금품갈취, 절도, 괴롭힘 등의 피해가 해당한다.

※사이버폭력 유형: 사이버 언어공격,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신상정보 유출,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사이버 강요 (사이버 성폭력은 성폭력 영역으로 판정함)

상담자의 질문예시)

누군가가 당신을 욕하거나 따돌린 적이 있나요?

누군가가 당신을 괴롭히거나 때린 적이 있나요?

가정폭력

-위험군: 최근 6개월 이내에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폭언을 듣는 일이 1회 발생했다.

-고위험군: 최근 6개월 이내에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폭언을 듣는 일이 2번 이상 발생했다.

이 영역의 위기 및 문제행동은 가족 내에서 신체적, 정서적 폭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가정폭력은 직접적인 폭언 및 신체적 폭행 이외에도 잦은 부부싸움의 노출, 가족구성원 간의 폭행 등 간접적인 정서적 폭력도 해당되기 때문에 의심될 경우 상담자는 민감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위험군과 고위험군은 위기가 발생한 빈도로 평정하며 최근 6개월 이내 1회 발생했을 경우 위험군, 2회 이상 발생했을 경우 고위험군에 해당된다.

상담자의 질문예시)

부모님은 당신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혹시 집에서 맞거나 욕설을 들은 적이 있나요?

방임

-위험군: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방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고위험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방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 영역의 위기 및 문제행동은 가정 및 보호자로부터 물리적, 교육적, 의료적 방임을 당하는 것이다. 위험군과 고위험군은 방임의 지속기간을 확인하여 판정한다. 방임기간이 6개월 미만 일 경우 위험군, 6개월 이상일 경우 고위험군에 해당된다.

- 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등
- 교육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은 행위

상담자의 질문예시)

심하게 아팠지만 병원을 가지 못했던 적이 있나요?

밥을 제때에 먹지 못하고 있나요?

성폭력 가해

-고위험군: 특정 대상에게 성적인 폭력(사이버 성폭력 포함)을 가한 적이 있다.

-고위험군: 타인에게 성매매, 조건만남을 강요한 적이 있다.

이 영역의 위기 및 문제행동은 성폭행, 성추행, 성매매 등 성 관련하여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며 사이버 성폭력도 이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육체적, 심리적, 경제적 압력을 가하는 행위로 강간, 성추행, 성적 괴롭힘, 음란전화, 성기노출, 성적 가혹행위, 음란물 보내기, 음란물 제작 및 이용 등 유형과 범위가 다양하다. 따라서 상담자는 청소년의 성적 관심과 행동에 대해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문제 가해 경향이 있는 경우 모두 ‘고위험군’으로 평정한다.

※ 사이버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예시) 불법촬영, 유포·재유포, 유포협박,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소비·구입·저장·시청, 유통·소비, 성적 괴롭힘

상담자의 질문예시)

야한 영상을 보거나 만들었던 적이 있나요?

야한 영상을 누군가에게 보냈던 적이 있나요?

성폭력 피해

- 고위험군: 특정 대상에게 성적인 폭력(사이버 성폭력 포함)을 당한 적이 있다.
- 고위험군: 타인에게 성매매, 조건만남을 강요받거나 한 적이 있다.

이 영역의 위기 및 문제행동은 성폭행, 성추행, 성매매 등 성 관련하여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은 것이며, 사이버 성폭력도 이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육체적, 심리적, 경제적 압력을 가하는 행위로 강간, 성추행, 성적 괴롭힘, 음란전화, 성기노출, 성적 가혹행위, 음란물 보내기, 음란물 제작 및 이용 등 유형과 범위가 다양하다. 따라서 상담자는 청소년의 성적 피해에 대해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문제 피해가 있는 경우 모두 ‘고위험군’으로 평정한다.

※ 사이버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행위(예시) 불법촬영, 유포·재유포, 유포협박,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소비·구입·저장·시청, 유통·소비, 성적 괴롭힘

상담자의 질문예시)

누군가가 본인의 사진을 합성한 적이 있나요?

누군가로부터 야한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나요?

조건만남을 강요받은 적이 있나요?

성문제

- 고위험군: 오픈채팅방 등에서 성적인 대화를 지속하는 대상이 있다.

이 영역의 위기 및 문제행동은 온라인 그루밍 가능성이다. 그루밍은 신뢰와 안정감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을 길들이고 이들의 심리를 이용해 성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온라인 그루밍이 확산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피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성적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담자는 청소년의 온라인에서의 활동에 대해 확인하고 평정한다.

상담자의 질문예시)

오픈채팅방에서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누나요?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어른이 있나요?

성문제

-고위험군: (여)임신을 한 상태이거나 임신을 한 경험이 있다.

(남)여자친구가 임신을 한 상태이거나 임신을 한 경험이 있다.

이 영역의 위기 및 문제행동은 임신 중이거나 과거 임신한 경험이다. 여성인 경우 본인의 임신 여부를, 남성인 경우 여자친구의 임신여부를 확인하여 평정한다.

상담자의 질문예시)

혹시 임신했던 적이 있나요?

가출

-위험군: 현재 가출상태이며, 최근 1년 이내에 현재의 가출 외 다른 가출 경험은 없다

-고위험군: 현재 가출한 상태이며, 최근 1년 이내 현재의 가출을 포함하여 가출한 경험이 2회 이상이다.

이 영역의 초점은 가출의 만성화 가능성 여부이다. 그래서 가출이 처음 발생한 경우는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이전 가출 경험이 있다면, 고위험군으로 분류한다. 가출이 반복된다면, 청소년 자신이나 환경에 위험요소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담자의 질문예시)

지금 사는 곳이 어디인가요?

집을 나온 적이 있나요?

유해약물

-위험군: 최근 1년 이내에 유해약물(마약류, 흡입제 등)을 1~2회 투약한 적이 있다.

-고위험군: 최근 1년 이내에 유해약물(마약류, 흡입제 등)을 3회 이상 투약하고 있다.

이 영역의 위기 및 문제행동은 의료용 목적 이외로 유해약물을 투약한 경험이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해약물이 퍼지면서 펜타닐 패치, 공부 잘되는 약(ADHD치료제), 살 빠지는 약(나비약) 등을 구해서 투약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등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마약을 구입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이외에도 부탄가스, 신나 등의 흡입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위험군과 고위험군은 사용횟수로 선별하며 2회 이하 투약한 경우 위험군, 3회 이상 투약한 경우 고위험군으로 평정한다.

※유해약물: 의약품과 중독성 약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크게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약품, 대마)와 흡입제(본드, 부탄가스, 니스, 신나 등), 기타(술, 담배, 커피 등)로 나눌 수 있다. 본 스크리닝에서는 마약류와 흡입제 투약여부를 문제행동으로 본다.

상담자의 질문예시)

유해약물을 투약한 적이 있나요?

유해약물을 구입한 적이 있나요?

정신건강

-위험군: 최근 6개월 이내 정신과 약을 먹거나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고위험군: 최근 6개월 이내 정신과에서 진단 받았으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

이 영역의 위기 및 문제행동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었으며 정신과에서 진단, 입원치료, 약물치료를 받은 것이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정신과 약을 먹거나 입원 치료의 경험이 있는 경우 위험군, 최근 6개월 이내에 정신과에서 진단을 받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고위험군에 해당된다.

상담자의 질문예시)

정신과 병원에 입원 한 적이 있나요?

정신과 약물을 복용한 적이 있나요?

비자살적 자해

-위험군: 최근 3개월 이내에 자해행동을 1~2회 한 적이 있다.

-고위험군: 최근 3개월 이내에 자해행동을 3회 이상 하였다.

이 영역의 위기 및 문제행동은 자해를 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자해행동은 주로 베기(커팅), 때리기, 손톱으로 긁거나 꼬집기, 물어뜯기 등이 있다. 자해행동이 반복적일 경우 몸에 상처가 남아 상담자는 주의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위험군과 고위험군은 자해행동의 빈도로 평정한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자해행동이 2회 이하이면 위험군, 3회 이상이면 고위험군에 해당된다.

상담자의 질문예시)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낸 적이 있나요?

얼마나 자주 자해를 하고 있나요?

자살

-위험군: 최근 6개월 이내에 자살 생각이 2번 이상 들었다.

-고위험군: 최근 6개월 이내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최근 6개월 이내 자살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이 영역의 위기 및 문제행동은 자살에 대해 생각을 하거나 시도하는 것이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자살 생각을 2번 이상 한 경우 위험군에 해당된다. 자살 충동은 자살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상태이며, 자살 계획은 자살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자살 충동과 자살 계획은 모두 고위험군에 해당된다.

상담자의 질문예시)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죽음에 대한 충동을 느낀 적이 있나요?

Abstract

Revision of the Adolescent Crisis Screening Sca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se the Crisis Screening Scale and its utilization guidelines, which are essential for identifying and intervening with at-risk adolescents in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institutions, to enhance the effective selection and intervention of adolescents in crisis.

The specific revision process of the Crisis Screening Scale is as follows. First, domestic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related to crisis screening scales was reviewed and analyzed. Second, a focus group interview with six field experts was conducted to identify difficulties and needs associated with the current scale's use, providing direction for the revision. Third, to develop items for identifying new types of at-risk adolescent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278 counselors from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centers, and written consultations were collected from nine academic and field experts. Based on this, preliminary items were developed by modifying the existing items and adding new ones in Part 1 (Risk Factors) and Part 2 (Crisis and Problem Behaviors) of the Crisis Screening Scale.

Moreover, for determining detailed criteria for crisis types in Part 2 of the scale, a consensus meeting was held with 12 experts from the field and academia. Teams of three experts per crisis type discussed and finalized the criteria for the risk and high-risk groups suggested in the draft items until consensus was reached.

Finally, the revised Crisis Screening Scale was pilot-tested in 226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centers to validate its effectivenes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preliminary items scored 4.15 out of 5, content suitability scored 4.18,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utilization guidelines scored 4.14, indicating overall satisfactory performance.

Based on these pilot-test results, the research team finalized the revised Crisis Screening Scale through internal meetings, refined and supplemented the rating guidelines for counselors and item-specific examples in the utilization guide, and prepared responses to key questions in a Q&A format.

The revised Crisis Screening Scale developed in this study addresses several limitations of the previous version. First, the earlier scale had two separate versions based on the adolescent's age (fifth grade and above versus fourth grade and below). The revised scale integrates these into a single version, as counselors can measure necessary criteria through observation and interviews. Second, in Part 1 of the previous scale, some items risked causing social stigma or prejudice (e.g., "One of the parents has been sentenced to imprisonment") or were misaligned with real-life contexts (e.g., "The family has no contact with neighbors or relatives"). These items were susceptible to subjective interpretation by counselors. To address this, the revised scale modifies or removes such inappropriate items, thereby reducing potential errors.

Third, Part 2 of the previous scale tended to over-classify adolescents into the high-risk group if a counselor marked "yes" for even a single item. The revised version addresses this by establishing distinct criteria for at-risk and high-risk groups based on behavioral dimensions such as frequency, intensity, and duration. This refinement enables a more nuanced classification into general, at-risk, and high-risk groups. Fourth, the previous scale was inadequate in identifying new crisis types that have emerged as societal concerns, such as isolation and withdrawal, non-suicidal self-injury, mental health issues, and cyberbullying. The revised scale incorporates these new crisis types, reflecting the input of field experts.

Finally, the previous utilization guide lacked tools for exploring the causes of crisis behaviors. The revised guide addresses this by including common questions for each crisis domain and example questions that facilitate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causes of specific crisis behaviors. Additionally, structured guidelines have been introduced to minimize subjective interventions by counselors during evaluations, ensuring a more objective and consistent application of the scal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foundational data to help youth counselors comprehensively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and criteria of different types of adolescents in crisis, particularly at a time when new types of crises are increasing and affecting younger age groups. It also supports counselors in acquiring the necessary knowledge for identifying and intervening with adolescents in crisis. The scale development process adhered to rigorous scientific procedures, including pilot testing in 226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centers and subsequent validation. As a result, the revised scale enables the identification of a broader range of crisis types—such as isolation and withdrawal, non-suicidal self-injury, and mental health issues—compared to the previous version.

Finally, while the assessment method of the revised scale involves counselors rating the degree of crisis, which could allow for subjective judgment, this study addresses this limitation by developing a detailed utilization guide. The guide includes common questions for each crisis domain and example questions for exploring the underlying causes of specific crisis behaviors. These enhancements minimize subjective judgment by counselors and improve the objectivity and effectiveness of the scale's application.

Keywords: counselor assessment, adolescent crisis, screening, scale revision